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7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431 호

불교문화 '상품'으로 뜬다

조계종, 유·무형 문화 '…산업센터' 설립해 개발 계획
의·식·주 전반에 禪 등 불교이미지 응용제품 속속 선뵈

발우를 개량한 식기로 식사를 한 다음 다기(茶器)잔처럼 만들어진 용기 뚜껑을 열고는 녹차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바른다. 선(禪)의 이미지로 디자인된 옷을 입고 컴퓨터 불교 게임을 즐긴다. 반야심경 독경소리가 울리는 휴대폰을 받고는 친구들과 함께 불교 설화 애니메이션을 보러 간다. 집에 돌아와서는 단순하고 간결한 선방 이미지에 불교전통문양으로 디자인된 침구와 가구로 꾸며진 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상상이 아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패션과 인테리어는 이미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오늘날, 불교전통문화의 '콘텐츠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마침내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4일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를 건립해 불교전통사상을 산업화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유·무형의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직장과 가정에 보급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는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계종은 템플 스테이나, 사찰 수련회, 연등축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문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대중성을 확보하는 일. 바로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교전통문화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3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사실 불교문화의 '상품화'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몇 차례의 전시회와 함께 '불교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캐릭터로 재창조하거나, 단청문양의 산업화, 황룡사지 등 불교문화재의 입체영상 복원, 게임, 음반 등의 '상품화'는 이미 몇몇 회사와 개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상품화는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불교문화상품을 선택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문화가 곧 '힘'인 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도회 나아갈 길 주제
통합추진위, 25일 세미나

조계종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백창기 선진규)는 25일 오후 3시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신도운동 50년을 통해 본 신도회의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합 신도회의 정체성과 방향 수립을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발제와 손안식(전국신도회 부회장),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박용규(조계종포교원 신도과장) 씨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통합추진위는 세미나를 그동안 신도회가 종단내에서 해 온 역할을 조망하고 신도조직의 사업과 주요 활동을 평가, 향후 전망을 수립하는 자리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통합추진위는 8월 20일 교구·지역 신도단체, 중앙종무기관 관계자, 신도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도회의 조직체계 및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연꽃 보러 오세요 서울 봉원사에서 17일 시작된 '제1회 서울 연꽃축제'. 8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기간에는 영산재 및 다도시연, 연잎차 시음, 연꽃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사진=박재완 기자

법원,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결정

환경단체들 환영, 김 농림장관 항의 사퇴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전면중지됐다.

관련기사 · 인터뷰 3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대표 3명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일단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개발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이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로 가능한 목표수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행위가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한할 때 과다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15일 환영논평을 통해 "간척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필연적인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계의 일관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본다"며 "참여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16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퇴했고, 전라북도측도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재해복구 요사채도 포함 마땅

조계종, "스님들 주거지 … 대상서 제외는 부당"

조계종이 최근 재해복구사업 대상에 요사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문광부와 행자부에 보낸 공문에서 "요사채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생계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시설에 대한 재해구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찰을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로 규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지정문화재인 3층 석탑이 훼손되고 요사채가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남원시에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요사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암투병 스님위해 목사가 음반

개신교 목사가 종교를 초월해 암투병중인 스님의 쾌유를 발원하는 '사랑의 음반'을 제작할 계획이어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제작자는 임의진 목사(37·전남 강진 남녘교회)이고 수혜자는 일철 스님(49·광주 증심사 주지)이다. 임목사가 이런 아름다운 발심을 한데는 일철 스님과 함께 2년 전부터 환경문화운동인 '무등산 풍경소리' 운동을 펼쳐온 인연때문이다.

두 사람은 증심사 주차장에 '문화마당'을 만들고 지난해 7월부터 그곳에서 '무등산 풍경소리 작은 음악회'를 열어왔다. 11회째를 맞은 지난 18일 '안치환 콘서트'에서 원래는 이 두 도반이 공동사회를 보기로 예정됐지만 스님의 건강 때문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임 목사는 "스님이 간암이란 걸 올해 초에야 알게 됐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무등산 풍경소리 후원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면 빨리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어느 가수의 유명 음반보다도 소중한 의미를 담은 이번 '사랑의 음반'은 광주출정가를 만들고 노래한 범능스님, 가수 안치환, 한보리, 김두수씨 등이 부른 자연 예찬의 노래를 한데 모아 편집했다.

특히 한보리씨는 이번 음반을 위해 새로 두 곡을 작곡했고, 시인 박남준씨는 시 낭송을 했다.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이두 도반의 아름다운 우정에 눈시울을 적신다.

이번 음반은 8월 중순에 1천장 정도로 한정 판매되며 수익금 일부는 일철 스님의 치료비에 쓰이고, 나머지는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 전달된다.

김주일(취재2부 기자)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불교국가 법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성금은 스리랑카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실 곳 : 총무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55568 (재)불교중앙교원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31면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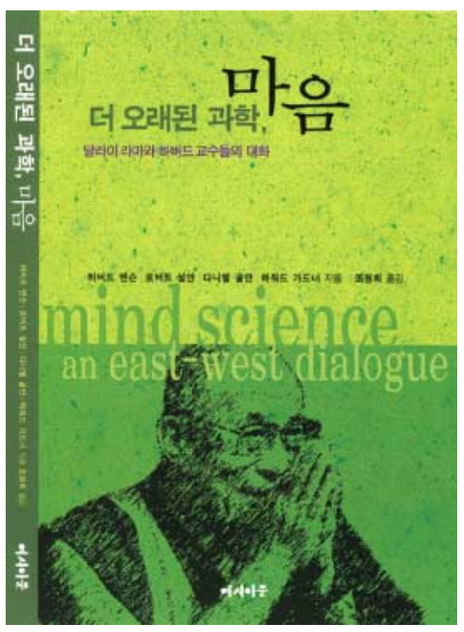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사 설

새만금, 이제 대안을 논할 때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공사 등의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이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기준인 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 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따라 찬반논쟁이 더 거세질 조짐마저 보이지만,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이후의 논의는 갯벌을 살리면서 전북도의 발전방안을 찾는 대안 모색의 차원으로 전개돼야 한다. 다행이 이미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농림부는 이번 결정이 아쉽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부와 사법부가 맞서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오히려 예전의 관행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곤란하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서 사업 집행을 강행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번 판결이 새만금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갈등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찰에서 불자다운 휴가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복잡한 일상을 잠시 접어 두고 쉼터로 달려가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때문에 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휴가를 위해 가족회의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찾기도 한다. 쉼의 시간을 잘 보내려는 마음은 단지 즐김에 대한 유혹이 아니다.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최선의 쉼이기 때문이다. 휴식도 생산의 일환이란 측면에서 볼 때 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마련하는 각종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휴가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갑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설계 하려는 불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불자다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사찰에서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 템플스테이의 정착에 따라 산문을 열어놓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산사도 많다. 또 사찰이 운영하는 성보박물관을 찾거나 사찰과 연계된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도 좋은 쉼의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굳이 사찰을 탐방하지 못할 경우라면 한 권의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침체 기류가 생활인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바른 휴식도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큰 보람을 챙길 수 있는 휴가. 바로 사찰에 그 답이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최소 6년간 교육후 구족계"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교계기자들과 간담회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계획

'북한산관통로 안된다' 소신 변함없어

"인사 · 대정부 문제 長考" 신중성 보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중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18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총무원 출입기자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으며, 법장스님은 안경까지 벗고 대화에 나서는 등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승가교육제도, 승려노후복지, 포교 등 종단 중요 사안과 북한산 문제와 종단 자립기반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간간이 총무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소신도 내비쳤다.

승가교육제도와 관련해 법장스님은 구족계를 받기까지 최소 6년의 교육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내 · 외전, 습의, 포교,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미계를 받도록 하고, 2년간은 전문대학과 같은 강원교육(특정 교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승려노후복지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각 교구본사별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북한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새만금 공사중단 결정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관통도로는 절대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매사에 "원장스님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마지막 조정자로 남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주변에서 자꾸 나서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밖에서 본 것과 (총무원에)들어와서 본 것이 많이 다르다"며 "인사문제나 대정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장고(長考)하고 있다"고도 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의 우회적 표현이다.

"모두가 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다. 돌아올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오던 원융살림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문화재청 승격 협조요청

법장스님, 최병렬 대표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4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과 전통사찰보존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인사차 이뤄진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우리 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다. 그런데 1400억원의 문화재 예산 가운데 불교문화재를 위한 예산은 340억원에 불과하다. 차관청으로 승격돼야만 예산이나 인력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법장스님은 또 "전통사찰에서 무엇을 하려면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그렇지 않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불교가 급속히 바뀌었다.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발언권도 높아졌다."며 관심을 표했다.

한명우 기자

강원교재 '도서·선요' 연내보급

불학연구소, 서장 등 나머지는 내년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강원에서 쓰이는 교재에 대한 사기(私記) 편찬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는 일종의 주석서로, 조선시대 강백들이 경론(經論)에 관한 여러 학설을 모으고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 편찬한 책.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 자료지만 아직 내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집과(四集科, 강원 2년차) 교재인 <도서>와 <선요>에 대한 탈초(초서를 정서로 바로잡는 것)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자료집 형태로 발간해 강원과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장> 등 나머지 교재는 교육원의 강원 통일 교재 편찬과 맞물려 내년부터 진행한다. 권형진 기자



◇북한산관통노선 폐기를 촉구하는 조계종 교구본말사 릴레이 단식정진이 14일부터 조계사앞에서 열리고 있다.

새 위원 법광·도문스님

2기 행자교육원 운영위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18일 제2기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교육원장 당연직) 첫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교육분과 의원인 법광 · 도문 스님을 새로 운영위원에 임명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인 혜정 스님은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대신해 운영위원에 들어왔다. 행자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 의결권을 갖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권형진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고침 본지 430호 4면 일주문 '일창스님 초청 법회' 기사 중 '미얀사'를 '미얀마'로, 8면 '사형제 폐지 외국인의 경우' 기사 가운데 '튀지니'를 '튀니지'로 바로 잡습니다. 또 20면 "왜 '직시인심 · 견성성불'일까?" 제호의 기사 중 '직시인심'을 '직지인심'으로, 본문의 '직지(直旨)'를 직지(直指)로 고칩니다.

건교부, 객관·공정성 포기했나?

'홈피'에 '북한산도로' 홍보…시공사 대변한 인상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에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홍보물을 올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10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너에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홍보물을 올렸다. 홍보물에서 "수도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키우는 환상형 도로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동서남북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교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항의를 받고 홍보물을 삭제했다.

한편 14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와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말사 릴레이 단식 정진이 시작됐다.

16일 열린 부산 경남 지역 조계종 본말사 주지회의에서도 백지화를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과 인터넷 동영상 역학 학원인 월간역학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역학 무료 공개강좌
사주명리학 · 육효 · 수상
7월26일(토) 오후 2시부터
(초 · 중 · 고급 · 실전반: 사주를 배우고도 감정에 자신없는 분을 위해 확실한 교육)
동대문운동장역10번출구 왕십리방향 30m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집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어오던 기구입니다.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진산실업(주)에서 완벽하게 재현에 성공하여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4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관룡자는?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모든 사찰들의 대웅전 중앙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대교당 등 종교단체의 건물 중앙,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등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등의 문화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능, 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들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2003년 7월로 월간역학 창간 13주년을 맞아 130분께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
80만원 입금하신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8~24개월 할부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새만금공사 중단 판결 '앞과 뒤'

갯벌의 생태적 가치 공감 사람· 자연 공생의 '상징'



◇전북 부안에 위치한 해창 갯벌에 뭇생명의 상생을 염원하는 조형물이 서 있다.

⊙공사중단배경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업의 적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해온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즉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가 들어갔고 공사가 73%나 진척됐지만 '선심성 행정'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받아온 대형국책사업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공사 중단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요인은 수경스님을 비롯한 4개 종교 성직자들의 '삼보일배'다.

김귀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국민들에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인지·공감시켰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집행정지 결정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본안사건 선고 전에 긴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지하는 조치여서 최종판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환경단체들의 '논리'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등 일부 정부부처와 전라북도의 강한 반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 했고, 전라북도측도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측은 "사법부의 고심에 찬 판결에 반발해 한 국가의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결정된 정책 준수'를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 근간에 대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산 관통도로'에도 직·간접 영향줄 듯

⊙불교계,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환경연대는 15일 환영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는 생명과 환경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북한산 관통도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는 이번 결정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즉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됐고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됐지만 새만금처럼 사업의 적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돼온 북한산 관통도로도 우회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새만금과 같이 정부가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7월로 예정된 노선 결정도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은 "새만금과 북한산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은 뒤 "환경문제는 환경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해수유통되게 4공구 트고 간척면적 90% 축소해야"

새만금공사 중단 이끌어 낸 수경 스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6일, 수경스님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다. 스님은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 교구본말사 릴레이 단식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먼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가벼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지나친 긍정이 수행자의 '무욕정신'에 반한다는 뜻이 담긴 웃음이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삼보일배가 이룬 쾌거가 아니겠냐고 질문해 보았다.

"삼보일배 당사자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질문을 돌려 이야기를 풀어 보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16일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건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잘 풀어지겠지요."

새만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일단은 4공구를 터 해수가 유통되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터진 부분은 다리로 연결하고 간척 부분도 기존 계획보다 10분의 1정도로 축소하구요. 전라북도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새만금 문제와 북한산 문제를 연결시켜봤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북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여기서부터 스님의 어투에 힘이 들어갔다.

"아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북한산 문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자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까지 내려진 사안입니다. 즉 불교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쉽게 관통노선으로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교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무릎 연골 수술… 등산용 지팡이 짚고 거동

스님은 삼보일배 후유증으로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뒤 등산용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불편한 걸음걸이지만 북한산 문제가 시급해 서울에 올라왔다. 또 스님은 뵈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당분간 남원 실상사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여전히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노천법당을 선방삼아.

남동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종단문장(안) 싸고 이견

너무 일반적, 독창성·참신성 결여

선불교 이미지… 조계종 차별화 문제없다

최근 조계종이 발표한 '종단 문장(紋章·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표시)'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조계종을 상징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조계종은 5년간의 작업 끝에 '삼보륜(三寶輪)'을 종단 문장으로 개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삼보륜이 원이삼점과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이삼점'은 삼보를 뜻하는 세 점(∴)을 선사상과 윤회를 뜻하는 원(○)안에 넣은 형태다. 여기에서 세 점은 '불·법·승' 또는 '법신(法身)·지혜(大般若)·해탈(解脫)'의 법을 상징한다.

이 세 점을 감싸고 있는 원은 '일원상(一圓相)' 또는 '원상'이라고도 한다. 일체중생의 불성은 본래 평등하다는 진리를 표시한 것으로, 선종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일원상에서 찾으려 했다. 삼 점과 일원상을 합한 것이 바로 원이삼점이며, 보통 '삼보상'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보편적인 불교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삼보륜이 원이삼점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다. 일원상에 '법륜'의 의미를 압축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원이삼점이 '삼점+일원상'이라면, 삼보륜은 '원이삼점+법륜'인 셈이다. 그래서 삼보륜의 일원상 두께는 원이삼점의 일원상 보다 두껍다.

하지만 원 두께 만으로 원이삼점과 삼보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미지가 똑같아 '상징'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이삼점은 사찰 법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선학원과 불교방송의 문장으로 쓰이고 있다. 또 일원상은 원불교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진철문씨(한국조형연구소 대표)는 "단순한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반적이다. 조계종의 상징이라면 이미지를 리드해야 하는데, 원이삼점을 쓰는 곳이 적지 않다"며 독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종회의 한 관계자는 "느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삼보륜은 '조계종 상징으로 봐달라'며 느낌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양으로서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계종의 설명은 다르다.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선불교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조계종을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장 개발에 따른 애로점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卍)자'나 '법륜' '일원상'을 포함해 기타 탑이나 목탁, 염주 등 다양한 내용이 이미 불교적 이미지가 각인된 상태여서 개발에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최근 열린 본말사 주지 연수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강원권과 충청·제주권 본말사 주지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보륜이 '종단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가량 차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20%, '종단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종단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현재의 문양에 연꽃문양을 가미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했으며, '단순하다'는 견해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도 솔 암 주지 지 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참여불교세계대회 만찬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은 23일 오후 6시 조선호텔1층 그랜드볼룸에서 2003참여불교세계대회 기념만찬을 연다.

일주문



불교의식 시연 · 교화 공연

도용 금강승원 대승불교 실천승가회장은 26일 오전 10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불교의식 시연 및 교화공연을 개최한다.



재가신도 하안거 결제식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29일 재가신도들을 위한 계미년 하안거 결제식을 갖고 한달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한국불교문화관 발주 귀국

도현 하와이 무량사 주지는 11월 2일 개관예정인 한국불교문화관 건립을 위한 공사 발주차 14일 귀국했다.



'강원불교미술…' 주제 강연

정영호 중앙문화재위원은 18일 강원문화재연구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강원불교미술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호남권 본말사 주지연수

무비 조계종 교육원장은 24~25일까지 중앙승가대학에서 호남권 본말사 주지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02)732-4923



부산불교교육대학서 법문

현웅 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는 21일 오후 7시 30분 총동문회 주최로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법문했다.



민주평통 교육홍보위원에

유광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홍보분과 위원장에 임명됐다.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캠프

원택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은 22~25일 강원도 알프스 리조트에서 제6회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캠프를 연다. (02)723-6165



생일 맞은 재소자 위안법회

운경 인천 대원사 주지는 신도들과 함께 3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생일자 위안 법회를 봉행한다.



대불련 여름대회 개최

박종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31일~8월 3일 강원대학교에서 '행복한 삶,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여름대회를 연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동계올림픽 4관왕 ***전이경*** *씨*

지장경 사경하며 마음공부 … IOC위원이 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프로골프 지망생, 철인3종경기 선수, 체육학 석사…. 이 많은 일들을 꾸려가는 주인공은 동계 올림픽 4관왕, 94년 릴레함메르대회 2관왕, 98년 나가노대회 2관왕에 빛나는 빙상스타 전이경(27 · 사진) 씨. 4년 전 은퇴했지만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듣고, 3시간 정도 철인3종 경기 훈련을 해요. 이어 오후 늦게까지 골프 프로 테스트 연습을 하죠. IOC와 대한체육회 관련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니 하루가 너무 짧네요."

전 씨가 이처럼 '빡빡한 생활'을 자청하고 나선 것은 은퇴한 뒤 안이한 삶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힘들고 초조하면 어머니를 따라 서울 자양동 불심정사에 가서 기도를 해요. 또 지장경을 사경하면서 마음자리를 돌아보기도 하죠."

꿈이 IOC위원이라는 전씨는 조만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학위도 따고 스포츠 외교 분야에 입성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도심포교 새모델 만들고 싶어"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법련사를 통해 도심포교의 새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스님(사진). 주지 소임을 맡은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련사 가꾸기'는 벌써 시작됐다. 그 첫 시도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이 법사로 나서는 '법화경 대산림'.

"수준 높은 강좌로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도심포교당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전 산림을 자주 열어 화이트칼라층을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보경스님은 국립민속박물관, 조계사, 화랑이 밀집해 있는 인사동과 인접해 있고, 자체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법련사를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또 주변에 모여 있는 정부부처 기관의 모임을 유치해 공무원 포교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보경스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도심포교의 새 모델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수행 · 문화 · 신행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년간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불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보경스님은 1983년 송광사에서 출가해 10하안거를 마치고 송광사 총무 · 재무국장과 교육원 교육국장 등을 거쳐 현재는 조계종 13대 종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8월 6일부터 무비스님 법사로 '법화경 산림'

지하철 문화 포교 내실화

'풍경소리' 대표이사 선출된 혜자 스님



"지금까지 풍경소리가 해왔던 포교게시판 사업과 봉축열차 등 지하철 문화포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단체 '풍경소리' 대표이사에 선출된 혜자스님(도선사 주지 • 사진)은 향후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혜자스님은 "그간 풍경소리는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미미하기만 했던 공공장소에 불교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지난 4년여 동안 확보한 대중공간을 불교포교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혜자스님은 풍경소리가 '자비의 말씀' 포스터를 축소한 '엽서형 자비의 말씀'을 제작 · 배포하는 등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법음을 충실히 전달해온 점을 감안, '문서포교'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역사와 공항, 터미널, 빌딩 승강기 등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도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항 등 자비의 말씀 게시판 확대

혜자스님은 또 '맞춤 포교'도 제시했다. 스님은 "지역, 계층, 학력 등을 고려해 포교 방식도 세분화 ·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포교를 위해서도 풍경소리의 문서포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국장애인불자회, 법장스님 예방



한국장애인불자회(회장 장곡)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하고, 9월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립법회에 다각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장곡 스님은 "불자장애인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국유사 국보지정' 산사음악회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는 12일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국유사 국보지정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립국악단의 사물놀이 한마당으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상인 스님은 "국보지정은 실로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연화정사 해수관음보살상 점안

백령도 연화정사(주지 지명)는 12일 관음대에서 '남북평화와 효행사상 고취를 위한 해수관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효녀 심청의 효정신이 깃들어 있는 백령도에 사찰이 건립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운불련 제6대 회장 취임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는 12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6대 회장 취임법회 및 한국 운불련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조홍인 신임 회장은 "달리는 법당의 포교사로서 불법을 홍포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통신80명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법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7월 3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삼 화 불 교 대 학**

남경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7월 3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국제포교사 네트워크 구축

종단협 문화체험행사 통해 축적된 자료 활용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개설

10월 워크숍·한국문화 체험행사 열어

해외에 거주하면서 포교활동을 펼치거나 파견예정인 국제포교사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제포교사들의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4년동안 진행해 오면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포교사들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제포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국가적 특성에 따른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과 파견 예정 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포교사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10월중 진행한다.

국제포교사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웹사이트는 종단협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배너로 링크하기로 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국제포교사들의 국가별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인적사항, 연락처, 사진 등)와 경전 역해, 포교사례를 담은 정보 공유란, 포럼, 칼럼, 핫이슈를 싣는 도움란 등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 정보와 참가자 정보, 체험 후기, 국내외 포교관련 자료 등도 함께 포함된다. 종단협은 웹사이트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2천 6백여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전문용역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종단협은 10월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해외불교지도자, 해외사찰 스님, 국제포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특성에 따른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국인이 본 불교' '해외에서의 한국사찰의 특성과 포교현황' '성공사례를 통해 본 국제포교의 과제' 등의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종단협은 이날 워크숍의 자료를 취합해 웹사이트에 게재, 국제포교사의 활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종단협 조용준 기획과장은 "수년간 국제포교사들의 한국불교 체험을 개최해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실제 국제포교활동을 위한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포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포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어린이 여름생태학교 연다

불교계 최초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환경의 귀중함을 체험시키는 '어린이 여름 생태불교학교'가 개설된다.

불교환경연대의 주최로 열리는 어린이 여름 생태불교학교는 1차 의정부 회룡사(북한산국립공원), 2차 여주 신륵사(남한강), 3차 서산 부석사(서해안)로 나눠 진행된다.

회룡사 생태불교학교는 '회룡사에서 만나는 북한산'을 주제로 19~20일(유치부 30명), 25~26일(초등부 30명) 두 차례 열린다. 식물분류학자인 김병현 씨의 지도아래 ▲북한산이란 ▲밭에는 어떤 작물이 있을까요 ▲사패봉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북한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북한산의 귀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신륵사 생태불교학교는 '신륵사에서 만나는 남한강'을 주제로 8월 9~10일까지 열린다.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이학영 회장의 지도아래 ▲한강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까? ▲생태지도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여주의 문화유적과 한강의 형성과정, 특성 등을 알아본다.

부석사 생태불교학교는 '부석사에서 열리는 서해바다'를 주제로 8월 30~31일까지 열린다. ▲서해는 어떤 물고기가 살까? ▲해변을 따라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해 바다의 생태적 특성과 보존가치에 대해 공부한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스님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사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자연적 생태를 해설해 사찰이 지닌 환경자원을 잘 보존하려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20-1654

1차 회룡사-식물분류학자 김병현씨 지도 두차례

2차 신륵사-생태지도만들기·여주문화유적 탐방

3차 부석사-서해물고기 생태특성·보존가치 공부

남동우 기자

경부고속철(경주~부산구간) 7월말 결정?

대안노선검토위 활동시한 28일 끝나

경부고속철 대안노선검토위가 대안노선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양산천 중심부 관통노선에 대한 양산시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노선검토위의 활동 시한이 28일로 사실상 끝난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 〈경부고속도로~양산천~양산신도시~경부선~부산역〉 〈경부고속도로~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정산 만덕터널 지하~부산역〉 등 2개 대안노선과 기존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을 비교, 이달 말 최종 부산노선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최종 노선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안노선에 대한 의견서를 총리실에 제출키로 합의한 상태라 이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시민·종교대책위'가 주장해 온 대구~부산 직선노선은 이미 확정된 2개 대안노선에 사실상 추가하지 않아 충분한 대안 노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원사의 지율스님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현장 답사 없이 진행된 대안노선 검토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천성간 터널 구간의 안전성, 지질 문제 등에 대한 대답이 없는 대안노선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인도 카스트제 철폐 위해 무보수 교장직 맡았어요"

꾸마리 쁘리양카 수자타 아카데미 초등학교장



"카스트 제도 철폐를 위해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5일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석차 입국한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초등학교 꾸마리 쁘리양카(KUMARI PRIYANKA · 사진) 교장. 그녀는 지역에서 드물게 여성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지만 카스트 제도 철폐를 위해 무보수로 교장직을 맡고 있다.

비하르주 가야시 마가다레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로부터 어떤 나라에서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JTS와 인연을 맺었다.

학생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자원봉사자인 선생님 수는 한정돼 있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카스트 제도로 인한 학생들간의 단절.

그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버지다. 높은 카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촉 천민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전 생애를 수자카 아카데미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살짝 미소를 보였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전서 영문검색 가능

동대 전자불전연구소, 조선시대편 입력

<한국불교전서>가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져 각국의 불전 전산화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21일 교무회의실에서 홍기삼 총장을 비롯 교무위원, 불교학 컴퓨터 전공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4차 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스님은 "이번 한국불교전서 4차 사업에서 입력한 글자가 약 160만자에 달하며, 지금까지 색인어로 등록된 단어는 약 5만여 단어에 이른다"며 "영문검색 기능 강화로 세계불교 디지털 도서관 웹사이트 구축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또 4차 사업에서 누락문자 관리기와 데이터베이스 저장기, 다양한 검색 시스템 개발과 인터페이스의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완을 통해 불교학 전공자들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한국불교전서를 한층 더 편리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색 시스템은 색인어 검색 제목, 검색 페이지 검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인어는 단일어, 복수어, 획수, 목록 등 다양한 검색 시스템을 갖췄다.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보완에서는 들여 쓰기 기능과 원문에 포함된 그림 지원 등도 제공된다.

연구소는 2004년 6월까지 전산화 5차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편 V과 VI를 전산화 할 예정이다.

1997년 12월에 설립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시범사업과 1차 사업에서 신라시대편 I과 고려시대편 I을, 2차 사업에서 신라시대편 II와 III, 3차사업에서 고려시대편 II와 고려시대편III, 4차 사업에서 조선시대편 I과 조선시대편 II을 입력, 총 12책 중 70%를 완료한 상태이다.

김원우기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장 고법 항소

법장스님 "선업행위…무죄되도록 최선"

승가사 시주금 문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죄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11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같은 날 검찰도 판결결과에 불만족을 표하며 항소했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SK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6일 총무원을 방문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2심 재판에서는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의지를 모아 순수하고 선업공덕을 위한 종교행위가 무죄임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수계식

오는 11월 5일, 2004학년도 대입수능이 치러집니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당국의 교육정책혼선으로 인하여 입시자녀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조차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절에서는 수능을 100여일 앞둔 7월 27일 오전10시 입시자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수계식을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에 힘입어 아빠 · 엄마 · 자녀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수계공덕]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태고종은 4~5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열고 6부중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남·녀 전법사

태고종, '6부중' 제도 시행

첫 수계산림…전법·전교사 83명 배출

종단기강확립 등 종풍쇄신 적극 추진

태고종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이뤄진 4부중에 남, 여 전법사(전교사)를 포함, 6부중으로 범위를 넓힌 전법사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이를 통해 대승교화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한편, 참여하는 종도와 사찰을 중심으로 종단 운영의 틀을 변화시켜 나간다.

태고종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봉원사에서 수계산림을 열어 종단 최초로 전법사(남자 재가승)와 전교사(여자 재가승) 83명을 배출했다. 이날 수계한 전법사들은 조계종의 포교사와는 달리 준승려의 신분으로 종단과 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임의 신분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재가불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태고종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8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하고 새롭게 전교사법을 제정해 이들을 성직자로 승격시켰다. 전교사법은 전통적인 승려와 신도로 구성된 4부중의 개념을 출가승과 재가승, 일반 신도로 구성된 6부중으로 확대한 법제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승려의 부인, 교임, 포교사 등을 전법사 또는 전교사로 임명해 종단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통해 이들의 활동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6부중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사찰과 문중 단위로 이뤄지던 구족계 수계도 종단 차원에서 개최했다.

태고종은 6부중 제도 시행을 통해 종단의 기강 확립과 참여하는 풍토 조성 등 종풍 쇄신으로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한신고와도 연계, 종단에 대한 사명감과 애종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종도와 사찰을 중심으로 종단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각오다. 반면 종단에 비협조적이거나 종단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승려와 사찰에 대해서는 제적 또는 징계를 통해 종단의 개혁불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사조직의 활동 보다는 공조직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종도가 정당한 예우를 받는 종단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조직과 단체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명분만 찾는 이는, 조직과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지도자나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종단 분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운산스님은 또 "54년부터 이어진 불교분규와 종단내 갈등과 분열로 인해 태고종은 특색 없는 종파불교로 전락했다"면서 "6부중 제도 정착과 승풍 기강 확립을 통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대승교화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진각종, 해탈절 불사 봉행

진각종은 종단의 7대절 중 하나인 해탈절(우란분절)을 맞아 15일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을 비롯한 전국 심인당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의 해탈과 현생부모의 복지구족을 서원했다.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해탈절 불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해탈절은 현생부모의 복지구족과 선망조상불의 추복 서원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는 경구처럼 해탈절을 맞아 효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각종, 광주교도소 교화 공연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6일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 교화 공연 및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진설스님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교화법회와 전남 도립국악단 상임위원 김향순 씨 등 국악인의 어울림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심신을 더욱 청정히 하여 분별심을 벗어버리고 자비와 덕을 행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회당대종사 교육이념 체계화

회당학원, 위원회구성 위원 12명 위촉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이 회당대종사의 교육 이념 체계화와 CIP(이미지 표준화 프로그램)를 추진한다.

회당학원은 최근 회당 교육이념 체계화 및 CIP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희택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산하학교별 행정실장 및 교사 등 총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교육정신과 산하학교 교육이념과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회당교육이념체계화 및 CIP 추진위원회는 학원 산하 학교별 교육이념 체계 및 CIP 관련 자료와 타 학교법인의 CIP 사례 등을 취합해 이달말 열리는 회의에서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각 학교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이념체계, CIP 규정집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의 활동을 통해 교육이념 보고서인 정책제안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스님6명 승정추대 의결

조동종, 승정원회의

조동종은 10일 승정원 회의를 열고 덕춘, 덕천 스님 등 6명을 새롭게 승정에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또 올해 승려연수교육은 일정을 축소해 10월 6~8일 총무원에서 실시하고, 종도수첩 제작과 종단가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정원의 '원로원'으로의 명칭 개칭은 보류했다.

총화종 '홈피' 새단장 개통

종단현황·산하사찰 한눈에 파악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인터넷 홈페이(www.chonghwajong.org)를 새단장, 15일 재개통했다.

홈페이지는 불교와 종헌종법, 소의경전, 종단사 등 종단 현황, 산하 사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과 자료실, 사찰기행 인터넷을 통한 종무행정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종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각종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어린이집 교사 등 연수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종립 유치원 교사와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자연에서 부처님을 만나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포교방법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혜정 교육원장의 주제강연과 김애자 위덕대 교수의 '미술감상 교육의 실제' 등 강의, 생활 속의 수행체험, 교리 강좌 등으로 실시된다.

전통등·사물놀이 강습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9월부터 3개월간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전통등 만들기와 사물놀이 강습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강습은 전통등 제작과 사물놀이패 구성을 위해 실시되며, 주중 야간 또는 주말에 하루 5시간씩 실시된다. 20세이상 30세이하, 남여 구분없이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02)552-1080

승려 연수교육

삼론종 교육원(원장 진봉)은 24~25일 강원도 평창 부석사에서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종도들의 종단관을 심어주기 위한 '삼론종과 불교' '애종심과 종단관' '효율적인 종무행정관리' 등의 강의와 불교의식 실수, 교육원장 진봉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게시판

행사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제1회 여름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2·3세대 젊은 세대들의 문화 공유와 건전한 노인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학과 Bartender와 Cocktail, 풍선아트. 접수기간은 25일. 교육기간은 28~8월 2일. (02)929-7950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아름다운 바자회'를 24일 구로두산아파트 102동 앞과 구로시장 입구에서 개최한다. (02)852-0525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4~19일 복지관 강당에서 '엄마랑 아이랑-해피쿠킹'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월·화 오후 2~4시. 수강료 4만원. (02)571-2988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는 장애-비장애 학생·교사 통합캠프 '친구야 함께 놀자'를 28~30일 대전 삼성화재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한다. (02)2635-9727

모집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일시는 매주 월~금. 오전 10시~오후 3시. (031) 455-0551

▲서울 자양사회복지관은 2003 여름방학 특강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특강은 21일~8월 16일까지 뮤지컬잉글리쉬, 종이접기, 도예교실, 한문예절 등이 진행. 봉사캠프는 30~31일 연꽃마을 용인노인요양원에서 개최된다. (02)2201-1629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컴퓨터, 풍수지리, 단전호흡, 생활요가, 발지압 등 사회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관련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통. 마감은 23일. (02)466-6242

구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기획 실무 담당자를 모집한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자기소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접수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전형은 방문 접수시 동시에 실시. 마감은 25일 (02)734-8050.

이전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3층에서 종로구 청진동 18번지 삼영빌딩 402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5-8165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148-5번지에서 종로구 가회동 177-14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5-534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3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금강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총재) · 김호귀(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6월 2일 ~ 2003년 8월 2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3년 8월 9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	· 한문법(1),(2) 신심명, 육조단경, 금강경, 법화경, 십지품 등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재동(동국대), 송찬우(승가대)
다도학과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한, 한국의 헌다례	이귀례(교장선생님), 선혜스님 등
우리춤학과	· 우리춤기본, 승무기본, 작법기본, 북과장단기본	이애주(서울대교수 : 중요 무형문화재 27호, 승무보유자)
불교미술학과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랑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팔리어학과	· 팔리어문법, 팔리어강독, 티벳트어,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다도학과(정규:50명) • 우리춤학과(정규:30명) • 미술학과(정규:30명) • 팔리어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7월1일~ 2003년 8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4시(우리춤학과)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금요일 오후7시(팔리어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3년 9월 4일 (목), 다도학과 : 2003년 9월 2일 (화), 우리춤학과 : 2003년 9월 3일 (수)
불교미술학과 : 2003년 9월 3일 (수), 팔리어학과 : 2003년 9월 5일 (금)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생명·평화의 염원 지리산 보다 높이…


◇15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환경활동가들에게 생명·평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50여단체 300여명의 환경활동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노고단에서 생명-평화의 기도, 집중·토론마당, 체험마당, 문화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고단에서 올리는 생명·평화의 기도
- 한반도 평화, 환경 살리는 길



"우리 모두 하나의 그물 안의 그물코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평화의 존재임을 깨달아 지리산에 잠든 영혼, 함께 사는 주민, 깃들어 있는 뭇 생명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와 지구촌의 생명·평화를 위해 오늘 두 손을 모으고 기도 드립니다."

15일 지리산 노고단.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반도 단전에 속하는, 이념의 대립이 극심했던, 남남갈등의 경계선인, 생명살림의 터전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지리산에서 뭇생명과 상생·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양재성 지리산생명연대 운영위원장(45)의 지리산 소개에 이어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소장(46)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리산은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노고단의 경우 8년 동안 휴식년제를 했더니 자연 스스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선 15년 정도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기도를 이어받았다.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건 바로 전쟁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집중·토론마당
- 전국 50여 단체 토론 열기로 가득



14일부터 16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2003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에는 50여개 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리산에서 꿈꾸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첫날은 도법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우리시대 환경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 모색' 주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틀째인 15일 새벽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한 환경활동가들은 오전 '생명위기시대의 진단과 반성'을 주제로 집중마당을 펼쳤다. ▲소모적 갈등에서 소통과 공감문화 만들기 ▲자치분권과 지역개발 ▲땅, 식량, 에너지-대안경제 ▲강 살리기-새로운 전환과 모색 등 4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집중마당에서는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변홍철 녹색평론 사무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오후에도 ▲새만금 그 성찰과 전망 ▲도로 건설과 환경파괴, 그리고 생태적 삶/사진전 ▲시민환경운동은 농업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 지구화시대의 녹색경제 운동의 과제와 방향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 전망과 올바른 방향 모색 ▲환경운동의 여성리더쉽-평가와 과제 등에 대해 토론마당을 열었다.

체험마당
- 수행프로그램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



"'위'는 특별한 몇 가지 대상을 의미합니다. '빠사나'는 올바른 관찰을 지칭하구요. 따라서 '위빠사나'는 특별한 몇 가지 대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15일 오후 극락전 옆 대나무 숲에선 성륜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의 지도로 체험마당인 '숲 속의 위빠사나'가 열렸다. 25명의 환경활동가들은 대부분 위빠사나 수행이 처음인 듯, 호기심어린 눈으로 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진실·현실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 깨어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륜스님의 강의가 끝나자 활동가들은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틀었다. 죽비 소리가 세 번 울리자 활동가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들숨과 날숨을 세기 시작했다. 20여분이 지나자 다시 죽비소리가 들렸다.

단전호흡을 수련한 적이 있다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41)은 환경활동가들에게 수행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활동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늘 상생과 조화를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때때로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숲 속의 위빠사나 외에도 천연염색, 지리산 풀과 열매로 효소담그기, 건강 쑥뜸, 부황(대체의학) 배우기, 춤 명상, 빨치산과의 대화 등의 체험마당이 열렸다.

문화마당
- 사찰문 열고 시대와 호흡



저녁 식사를 마친 활동가들이 다시 모였다. 문화마당인 '지리산자락 마을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대보름 달빛아래 올리는 하늘제사'로 시작했다. 제사는 장회익 녹색대학 총장과 이정자 녹색미래 공동대표를 제주(祭主)로 분향과 취지문, 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아픔을 딛고 상처를 딛고 선 의연한 산 지리산의 이름으로 온누리의 한생명, 온생명에게 생명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로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제사에 이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나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 놓았다.

"천민자본주의·개발독재 시대에 횡행하던 도깨비가 다시 날뛰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인소득 2만불 올리기 캠페인이란 것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지금, 대안없는 2만불 시대는 민족의 먹구름일 뿐입니다."

나팔꽃 공연에 이어 백창우, 김원중, 김용택씨 등이 읊조리는 시와 노래는 지리산 자락을 밤늦도록 휘감아 돌았다.

2003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사찰에서 열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대답은 명쾌하다.

"불교사상과 정신을 시대에 실현하는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또 그것이 사찰을 지은 본래 취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펴기 위해선 사찰이 문을 열고 시대와 호흡해야 합니다."

남원=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지원단체 40곳…불교계는 2곳 뿐

2월말 총 36만 7천 … 불법체류자 28만 7천명
임금체불·인종차별 등 각종 피해 무방비 노출

불교국가 노동자 타종교로 개종 사례 늘어
법률·의료·쉼터 등 지원 네트워크 시급

▣ 외국인 노동자 실태

2003년 2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36만7천여 명. 이는 1987년 6천4백여 명에서 무려 57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미등록 불법체류자 수도 4천2백여 명(65.5%)에서 28만7천여 명(78.4%)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지난 88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따라 대거 한국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종 차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급증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가 지난 2001년에 발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 내 폭행 △인신 구금 △여성 노동자 성폭행 △입국을 위한 거액의 수수료 요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종교계의 지원 활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곳은 다름 아닌 종교계다. 종교 본래의 사회적 역할은 바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다. 인권상담,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포교(선교)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종교계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나서고 있는 한 이유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해당 종교를 알리는 선교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런 목적으로 천주교·개신교 등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를 꾸준히 개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뛰어든 종교는 천주교다. 지난 1986년부터 부산·인천 등에서 사목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천주교는 말씀의선교수도회, 착한목자수녀회,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등의 단체들이 인권 관련 상담, 진료활동, 귀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개신교도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비롯해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남양주시 여성교회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서울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지가 7월 현재 종교 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40곳 시설 중 개신교는 20곳(50%), 천주교 14곳(35%)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교계는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단 2곳(5%)에 불과했다.

천주교·개신교 등의 지원 시설이 85%에 달하다보니, 불교권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0% 내외에 달하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불교권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무종교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 선택도 천주교·개신교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불교권 국가로 알려진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무종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주교를 포함한 타종교 선택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한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문을 연 경불련 김포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가 이 지역 검단 양곡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체불임금 의료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선재마을의료회가 27일 부천 석왕사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 무료진료소를, 또 전남 광주 자비신행회가 25일 '한꽃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서울 조계사가 외국인 안내소를 중심으로 불교국가 노동자들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개신교에 비교하면 충분치 못한 수준이다.

김포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구본희 간사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타종교 시설에 불교권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리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받아 줄 불교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 불교의 접근 방향

불교의 사회활동 분야는 복지나 환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인권이나 여성·아동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이런 인식전환 없이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사찰이나 신행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불교계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교가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이 사회 속에서 용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출발선상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법을 먼데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천주교·개신교 등이 그간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해왔음에도 불구, 아시아 불교문화권에 신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 현지의 중·하층 선교 실패에서 찾고 있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또 이들 종교단체가 해외 선교전략을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선교로 전환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는 우선 종단 차원의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불교 프로그램 메뉴얼 제작 △법률 및 의료 분야 신행단체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교구본사별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개설 △불교권 외국인 스님 초빙, 자국 노동자 포교 전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된다"며 "이는 기존 80%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3년간의 합법적 체류자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불교계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삼파키타(필리핀 국화)' 공동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1995년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위해 서울 혜화동에 마련해준 신행공동체다. 천주교는 이곳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주 일요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필리핀 사제가 올리는 미사에 참여토록 도와주고 있다. 개신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외국인 노동자돕기 현주소

등 전국에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다. 두 종교는 불교권 국가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의 폭을 넓히는 등 활발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교계가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불교계의 활동 현주소 등을 짚어본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갈릴래아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3백여명이 안산 원곡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보고 있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손영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선임연구원

사찰에 가는 또 하나의 이유

성보 도난 막기 위해 전국 사찰 방문
비지정 문화재 획기적 관리 대책 필요

유명한 대찰이나 한적한 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깊고 높은 산속의 아늑한 공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건립된 사찰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부처님과 불화, 그리고 부처님의 권속들이 하나의 불국토를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사찰을 몇 해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주 다니고 있다. 전국에서 나만큼 사찰을 많이 다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거나, 개인과 가족의 복을 빌거나 특이한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내가 사찰을 다니는 이유는 그 속에 길게는 천년, 짧게는 몇 십 년 된 소중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그런 문화재를 조사하러 사찰에 다닌다.

아마 웬만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스님들께서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일년 내내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 외에도 사찰에는 문화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 사진작가들, 일반 관광객들, 성지순례자들 등의 사람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 중에서도 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단을 오르내리고, 부처님을 비롯한 각종의 성보(聖寶)에 줄자를 대어 크기를 재고, 만져보고 하는 나 같은 범부가 가장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물론 스님과 부처님께서는 나의 이 경망스러운 행동이 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 귀찮음도 흔쾌히 용납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주지스님의 허락 아래 진행되는 일이지만 가끔은 호법신중보다 더 근엄한 법당 보살님께 혼쭐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분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찰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도난당했다. 두꺼운 책 한권을 채울 만큼 많이 도난당하였다. 아무리 최첨단 도난방지 시스템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 신출기몰한 도난범들은 비가오고 눈이 오고 사람들의 미동이 없는 날만을 골라 부처님의 복장을 훼손하고, 불화를 면도날로 그어 용케도 훔쳐간다.

내가 이런 조사에 던져진 것도 바로 문화재의 도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내는가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현재 사찰에 소장된 지정문화재는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지정문화재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지정문화재가 훨씬 더 많고 그 중에서는 국보·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상당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 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비지정문화재는 철저한 검증과 고증을 거쳐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준하는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스님의 말씀대로 "문화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알려지고 난 뒤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말을 새삼 되내이지 않더라도 조사가 끝난 후 그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의 사찰 탐방이 점차 줄어드는 날, 아마도 스님께서도 두 다리 쭉 뻗고 곤한 수행의 잠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 나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닌 순수한 불자의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워온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유일의 정부출원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뤄낸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2201-3333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우리은행 불자회원들이 아이들을 안고 미소를 짓고 있다.

◇'눈맞춤'. 현동관(사진 왼쪽) 부회장이 태호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은행불자회 상락원 봉사현장

뒷바라지 힘은 들지만 되레 감사하는 마음이…

목욕·간식준비·청소·빨래 등

"태호, 시원하지."

"으~응."

17일 서울 안암동 장애아동복지시설 상락원. 현동관씨(47)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태호(4)를 씻겨주고 있다. 목욕을 안 하겠다고 떼쓰던 태호를 달래고 목욕시키는 솜씨가 능숙하다. 단단히 골이 났던 세련이(5·정신지체 2급)도 현씨가 씻기고 난 뒤 금세 웃음을 짓는다.

'천진불'과 어울리며 큰 공부

매달 셋 째 주 일요일. 상락원에는 고마운 손님들이 온다.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 회원들이 바로 그들. 자원봉사를 원하는 은행 불자직원 20여명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았다. 자주는 못 왔지만 아이들과 이미 친해졌다.

하지만 목욕만큼은 언제나 한바탕 '전쟁'이 치러진다. 울부짖다 못해 방바닥에 머리를 찧는 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이. 되레 간식준비, 청소는 '누워서 떡먹기'다. 80여명의 정신지체 아동의 옷을 벗기는 것부터 비누질, 물기 닦아주기, 빨래에 이르기까지 손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씻고 나면 아이들이 개운해 합니다.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배워갑니다."

신창호(44) 불자가 이곳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불자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자원봉사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그냥 일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은행 불자회의 봉사활동은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 소쩍새마을 봉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매년 분기별 파주 노인요양원 진인선원 방문 등 꾸준히 소외된 이웃과 만나고 있다.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다가와 안기고 손을 맞잡습니다. 잘해 주면 좋아하고, 잘못해주면 싫은 표정을 짓는 그야말로 천진불이지요. 정신 지체 아이든, 치매 어르신이든 말입니다. 이들에게서 마음 닦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냐에 따라 이들의 표정이 달리지니까요."

이탁수(49)씨가 말하는 '수행법'이다. 자원봉사할 때의 마음가짐이 사심 없어야 진정한 불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불자회 정진호 회장은 "날마다 일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직장인이다 보니 사실 퇴근 후나 주말엔 모든 게 귀찮고 잠자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봉사활동에서 부처님 법을 깨닫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경불회

정근·참선 등 매달 주제별 법회 교육도 세분화, 호응 좋아 '눈길'

'찬불가, 정근, 참회, 사경, 참선…. 불교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 난다.'

최근 직장불자회가 틀에 박힌 법회 형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법회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자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주제별 법회를 매달 여는 불자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단체는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 이 불자회는 올해 초부터 찬불가, 참회법, 사경 등 불교 수행법을 한 달 단위로 나눠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또 교육일정도 일주일 별로 '스님 초청 특강-실습-평가(회향)'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7월 '참회법회'의 경우, 첫 주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초청 '참선 특강', 두세 째 주는 <금강경> 봉독 및 참선 실수, 마지막 주는 참선 공부 회향법회 등을 진행해 교육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경찰청 불자회가 이처럼 매달 주제별 법회를 열고 있는 이유는 회원들의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위해서다. 이 같은 법회방식은 회원들이 지엽적인 불교공부 방식을 벗어나 불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하면 회원들의 법회 참석도 이끌어내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박재진 회장은 "불교 주제별 법회가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제 법회 프로그램을 '법회 지침서'로 묶어 신입회원의 불교입문과정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지홍 스님 초청 합동법회

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사진)와 국세청보리회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지 지홍 스님 초청, 합동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9일 갑사서 산사체험행사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곽무영·사진)는 19~20일 이틀간 공주 갑사에서 새벽예불, 108배 등의 '산사체험' 행사를 가졌다.



6대 회장에 조홍인 불자 취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사진)는 12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6대 조홍인 연합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춘천 보광사서 정기법회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21일 춘천 보광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제행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구룡사 자연학습원서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사진)는 8월 9~11일 나흘간 강원도 치악산 구룡사 자연학습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불자회 활성화 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장재관·사진)는 14일 본청 경승실에서 경찰불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불자회는요

경희의료원 불자회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불자회입니다.

아참, 우리 불자회를 처음 들어보신 불자님들도 있겠군요. 다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희의료원 불자회는 서울시내 유일한 사립대학교 병원 불자직원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7년 7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몸소 실천하고자 불자직원 21명이 모여 첫 닻을 올린 직장불자회입니다.

초창기 때는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사실 불교가 좋아 뭉쳤다지만, 신행생활이 계속 될수록 풀리지 않는 불교에 대한 의문 덩어리만 키워갔었습니다. 그 때, 우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조계종 연화사 주지 대안 스님은 우리 불자회원이 품고 있던 의문들을 조목조목 풀어주셨습니다. 또 공생선원 무각스님은 참선을 지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법회는 시작됐습니다. 매월 첫 째, 셋 째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불자회원들은 연화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회원만 100여명이 넘는 직장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직장 특성을 살린 무의촌 무료진료봉사 활동입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불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병원 내 안내센터 및 인공신장실 등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 병원 교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자원봉사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회원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자랑을 또 해야겠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환자들을 위해 대한불자가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3~4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하신 불자가수님으로,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장님, 남강수 명예회장님, 현진우 사무국장님 등을 비롯해 명국환, 금사향, 송춘희, 전원주, 현당선생님 등 많은 분들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음악회의 출연해 주신 모든 대한불자가수회 가수분들과 항상 준비해 주시는 총무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해외 성지순례(인도) 등을 계획해 회원들의 단합을 이루고 부처님의 말씀을 환자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무료순회진료 봉사 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 가을부터 독자적으로 부속병원 내과와 안과, 한방병원,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포함한 무료진료단을 구성, 경북 구미 도리사로 떠날 계획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행활동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불제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을 반성하고,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의료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운 회장

직장 특성 살려 무의촌 순회진료 6년째 무료진료단 구성 올가을 도리사서 봉사



◇경희의료원 불자들이 올봄에 고창 선운사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미년 백중맞이

무비 큰스님 법화경 7일 대산림

"자비의 방에 인욕의 갑옷을 입고 앉아 공의 이치를 밝힌다."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서는 계미년 백중 49일 영가천도 기도회향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큰스님을 모시고 7일 간 법화경 대산림을 갖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둥근 달이 제일 밝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 가지 경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부처님 스스로 '경(經) 중의 왕(王)'이라 이르신 대승경전의 요체, 법화경 산림을 백중에 즈음하여 갖는 것은 이 공덕을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고혼을 위하여 회향함으로써 진정한 천도를 장엄함이요, 이 산림 법회를 시작으로 매 철마다 경전 산림을 봉행하여 법련사가 기도와 포교, 수행의 전당이요 불자님들의 귀의처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환희 동참하시어 법화경 공덕을 입고, 이 공덕이 영가들에게 회향되어 안팎이 두루 평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1. 기 간 : 2003년 8월 6일 (수) ~ 12일 (화) 7일간
2. 시 간 : 오전 11시 ~ 12시 30분
3. 장 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4. 법 사 :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큰스님
5. 동참금 : 5만원 (교재 법련사 내 불일서점 비치)
6. 문 의 : 종무소 02)733-5322

산림 동참자에게는 무비 큰스님의 <慈室忍衣> 휘호를 나누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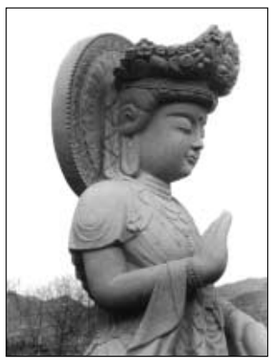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주지 보경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한역 · 팔리어 · 티베트어 대장경 등

세계 대장경 목록 한눈에

원래 경전 이름 찾고 잘못된 이름 바로잡아

고려대장경연, 12월께 '홈피' 통해 공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연구프로젝트가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 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사업이다.

자료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불교 · 티베트학과'와 '인도학과',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불교학과'와 '산스크리트어 사전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종남 박사(책임연구원)는 "문헌학적 연구가 발달한 유럽의 불교학자들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연구 프로젝트라며 기대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통합대장경 목록 정리'라 불리는 이 사업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 중인 고려대장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어느 하나의 경전 또는 논서가 다른 한역 대장경(14종)이나 팔리어 대장경(1종), 티베트어 대장경(5종)의 몇 권, 몇 쪽, 몇째 줄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 또한 경 · 율 · 론 삼장 가운데 분실 또는 산실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경전 이름을 현존하는 한역이나 티베트어 대장경과 비교해 원래의 이름을 찾아주거나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아 주고, 해제까지 작성하게 된다.

최 박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원전을 티베트어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판본마다 경전 이름이 다르게 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역대장경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의 경우 산스크리트어 경전명 표기가 'Saṅghbhedakvastu(승파사)' 혹은 'Vinayavastu(율사)'로 다르게 전한다는 것. 이럴 경우 1차 자료(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한역 · 티베트 자료→ 사본과의 대조를 통해 원래의 경전 이름을 찾아주게 된다. 특히 한역대장경의 경우 축약 · 오역 · 판각 오류 · 의역 · 첨가가 많아 역자나 번역시기가 불분명한 게 많은데 모든 문헌을 대조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역대장경 14종과 티베트어 대장경 3종을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끝냈고, 2차년도에는 티베트어 대장경의 나루판 · 쪼네판 판본과 팔리성전협회에서 정리한 팔리어 대장경, 관련 사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대조 작업이 끝난 목록은 12월경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외국학자들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책자는 영문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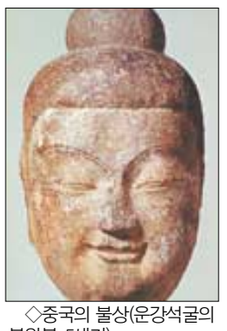
◇불교논리학인 인명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빈대학 불교 • 티베트학과 슈타인켈르너(사진 오른쪽) 주임교수로부터 이 대학에서 출판한 중관학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통합대장경팀.



◇둔황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 티베트어 • 한문 사본들.



◇인도의 불상(간다라불상, 편암, 2~3세기).



◇중국의 불상(운강석굴의 북위불, 5세기).



◇한국의 불상(경주배리석불의 신라불, 7세기).



불상(1)

불상이미지의 이상과 현실

몇 년 전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고창고성(高昌故城)을 대학원생들과 찾았다. 우리 일행이 버스에 내리자마자 그곳 어린 아이들이 두 손에 방울을 가득 들고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미란 지역의 불상과 비슷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란 부처님이다"라며 가벼운 탄성을 지었다. 그러자 일행들은 그 아이를 향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덕분에 그 아이는 손에 든 방울을 모두 파는 횡재를 누렸다. 미란 불상은 미란 사람을 닮은 것이다. 우리나라 불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눈이 쌍꺼풀인지 아닌지를 본다. 애초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상은 인도인처럼 쌍꺼풀이지만, 우리나라 불상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모두 외꺼풀이기 때문이다. 불상은 그 지역의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불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범인 32상 80종호, 즉 112가지의 원칙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다. '몸이 황금빛으로 자마금과 같다' '정수리에 육계가 있다'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등 외형적인 특징부터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되 맑고 부드럽다'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등 내면적인 특징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얼굴은 넓고 둥글며 달과 같아야 하고 위엄이 있어야 하며 구족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조성된 불상은 제각각이다. 서역불상은 서역인의 모습이고, 중국불상은 중국인의 모습이며, 일본불상은 일본인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원했던 붓다는 인도의 붓다라기보다는 한국의 붓다였던 것이다. 이처럼 불상의 이미지는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상에 반영된 현실의 모습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구려불상 · 백제불상 · 신라불상과 같이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그 얼굴이 다르고, 통일신라불상 · 고려불상 · 조선불상 등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그 모습이 다른 것이다. 도대체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이유는 각 지역의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고, 불교사상이 다르며, 각 나라에서 유입한 불교문화의 경로가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시대별로 다른 이유는 시대마다 이상형이 다르고 불교사상이 다르며 역사적 배경이 다른 데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불상의 이미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밝히는 일이 미술사가들이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원래의 불상은 인도인이지만, 각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이상형을 펼쳐나갔다. 불상을 조성하는 규범이 불경에 자세하지만, 현실과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까지 규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불상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첫눈에 불상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된다. 그것은 다양함 속에도 불상만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이미지는 일즉다(一則多)요, 다즉일(多則一)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불상모습 조성국가 · 시대에 따라 제각각

불교사상 · 외모 · 유입경로가 다르기 때문

"시대 · 사회적 환경 따라 필요하면 계율도 바뀌어야"

박정록 씨 '불교평론' 기고

승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계율의 개정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글이 발표됐다.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15호)에 실린 박정록씨의 '계율에의 불복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대적 ·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 무의미해졌거나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계율이 있다면 "개정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집단의 규율이 '제정 원칙 혹은 정신'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불복종의 권리가 현대 윤리학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살핀 박 씨는 계율에의 불복종과 계율의 개정이 불교 안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사분율>이나 <장아함경> 등의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상황에 맞추어 계율을 개정했고, 사소한 계율은 버려도 된다고 설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 말처럼 쉽지 않다. <범망경>을 보면 불교 윤리(계율)는 '진리'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진리의 화신인 부처님께서 설한 계율 역시 진리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가 없다. 계율이 개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스님들은 날마다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파계할 것이다."

"단청의 오방색은 음양사상에 기초"

"부처님 세계를 색깔로 나타낸 것"

불교학연구회 '불교문화예술' 워크숍

"영산재 때 머리에 '고깔'은 왜 쓰나요?" "고깔은 3단으로 돼 있는데 밑에서부터 '욕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며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2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 본관 4층 대강당. 능화스님(인천시 무형문화재 10-가호 보유자)의 '범패와 작법무' 강연이 끝나자 쌓여있던 질문들이 쏟아졌다. 실수(實修)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불교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여름 워크숍을 꾸려온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가 이번에 선택한 주제는 '불교문화예술의 이해와 체험'.

불교미술과 무용을 주제로 1박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 가장 풍성한(?) 얘깃거리를 남긴 건 '단청'이었다. 박미례 한국단청문양연구소장이 "사찰 단청에 쓰이는 오방색(청 · 적 · 황 · 백 · 흑)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종범 스님이 바로 "부처님 세계를 색깔로 나타낸 게 단청이라고 생각해야 절의 의미와 교리에도 맞지 불교에서 음양오행을 갖고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 논란은 들짯날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발표한 초펠 스님(부산 광성사 주지)의 "티베트 만다라에 쓰이는 오방색(청 · 적 · 황 · 백 · 녹)은 '오방여래불'을 각각의 색깔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설명에 의해 수습됐다.

해주 스님은 "불교 정신이 삶에 스며들어 유 · 무형으로 나타난 게 불교문화"라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성을 느낀 자리였다"고 말했다.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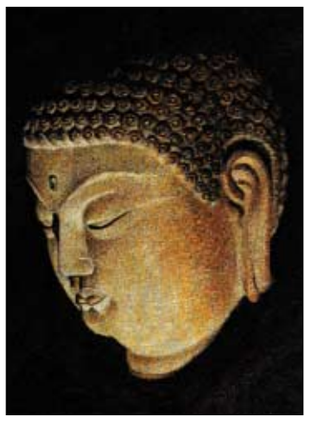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 · 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석굴암 부처님 볼두)

불교자수 특징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명주실 · 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 법당 탱화 · 불화로 적격

용 도

* 불화(탱화, 불보살도)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기업기념사진 (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뜻깊은장면사진 (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주문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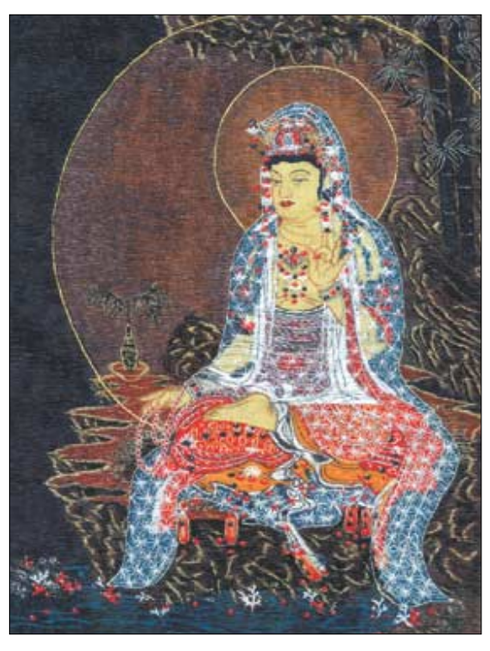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또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대형(60cm×80cm) * 중형(30cm×40cm)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 · 한암 · 효봉 · 동산 · 청담 · 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 · 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월관음)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37-0697 www.mahamall.co.kr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구직

기도스님 구함
(제주도지역)
011-558-22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054)638-2400
019-554-2402

도반을 찾습니다
강원공부를 마친
35~45세 비구니스님
천일기도 정진과 불사목적에
귀의할 제반있는 승려로서
운전경력있는분, 미륵불상,
법당불사하실분
경남창녕군 소재1,000평
011-538-2371(~8.30까지)

행 자 모 십 니 다
▷ 고졸이상, 40세미만
▷ 타종단 스님 개종 환영
▷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후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2人)
033)462-5055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40대~50대
용 덕 사
011-595-1522
051)759-90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 대
소백산 유석사
032)525-1818
011-236-0321

사찰에서 운전직원 함
▷ 1종 면허증 있슴
처사일도 무리없이 가능함
▷ 50대 여성
011-9084-1710

불교유치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세 미만
숙식가능. 일,공휴일 휴무
011-9129-5108

시달림. 49재 천도재. 각종불공 신행상담.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연락주시면 성의껏 해드립니다
011-9211-5299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6대째 내려오는 비법
위장약을 부처님 마음으로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오래된 위장병 자신있습니다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187-02-274348 농협 이양희
011-392-4984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 간 역 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눈
식약청 HSK 2106909099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상표출원 2002-5278068-80

눈이 나빠서 경전 읽기가 불편하십니까?
▶ 안구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꼽
▶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 점점 떨어짐
▶ 눈 수술전 및 수술 후 빠른 회복에
▶ 다른 질병으로 눈이 나빠진 분
▶ 눈을 많이 쓰는 직장인, 운동선수
▶ 경전을 많이 보시는 불자, 학생
▶ 유해산소(활성산소 : Free Radical)를 제거하여 노화방지
▶ 면역기능 강화, 혈액순환 촉진



전국 지사 대리점 모집
눈밝은 세상 (02) 2237 - 8004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홈페이지 참조 : 눈밝은 세상 (한글)

회주님이나 투자가 모심!
내용 : 소승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마음법의 도리를 통달한바 없이 통달한 자로서 기본 불사후 표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이나 모든 중생들을 구재할 불국정토 실현에 동참할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도안 광명.

불사표교:여력:마음법통달, 한의학전공, 외공내공무술전공, 역학달통등모든 정법으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불국토 건설 준비가 끝난 스님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회주님이나 투자가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도안 광명.
016-726-0830

육신의 영생법 저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기타 사고사등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들, 여러차례천도를 했으나 아직도 천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49일 만에 속시원히 천도해 드리며, 잘되고 않됨을 거의 확인 시켜 드립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눌림이 있는 분도 해결해 드립니다.
▷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 011-9243-0993

역학수강생 모집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등
■ 30년 전통의 청운 엄운문 선생 직접 강의
※ 교재는 이석영선생 저서 〈사주첩경〉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 / 011-9638-8229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금주 :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 강의내용
1. 기초반(3개월)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광쇠, 쇠, 북)다루는 법
도량석, 셋송, 상단예불, 불공, 제사 시식등
2.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범패)
3. 고급과정(6개월) :
천수바라, 요잡바라, 작법(나비춤), 49재, 예수재, 수륙대재(전문직 범음범패), 각어산, 화청
♥ 강사 : 도진스님, 일각스님
♥ 1년 수료후 수료증 드림
한국불교 범음회
051)554-1518. 011-846-1518
017-563-3062 원 광 사

사람 찾음



· 성명 : 오 승 욱(明鏡)
· 나이 : 24세 · 신장 : 175cm
· 특징 : 건강하고 잘생김
· 승욱 : 모친위독. 모든 문제점은 만나서 상의하자. 즉시 전화바람
※위 사람을 보신분께서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0-2000-2233

- 난 치 병 치 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두통,우울증,화병, 불면증,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현지사포교원 02)2051-5549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을 : 무료 강의 - 엄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수 : 월 10만원-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리 : 무료강의- 엄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사암침술 방학특강
▶ 대상 : 한의대 재학생, 졸업생 침술에 체계적인 정리가 안되어 고민하시는 분
▶ 기간 : 7/28 ~ 8/31(1개월간). 매주 월~수요일
▶ 모집 : 주간반 선착순 10名
▶ 강의내용 : 황제내경 맥진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맥조절법, 정골법, 즉효요법, 사암침술법, 종합임상실습
※ (前) Saint Jhon 대학 침술학 교수 직강
사암침술학회 02)355-8312 . 011-307-2975

혜초여행정보
대표 : 02) 733-3900
직통 : 02) 6263-4848
www.hyecho.com
인도여행전문사이트 : www.indowa.com
티벳여행전문사이트 : www.mytibet.com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 敎 聖 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Homepage :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담당자 : 이진영차장 / 김진석과장 / 이아름

티벳 카일라쉬(수미산)순례
17일 319만원 / 24일 339만원
성스러운 우주의 중심 聖山 카일라스와 티벳 문화, 자연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떠나는 티벳 대탐방이다.
● 1차 7/29 ~ 8/21 확정 2차 8/26 ~ 9/18
● 포함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에스트하우스 쌍룸), 중국비자,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네팔비자,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중국 구화산 / 황산
5일 89만원
절강의 보타산,산서의 오대산, 사천의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불교의 사대 명산중의 하나로 신라 김교각스님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 지장보살재(8/27) 참관 "
● 출발일 : 8/25 (단 한차례)
● 일 정 : 인천-남경-구화산-황산-상해-인천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 금단의 땅 - 티벳!
티벳 8일 195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싸-장체-시가체-라싸-성도-인천
● 출발일 : 7/24, 7/31, 8/7, 8/14, 8/21, 9/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미얀마 8일 159만원
황금불탑과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폴까지 함께하는 최적의 불교성지 순례!!! - 대만족
● 일 정 : 인천-싱가폴-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싱가폴-인천
● 출발일 : 9/30,10/21,11/4,11/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의 발상지 - 인도 / 네팔 불교 성지 순례
일정 1 - 9박 10일 225만원
● 일 정 :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녹야원)-보드가야(성각지)-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 나란다불교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열반지)-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탄생지)-카트만두-인천
● 출발일 : 11/28,12/25(성도재일),1/4,1/26,2/7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일정 2 - 12박 13일 275만원
● 일 정 : 인천-몸바이-아잔타/엘로라 석굴(불교미술의 보고)-산치-아그라-바라나시(녹야원)-보드가야(성각지)-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나란다불교대학-바이샬리- 쿠시나가르(열반지)-스라바스티- 룸비니(탄생지)-카트만두-인천
● 출발일 : 11/20,12/8,1/2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티벳 / 네팔 10일 8일 260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싸-장체-시가체-장무 / 코다리- 둘리젤-카트만두-상해-인천
● 출발일 : 7/28, 8/4, 8/11, 8/18, 9/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스리랑카 6일 119만원
불교의 보고로 불리우는 "아름다운섬" 스리랑카 성지순례
● 일 정 : 인천-콜롬보-네곰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담볼라-켄디-겔라니아-콜롬보-인천
● 출발일 : 9/19,10/1,10/17,11/7,11/2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티벳 大佛축제 단체배낭 8일 139만원
티벳 불교문화 축제의 향연이 펼쳐지는 기간에 맞추어 느껴보는 실속있는 여행.
● 출발일 : 8/9 (간덴 大佛축제), 8/24 (드레풍 大佛축제, 쉐둔절)
● 포함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 카라코람 하이웨이 13일 295만원 / 19일 395만원
● 일 정 : 인천-방콕-라호르-이슬라마바드-탁실라-페샤와르-스왓칠라스- 길기트-쿤자랍패스-탁스카르간-카슈가르-우루무치-서안-인천
● 출발일 : 1차 - 7/24 확정 / 2차 - 8/7(현재5명)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짚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1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국내선,티벳여행허가서,숙박,전용차량여행자보험,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비,현지공항세,식사비,입장료

◎ 중국실크로드 8일 145만원
종교문화의 대이동 실크로드를 따라..
● 일 정 : 인천-서안-우루무치-트루판-돈황-서안-인천
● 출발일 : 매주 금요일 6인이상 출발
● 포함 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대 만 5일 95만원
대만의 불교성지와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련까지
● 일 정 : 인천-타이페이-대중-고웅-화련-타이페이-인천
● 출발일 : 8/29,9/13,9/27, 10/11,10/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기(전세기) 취항!!!
聖地巡禮만을 위한 특별기가 최대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취항합니다.
11월 25일 / 12월 2일 (단 2차례)
▣ 불교성지 단체여행 - 189만원
● 포함사항 : 개인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공항세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 승가대학, 신도회, 신행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후원 : SINGAPORE AIRLINES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 법 당 : 22평(목조)
- 요 사 : 27평
- 부 지 : 200평
- 가 액 : 1억3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33평
- 가 액 : 3억5천

- 위 치 : 전남
- 법 당 : 18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2200평
- 가 액 : 2억5천

※문화재보유사찰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노원구 시장내 2층
- 평수 30평,
- 대중방 3개(옥탑)
- 살림집기 일체구비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02)938-356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
- 대지 : 800평
- 법당 : 8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용인
- 부지 : 2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9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요사채 25평
- 교통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토 굴 별 장 안 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6억원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130평
- 법당 : 10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15억
- 역사가 깊은 도심사찰임

- 위치 : 서울 근교(강남 40분)
- 대지 : 7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10억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안동시시내위치좋음
- 종교 용지 : 436평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칠성각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 조계종 승려에 한함
- 시내가까깝고 약수물을식수로 사용하며비구니사찰임

011)9581-60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광진구 군자동 341-25 원광사
- 평수 : 약 40평. 방 3개, 욕실 1개
- 칠성탱화, 신중탱화, 후불탱화, 산신탱화, 나한부처님 108불, 부처님 삼불 모시고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55만원

02)497-9382 / 018-205-597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드들강변 옆
- 광주, 나주, 화순 각 20분 거리 소요
- 면적 : 33평
- 원건물 41평, 부대건물 8평(조립식건물)
- 가액 : 1억원

061)334-9437
017)606-5223

사 찰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 부지 : 12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6천

※ 기타 건물 150평
※ 대출 가능함
※ 대구 · 경북지역 안내물건 다량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급)안내

- 위치:경기동두천시
- 조건:종중땅(400여평 사용. 인법당 겸 요사채 45평, 산신각 3.5평, 건물등기평수는 12 평임. 삼존불, 심야전기, 심야온수, 약수 및 수도설치)
- 가액:9,500만원

011)9770-659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 옆(포교도량 최고)
- 시유지 190평, 방 8개
- 전세 7200만원

02)305-1348
011)9983-33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홍성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1시간 20분 소요
- 대지 : 395평
- 1층건물 80평, 2층 80평, 부속건물 18평
- 건물 천장 높고, 약수물 있고, 15톤 차량 진입가
- 산업용 130K전기 들어와 있슴 주차장 약 500평 확보(포장됨)
- 가액 : 2억8천만원

041)632-0546
018)428-1199

포교원 양도안내

- 현재 보살이 운영중, 양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단독주택 1층
- 큰방(법당)1, 작은방1, 거실, 주방, 화장실
- 즉시 양도 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절충 가능)

02)433-1689
011)752-1694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150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3억2천

- 위 치 : 부산
- 대 지 : 18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
- 가 액 : 5억

- 위 치 : 사천 곤명
- 대 지 : 7,000평
- 법 당 : 28평
- 요사채 : 60평
- 가 액 : 4억5천

※주택가 도심사찰 ※ 바다가 보이는 도심사찰 ※ 여법한 교외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 시청터미널에서 5분거리, IC에서 10분거리
- 2층 건물중 2층 60평 방3개, 법당, 화장실, 거실
- 삼존불, 약사여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지장탱화, 몰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2천700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55)385-0868
019)447-7771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구) 궁전예식장 뒤 신암동
- 2층 건물 1층은 상가 21평 2층
- 임법당 18.5평. 살림가능
- 대지 41.5평, 시설 완벽
- 가액 : 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372-5977

사찰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 대지 : 48평, 실평수 80평
- 건물 황토 양옥, 법당 1동 , 요사채 1동
- 공양실, 세면실, 화장실 별도
- 방3개, 산신각 1동
- 특징 : 지하 150m암반수,큰도로에서 150m거리, 2006년 서해안고속도로 IC 개통예정 5분거리
- 가액 : 5500만원

041)841-3090
017)337-41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대로변 시장 입구, 교통편리
- 3층 건물 3층 50평
- 가액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1)848-3647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3천만원(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 안내

- 위치 : 익산 삼기면 미륵산 근처
- 대웅전 15평 조립식 ● 요사채 방2개 조립식
- 대지 : 250평 ● 가액 : 3천5백만원

063)858-8378
016)643-601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백안동(동화사 갓바위 삼거리 동네 30년된 사찰)
- 대지 : 130평 (추가구입가능한 200평 토지 접해있음)
- 목조기와 법당 및 방1칸/산신각/요사채 2채/내부욕실/외부 화장실2 기타등등
- 개금불상 및 후불/산신,용왕,지장,칠성, 신장탱화/인등단,영가단/에불종/석등 2개/호국기원시비 기타등등
- 가액 : 1억9천8백만원

011)9678-1081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 울창 계곡 / 대전에서 25분 계룡신도시에서 10분
- 차량 진입
- 이용 가치 : 사찰부지, 납골당, 종교시설, 연수원, 생수개발, 휴양시설(참나무 찜질방) 등
- 면적 : 7만 3천평
- 가액 : 평당 1만원(총 7억3천만원)

017)405-1554
야간)042)522-2588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 지목 : 임야
- 평수 ; 1만 7천평. 명당터임. 절터나 납골당, 기도원 적합 천연약수 수량풍부. 차량진입 가능. 지방도 2차선에서 1200m.. 참나무단지로 표고버섯 재배도 가능

011)487-3066

포교당 안내

- 위치 : 창원역에서 5분거리 (4층 건물의 4층)
- 평수 : 30평
- 특징 : 내부 시설 완비 (큰법당, 주방, 방, 에어컨)

011)9527-6480
055)237-1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용인시 용인IC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3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시설 특 A급)

031)322-2646
011)9227-264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內
- 대지 200여평, 건평 53평
- 법당 24평, 방 4, 주방 식당 13평, 화장실
- 가액 : 전세 2억

* 최근 신축한 단아한 목조건물 임.
단양 금수산에서 수행 정진하는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하여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02)745-6939 / 011-244-208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20평
- 산신각, 용왕각
- 약수물 풍부
- 120년된 고찰
- 가액 : 1억원, 전세 5천만원

011)9312-21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양시 안양역에서 구도로로 500m.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주방,작은방,합 20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448-5611
011-380-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10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207-9436

임야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청학동 가는 길목
- 임야 3500평, 답 700평(준농림지)
- 특징 : 번지內 차량 진입 가능 전기 有, 과정 有
- 종교단체, 공원묘지, 납골당 조성 최적지
- 가액 : 평당 2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55)882-5934
016)9307-59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105번종점(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 전, 월세 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에서 가까운 5분거리 (시내버스 2개노선 인접)
- 대지 : 138평
- 시설 : 인법당 20평 요사채, 주지실 약 40평
- 개금3존불 부처님 봉안
- 가액 : 융자 6500부담하고 1억6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11)825-1662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신축빌라 24평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가액 : 융자안고 2300만원
- 권리금 500만원(집기일체 포함) 몸만 오시면 됨

032)541-9428
011)9642-1202

가족묘지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 면적 : 3,300평(국도변 인접)
- 지목 : 임야(산소용지로 최적)
- 특징 : 팔당호반의 최고의 명당, 정남향
- 가액 : 평당 30만원(가격 협의 가능)

016)235-737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 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토굴 안내

- 위치 :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보행 15분, 한라산 전관 보임
- 대지 : 258평
- 외부 : 2중 돌집(25평) (2002년9월준공)
- 내부 : 황토방. 부엌, 욕실포함 6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6)9686-65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호계역 1분
- 법당 약 30평, 3층 건물중 2층
- 방1개, 주방, 세면실, 샤워실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00만원(절충 가능) 즉시법회 가능

011)9208-498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죽전동(빈집)
- 대지 : 76평
- 건물 : 2층 양옥, 약 70평
- 시설 : 부처님 및 탱화 일절 봉안
- 주변 땅 시세 평당 300만원감
- 가액 : 2억2천800만원 (수리비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임)
- 전세로 할경우 1억 가능함

053)633-1444
011)9855-5037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 평수 : 350평
- 용도 : 사찰부지 적지
- 특징 : 삼면이 바다가 보이며 태종대 전망 가능
- 가액 : 평당 100만원(상담후 절충)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11)854-8807

포교원(급)안내

- 면적 : 35평(공양간 별도)
- 전세 3천5백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51)504-1991

덕룡산 미륵사

삼성전 탱화불사 모연문

칠성,산신,독성,탱화불사에 동참하시어
제불 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소원 성취하시길 빕니다
동참금 1인 5만원(탱화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124

061)331-3436
대한불교 조계종 미 륵 사
주 지 합 장

목어

진흙탕



김징자 언론인

요즘 힘깨나 쓰는 분들의 '진흙탕 속' 싸움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바닷가 개펄 등에서 벌어지는 진짜 진흙목욕탕 놀이는 참으로 신나는 즐길 거리, 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진흙탕 속에 들어가 온 몸에 진흙을 바르고, 뒹굴며 미끄러지며 한바탕 법석을 부리고 나면 황량한 문명에 찌들었던 심성에 원시본능이라도 되살아나는 것일까.

코끼리 코뿔소 물소 등 덩치 큰 동물뿐만 아니라 각종 새들, 우리 주변의 참새들까지 '진흙탕 목욕'에 흥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알게 되는 동물적 본능이 어떤 것인가 짐작된다.

진흙탕 목욕은 동물의 털 속에 숨어있는 진드기 벼룩 이 등을 없애주고, 멸균작용에 피부와 털을 깨끗하게 씻어 주는데도 청정한 물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사람의 피부미용에도 더할 나위 없다는 유혹이 무더운 여름 갯벌을 달구어 가고 있다.

과학은 흙 가운데 가장 미세한 점토를 생명의 틀로 보며 점토 스스로 진화하고자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장의 생명 유무만으로 생물 무생물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일 수 있다. 황토도 갯벌도 모래사장도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 바다의 고질적인 녹조 홍조현상이나 오염된 양어장에 황토를 뿌리는 지혜도 여기서 출발한다. 서해안 갯벌 속에 몸을 뒹굴어 보며 그런 기초적인 생명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 열리면 더욱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전투구'라든가 '진흙탕 속 싸움'이란 표현을 정화(淨化)현상의 하나로 봐 주면 너무 너그러운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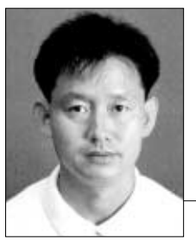
불교소재 영화 해외진출 러시

불교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의 해외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동자승의 성장과 구도과정을 담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이 제56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2003 CICAF 애니메이션 영화제 경쟁부문에 각각 진출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국의 픽사(PIXAR)가 시사회를 요청하는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장군죽비

무책임한 농림부장관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명령에 항의하며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소신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과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의로 사표를 던진것은 새만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김 장관의 사표는 18일 수리됐다.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한국불교연구원 연구부장 · 철학박사

다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의 빈부 격차는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아직도 전체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의 어린이 6명 중 1명은 아동노동 시장에 편입되어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심지어 돈 많은 노인을 상대로 하는 노예결혼이나 아동매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부모의 자식 매매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더욱 참담한 심정이 된다. 최첨단 물질문명 시대인 21세기에도 빈곤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도도 향상되고 과학도 발달했지만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교적 지혜를 떠올려 본다.

불교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자리이타행은 윤리학적 의미의 응용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실천원리라고 생각한다. 왜 '이타자리'가 아니고 '자리이타'일까?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솔직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부처님은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음 단계의 행위, 즉 '이타행'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딱딱하거나 어렵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자리'와 '이타'는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자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여법한 '자리행'은 동시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타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일체 중생을 다 함께 보듬는 보편적 차원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연기나 공, 무아설 등은 이런 자리이타적 의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불자들의 교학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를 포함한 시방의 모든 유형, 무형의 생명체를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은 불교윤리의 시작이자 그 완성이 된다.

물론 이 이익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 사람의 인격적 면모, 즉 수행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무튼 위에서 말한 불교적 의미의 '이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나름의 사상성과 함께 빈곤 문제의 해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차원의 이익 개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현학적이고 화려한 교학지식의 나열보다 일반인들의 교양과 상식에 부합하는 단순 소박한 도덕적 판단 기준, 예컨대 자리이타행이나 요익중생 속의 '이익' 개념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어렵지만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실천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순진한 발상을 또 해 보게 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반전평화불교대책위 '불교활동가 평화토론회'

'불교활동가 평화토론회'가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열렸다. 한반도의 위기진단과 해법,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노귀남 박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북한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집자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 바람직

▧ 평화를 위한 불교계 역할



노귀남(불교포럼 실행위원장)

북한은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고 그 사상의 중심에 주체사상이라는 '성군정치사상'이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강조를 통해 국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국제적으로 체제안정을 꾀하고 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시켜 자본주의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서서히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사회의 붕괴는 우리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불교계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살펴볼 때 불교계는 북한 주민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마음과 마음을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이가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지장보살의 가르침처럼 모든 불교단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통일을 서원해야 한다. 지금은 각 불교단체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때다.

열린 마음으로 문제 논의 돼야

▧ 한반도 위기진단과 해법



서보혁(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이라크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외원조를 받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대미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안정을 확보하려는 북한도 사태를 확대시킨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미 관계정상화 노력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대북 관계회복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조약'(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짐)을 '의회의 반대'라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미국의 소극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위협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 변화위한 발상전환 필요

독자투고

도혜광(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불교의 실천행을 나타내는 육바라밀 중 첫번째는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란 정신적 · 물질적 가름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자신을 챙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것 같다. 때문에 사찰을 위한 불사가 아닌 가난하고 고통스런 중생을 위한 불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내가 속한 영남불교대학 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대구의 한 시립의료원을 찾는다. 이곳 환자들의 대다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걸식자 등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이들이다. 역겨운 냄새 속에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울증에 걸린 환자 같았다. 오랫동안 깎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손 · 발톱을 정리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닿는 우리의 손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실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로 새롭게 피어났다. 아는 체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웃으며 "오늘도 수고하러 오셨군요.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네고, 목욕을 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이런 인사보다 더 뜻깊은 것은 병실의 분위기와 환자 분들의 모습이 많이 밝아졌다는 점이다.

병원 입원환자 목욕봉사와 쾌유발원기도, 가정방문 목욕봉사 등을 해온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세상에는 가난과 병마의 고통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있는 이들이 많다.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시바라밀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것은 어느 불사보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큰 것이 아니라도 좋다.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중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젠 중생위한 불사를 하자

보령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싣고 있습니다.

◎ 강원도 어느 산중 토굴에서 수행하시는 보령스님(☎ 017-556-5900)은 저희 연구소와 인연(2003년 1월 말경)을 맺고 **파동명상수행**을 하시던 삼일 째 되던 날 새벽,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파동명상수행**을 통해 우주의식(자연의식)과 합일을 이루는 순간, 스님은 홀연히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참 경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날 아침 스님은 더 이상 연구소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떠났다. 스님이 길을 떠나기 전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새벽에 **파동명상**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 의식을 옮기는 순간,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한 눈에 들어왔으며 평소 스님의 주위에 있던 가까운 신도들의 삼세의 인연법들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맑은 연못 위에 비치듯 그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였다고 했다(宿命通을 이룸). 그 이후 다시 스님과 인연의 시간이 있어 계속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의 허락을 겨우 얻어 스님의 경험담을 이 지면에 싣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파동명상수업외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숙명통..)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직지사 첫 여름시인학교

8월 2~3일, 시조백일장도

김천 직지사에서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전통 시조 가락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인들의 축제가 열린다.

나래시조문학회(회장 오민필)는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제1회 여름시인학교를 직지사 만덕전에서 갖는다. 직지사 여름시인학교는 '우리 민족시, 시조를 읽고 쓰자'라는 주제로 우리 전통시조 한 장르만을 다루는 차별화된 여름문학캠프다. 여름시인학교는 2일 권갑하, 리강룡 시인 초청 문학강좌와 함께 밤에는 시인과의 대화, 시낭송회, 시조창 공연 등 문학의 밤 행사를, 3일 '제1회 전국시조 백일장'을 통해 참가자들의 시조 창작 실력을 겨루는 장이 마련된다.

나래시조문학회 권갑하 시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조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직지사 여름시인학교는 시인이나 시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중고생 2만원, 보호자동반 초교생 1만원)이다. 문의 (02)3703-6090, 018-259-9862 박원구 기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서포터즈 모집 나서

8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에 대규모 선수단 및 응원단의 동참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경북대구본부가 북한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

평불협 경북대구본부는 8월 15일까지 약 500여명의 북한 선수단 서포터즈를 모집해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서포터즈들이 직접 만든 김밥, 떡,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불협은 또, 19일 발족되는 '통일유니버시아드 시민연대'에도 참여,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북한선수단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공동대표 장적 스님은 "북한사람들이 대구지역을 처음 찾는 만큼 이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구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서포터즈에는 대구지역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053)254-9347 박원구 기자



◇천성산 내원사는 12일 법당을 무대로 달빛음악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천성산 반드시 지켰으면…

내원사 첫 달빛음악회… 불자·수녀 등 300여명 참석

법당무대·마당이 객석… 자연사랑 마음 울려 퍼져

"어두운 길을 걸으며 물소리도 듣고 촉촉한 밤공기도 느껴보세요. 법당으로 가시면 음악회가 시작될 겁니다."

12일 저녁, 어두워지는 천성산 내원사 주차장에서 지율 스님이 손님 맞기에 분주하다. '천성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한마음이였을까? 울산, 부산, 서울 등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거나 삼삼오오 숲길을 걸어 법당으로 향했다.

이날 음악회는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회와 양산사랑 참여시민 모임 '양동이'가 마련했다. '양동이'는 지율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만들어져 문화,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25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장소가 내원사 주차장에서 대웅전으로 변경되면서 내원사 창건 13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음악회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산사를 휘감은 어둠 속에서 환히 불을 밝힌 법당은 무대가 되고 마루, 마당이 객석이 되어 음악회가 시작됐다. 객석은 내원사 주지 혜등 스님을 비롯, 천성산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종교를 초월해 참석한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님, 저녁 예불 후 참선 정진대신 박수부대로 나선 내원사 선방의 스님 등 3백 여명의 참석 대중들로 가득 찼다.

'양동이' 위원장 김명환 씨의 사회로 전영준씨의 자작시 '하늘의 뜻이려니' 낭송, 이성호씨의 노래, 재즈 가수 최대호씨의 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통도사 포교국장 정법 스님의 역동적인 수화무로 절정에 달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관통 노선이 강행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 사진전, 선서화전, 시화전 등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4박 5일간 천성산을 다시 오르며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모아 7월 말쯤,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용호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11일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로움도 씻어 드려요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

용호복지관(관장 혜종) 부설 용호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11일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을 가졌다. 복지관 앞마당에서 가진 이날 발대식에는 관장 혜종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혜종 스님은 "육신의 때를 씻어드리며 그분들의 외로움과 고통도 씻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팔공산 선본사·칠곡 송림사 주변 무분별 상행위 판쳐… 신도 큰불편

해당관청, 신고받고도 형식적 대응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와 칠곡군 송림사 인근 상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상행위로 신도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불심에 멍이 들어가고 있다.

선본사에서 갓바위로 오르는 등산로는 20분 가량이면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어 주로 관절이 좋지 않은 노 보살들이나 가족단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본사 주차장 운영권을 앞세운 한 사업자가 차량의 통행을 막고 물품을 강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부처님 오신날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항의하는 신도들에게는 욕설과 폭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갓바위를 찾는 불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을 보다 못한 선본사 신도들이 최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선본사 측은 호소문에서 "이 사업자는 차량 통행을 막아 자신의 무허가 상점에 정차시켜 물품을 구매하면 셔틀버스를 이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80대 노인들도 가파른 300여미터의 도로를 도보로 이동케 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본사는 "경산시의 조직적 유착과 비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본사 주차장 임대계약과 상가부지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경산시의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칠곡군 송림사도 근처에 위치한 테마까페의 불법운영에 의해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의 기도에 많은 지장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테마까페가 <귀곡산장>이란 이름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팔공산 등산로 일대에서 운영하는 담력코스에서는 참가자들의 비명소리와 귀신소리 등이 끊이지 않아 한밤중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공해가 되고 있다.

송림사 혜선스님은 "수 차례 칠곡군과 팔공산 공원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토록 지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 실제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국립 경주박물관 '통일신라특별전'에 전시되는 익산 왕궁리 5층석탑에서 발굴된 금제금강경판(국보 제123호/ 국립전주박물관소장).

전국 통일신라시대 유물 한곳에

대다라니경 등 5백여점 경주 특별전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통일신라 특별전'을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통일신라 유물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126호), 금동보살입상(국보 184호), 송림사오층전탑유물(보물 189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과 입상(국보 79, 80호) 등 모두 500여점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근간이 된 찬란했던 신라불교문화의 역사를 대변해 주게된다.

또 북한산진흥왕순수비(국보 제3호), 금제금강경판(국보 제123호), 영태2년명납석제호(국보 233호), 송림사 오층전탑 금동제사리기(보물 189호) 등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대학교 및 각 지역 박물관 소장 유물도 전시된다. 박원구 기자

죽림사는 신라시대 사찰

중창 상량문서 사실 확인

포항 죽림사(주지 종문)가 신라시대 건립된 사찰로 밝혀졌다.

죽림사는 1809년(조선 순조 9년) 사찰을 중창하면서 올린 상량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자로 알려진 포항 모 대학 교수로부터 사본을 전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상량문에는 포항 죽림사가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중창불사 경위, 당시 주지스님의 법명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박원구 기자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한다

8월13~10월 23일, 매주 세코스 나눠

천년 전 신라 설화의 현장을 따라 이야기를 통해 신라인의 삶과 정신세계에 담겨진 얼과 슬기를 체험하며 경주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위덕대 신라학연구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가지 행사의 일환으로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을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개최한다.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은 삼국유사에 소개된 이야기를 통해 신라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은 '신라의 건국신화'를 알아보는 1코스, '신라 여성의 초월적 사랑'이라는 주제의 2코스, '신라사찰 연기설화'의 현장을 찾는 3코스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054)760-1360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한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무명장수 배게와 안마온열보료도 최고의 제품으로 권해드립니다.

대리점모집중

☎02) 538-7161 / 3210-0880
http// : www.hyangga.com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편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꼭 소장하여 활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중국 티베트의 신산(神山)
수미산(mt.Kailash:6,714m)
네팔 룸비니 순례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 : 중국 티베트(수미산,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롱부크,옛 구개왕국), 네팔 포카라,룸비니.
2. 일 시 : 2003년 8월25일 부터 ~ 9월18일 까지
3. 대상자 : 사부대중 (신체건강하며 순례에 이상이 없는자)
4. 동행자 : 약간명
5. 준비물 : 개인장비(세부적인것은 모임시 발표)
6. 문의처 : (051)441-2811, 442-1814
7. 주 관 : 부산등산연구소,부산등산교실, 한국불교산악회,(주)제일항공여행사
8. 후 원 : 서장(티베트)중국여행사,네팔아시안트레킹

몽골 최초 한국사찰 '고려사' 개원

대한불교진흥원, 11일 개원법회

각종법회·한글교실 등 운영 계획



◇11일 개원한 몽골 울란 바토르 고려사 법당 내부모습.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최초의 한국 사찰이 건립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1일 세텐담마스님(몽골사원연합회장) 금강선원장 활안스님을 비롯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사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최명준 진흥원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11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계가 집중적으로 몽골선교에 나서면서 몽골불교대표인 세텐담마 스님이 진흥원을 여러 차례 방문, 한국 법당건립을 요청해왔다"며 "몽골정부로부터 토지사용 임대 및 매입허가를 받는 대로 한국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울란바트르시 세텐담마 스님의 주석사찰에 건립된 40평 규모의 고려사는 한국불교 몽골진출 전진기지로 사용된다.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형태로 건립된 이 법당에서는 월 1회 활안스님 초청 현지 교민법회와 몽골인 대상 한국어 및 컴퓨터 강좌 등이 개최된다.

이어 진흥원은 2005년까지 울란바토르시에 한국불교문화원을 건립할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원은 한국문화체험관을 만들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불교를 비롯 한국어, 다도, 컴퓨터 등의 무료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가칭)한.몽 불교교류협회를 설립하여 매년 학술대회 개최, 몽골 현지 순례 법회,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류협회 산하에는 장학회가 설립돼 몽골스님들을 한국대학에 유학시키고, 몽골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된다.

2002년부터 몽골현지조사에 참석한 진흥원 송석구 이사는 "몽골인구의 약 70%가 불자라고 하지만 기도와 법회등의 의식이 없어 개신교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서포교를 위해 최근 <십선업> 1만부를 몽골어로 제작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평화실천연대 북한어린이 돕기 첫 결실

5백만원 상당 분유

30일 인천항서 선적



◇평화실천광주전남연대는 매주 일요일 무등산 입구에서 모금운동을 펼친다.

지난 4월 창립된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평화실천연대)가 첫 사업으로 실시해 온 북한 어린이돕기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에서 발송하는 북한지원물품에 평화실천연대에서 모금활동을 통해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분유 1차분이 실리게 된 것. 이에 따라 평화실천연대와 평불협은 30일 인천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에 보낼 북한동포돕기 지원물품 선적식을 갖기로 했다.

평화실천연대는 지난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광주시내와 무등산 진입로 일대에서 모금활동을 펼쳐 6백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평화실천연대 80여 회원들은 하루 3시간의 고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 북한동포 돕기와 포교에 매진하기로 했다.

평화실천연대 이해모 사무국장은 "얼마 안되는 지원품이지만, 창립이후 불교가 척박한 광주지역에서 얻은 첫 결실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한 평화정신을 심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기자

홍천 물걸리사지 금당터 확인



강원도 홍천 물걸리사지(강원도기념물 47호)에서 금당터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응천)은 지난 5월부터 발굴조사를 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삼층석탑(보물 545호)에서 북쪽으로 약 20m 지점에서 정면 3칸(13.35m), 측면 3칸(9.25m) 규모의 금당터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남향의 금당터에서는 세 곳의 불상 적심(주춧돌을 받치는 잡석)이 발견돼 현재 보호각 내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보물 542호)과 석조여래좌상(보물 541호), 대좌(보물 543호)의 원 위치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김상태 학예연구사는 "우협시 적심 주변에서 철편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금당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배치하고 좌협시로 석가여래, 우협시로는 철불(노사나불 혹은 아미타불)을 배치한 '대적광전(혹은 대광명전, 비로전, 화엄전이라고도 함)'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나말여초 사찰에서 철불과 석불을 함께 봉안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비로자나불의 대좌 하대 괴임석(사진)이 발견돼 완전한 불상 복원이 가능하게 됐다. 권형진 기자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 내용은 '발원문'

지난 2000년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목간의 내용이 '발원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김영욱(국어학) 교수는 16일 "현재 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인 12.7㎝ 길이의 목간에 새겨져 있는 '숙세결업동생일처시비상문상배백래'라는 글은 부부가 함께 부처님 앞에서, 죽은 뒤 같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발원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글을 '전생(前生)에서 맺은 인연으로/이 세상에 함께 났으니/시비 가릴 양이면 서로에게 물어서/공경하고 절한 후에 사뢰러 오십시오'라고 해석한 김 교수는 "사언사구 형식에 백제인이 이두로 기록한 최고의 시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하는 백제 시가는 백제 멸망 후 800여 년 뒤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된 '정읍사'가 유일하다. 목간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 묵글씨나 칼로 글자를 새겨넣은 나뭇조각으로 지금까지는 물품 꼬리표나 주민등록증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학설이 유력했다.

권형진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반듯한 도량 세울때까지…

서울 자양포교원 한경희신도회 운영위원장

'다가가는 포교' 실천일꾼

식당 일하며 불사에도 동참



◇한경희 신도회운영위원장이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자양동 주택가 복판에 위치한 상가에는 신도들이 일군 포교당 자양포교원(주지 금당)이 있다.

상가 건물의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자양포교원에는 매일 기도정진하는 불자들이 많다. 타종교가 득세하다시피하여 금당스님이 포교원 설립을 추진하자 우려하는 불자도 있었을 정도였다. 우려도 잠시. 자양포교원이 99년 문을 열고 포교를 시작한 이후 불자들은 꾸준히 늘었다. 한경희 신도회 운영위원장(57, 법명 금강심)도 자양포교원 개원 후에야 절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신출내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양포교원 불자 도반들을 챙기는 포교일꾼이 되어 있다.

"예전에는 초파일에만 절에 갔었는데, 주지 금당스님의 포교 원력에 감동 받아 절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드러내지 않는 믿음을 미덕으로 여겼던 관념이 깨진거지요. 금당스님 덕분에 비로소 불자답게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환희심이 납니다."

한 운영위원장은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일을 마친 뒤에는 집에 돌아가 부처님 전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야 잠자리에 든다. 그래도 어렸을 때 보았던 친정 부모님의 깊은 불심에는 따라가지 못해 늘 부끄럽다고 말한다.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근처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에서 '목련'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운영위원장은 "일을 하다보면 손님 가운데 교회에 다니라고 선교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교도 더 이상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절에 나가고 주지스님을 도와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한 운영위원장은, 불자가 아니지만 자양포교원에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도움을 주는 남편에게 큰 고맙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활발한 활동의 이면에 남편의 드러나지 않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운영위원장에게 요즘 욕심이 생겼다. 자양동에 누구나 보고 '여기에 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불사가 그 것이다. 이 불사를 위해 한경희 운영위원장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털어 놓는다.

박봉영기자



추천의 말

금당스님 자양포교원 주지

99년 5월 자양포교원을 개원하던 날, 주지인 저보다 좋아했던 신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자양동에는 교회는 즐비한데 사찰이 없다고 안타까워 하던 한경희 신도회 운영위원장이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포교원에 힘을 실어주는 한 보살에게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척박한 여건에 희망 안겨줘

도회 운영위원장이 그 신도였지요. 게다가 돈독한 신심으로 법회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신도회를 꾸려가는 모습에서 자양동의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포교원에 힘을 실어주는 한 보살에게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대강백 무비 스님이
10년만에 다시 펼치는 금강경 강의!



무비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과연 금강경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처임을 전편에 걸쳐
끊임없이 자각시켜 주는 무비 스님의 감동적인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은 삶을 통찰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시대와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아 온 경전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정성들여 다듬고 다듬은 우리말 번역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금강경의 의미와 금강경이 던져주는 지혜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강의한 내용을 풀어쓴 것으로, 마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생동감과 일체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무비 스님/신국판/312쪽/9,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www.buddhabook.co.kr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도봉산에 출렁이는 숲의 바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4) 도봉산 망월사



◇망월사 (영산전과 고사목), 여름싸리꽃(왼쪽 원), 큰까치수영(오른쪽 원).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한산의 새 주인이 된 신라는 그 후 양국의 협공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승승장구하던 국력이 잠시 주춤하던 선덕여왕 무렵(638년) 고구려 영류왕의 침공을 간신히 막아낸 신라는 이듬해, 부처님의 원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도봉산 중턱에다 호국사찰을 세웠다. 절 이름도 나라(월성)의 안녕을 기원해 망월사(望月寺)라고 했다.

그리고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천축사(673년)와 회룡사(681년)와 승가사(756년)가 창건되었으니 망월사는 한산의 으뜸 절로 부족함이 없다.



망월사 전철역에서 내려 마을을 지나면 중랑천 상류인 원도봉 계곡이 내려온다. 그 계곡 위로 아스라이 높은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바로 그 문제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원도봉 구간이다.

아니나 다를까. 홍법사 산문 앞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된 공고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명의로 서슬 퍼렇게 박혀있다. 공고문(2002 가01280호) 내용인즉, 조계종 회룡사가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망월사 등산로 주변에는 아름드리 아카시아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50년 수령을 넘어선 노거수들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손에 의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지만, 우리 산림에 우려할 만큼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산사태 예방과 치료 기능도 뛰어나고,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제1의 밀원수다.

산에 들어와 물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랴. 도봉산 계곡이 대개 그렇듯이 원도봉 계곡도 1년의 절반 이상은 마른 내[乾川]다.

이 계곡의 건천화는 지질적인 요인이 강하다. 입자가 굵은 왕모래와 마사토는 입자가 작은 흙에 비해 물을 담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하수 체계의 파괴가 의심된다. 함부로 지하수를 파거나 위쪽 물을 파이프로 끌어당겨 버리면 지하수 체계가 망가져서 결국은 마른 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정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까지 뚫고 있으니…….

마사토와 지하수 파괴로 계곡 절반이 건천
물길 끊어진 소(沼)는 생명의 보금자리



◇망월사 산딸나무.

군데군데 물길이 끊어진 소(沼)는 생명의 아지트다. 청개구리 · 산개구리 · 도롱뇽 등을 비롯해 날도래 · 강도래 · 하루살이 · 가재 · 옆새우 · 뱀잠자리 유충 · 물둥구리 등의 생명체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살아간다. 아침저녁으로는 새들이 돌아와 목욕을 하고, 다람쥐와 청솔모 같은 네발 가진 동물들이 내려와 목을 축인다.

특히 버들치는 1급수 지표종으로, 버들치의 생사여부로 원도봉 계곡의 환경이 진단된다. 버들치가 사라지는 날이면 이 계곡의 생명사슬도 끝장이다.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까지 철없는 아이들과 함께 소에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화계사 계곡처럼 아주 자취를 감추게 될 지도 모른다.

불이암은 망월사의 산내토굴이다. 뒷마당에는 잘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고, 그 나무 아래 까치수염이 군락을 이루며 피었다. 예전에는 공양주보살들이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서 스님들께 올렸다.

도봉의 숲이 이나마 건강하고 다양한 것은 용성 큰스님의 크나큰 자애 덕분이다. 큰 스님께서 망월사에서 만일참선결사(萬日參禪結社)를 시작한 것이 1925년의 일. 결사 후 대중들이 점차 늘어나자 식량 걱정에 앞서 땔감이 걱정이었다. 산중임해(山中林海)에 살면서도 함부로 나무를 베어다 쓸 수 없다 하시고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통도사 내원암으로 내려가신 것이다. 지금 원도봉을 뒤덮고 있는 젊은 숲은 당시 큰스님의 은덕을 입고 살아남은 나무들의 후손들이다.

용성스님의 '나무사랑' 지금의 숲 보전계기
정숙·쓰레기 가져가기로 청정도량 유지

망월사 천중선원은 만공, 한암, 성월 등등의 기라성 같은 선각자들이 수행했던 절이다. 선원 뒤로 건장한 노송들이 산수화처럼 서 있다.

낙가보전 옆 금강문을 지나면 포대능선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 있다. 뒤돌아보니 금강문에 '아니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참 좋은 글귀다. 청정한 수행사찰이니 정숙을 지켜달라는 호소이기도 하고, 청정한 산중사찰이니 쓰레기 등을 남기지 말고 아니 오신 듯 다녀가라는 나직한 청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절도 화답해야할 것이다. 물량주의가 아니라 무소유에 철저한 불사,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해치지 않는 무봉(無縫)의 불사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절 주변의 망월사 노송들을 보면 춘성선사의 일화가 떠오른다. 스님이 한국전쟁 직후 불사를 할 때 부득이 주위의 소나무를 베어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스님은 경찰에게 걸쭉한 육두문자와 선문답으로 설득시켜 돌려보냈다. 지금 망월사 주변의 노송들은 그 때 용케 살아남은 소나무들이다.

도봉산은 장엄하고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노령기에 접어든 산이다. 도봉산의 화강암은 알갱이가 굵고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쉽게 부스러진다. 그래서 곳곳에 마사토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마사토는 수분이나 토양분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고, 게다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의 생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 낙엽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마사토를 기름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토양이 척박한 곳일수록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곳곳에서 만나는 물오리나무도 그런 사방(砂防)을 위해 심은 것이다.

도봉의 정상은 자운봉이지만, 도봉산의 명색은 만장봉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일찍이 만장봉을 석가봉, 자운봉을 지장봉, 신선대를 비로봉이라고 했다. 천축사가 만장봉 아래 절이다. 북서쪽 능선을 타면 자운봉-만장봉을 거쳐서 북한산에 이르고, 남동쪽으로 능선을 타면 북한산 관통터널로 목숨 줄이 명각에 달린 사패산에 이른다.

■ 교통: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신흥대학 앞을 지나서 올라간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희담석 稀潭石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효도선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연카키, 살구색

〈희담석 찜질팩〉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2,3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자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과 희담석 찜질팩은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그들도 우리 형제… '조국과 불교' 심어주죠



덴마크 입양아들의 대모 이미림씨



◇입양아들을 또다른 한인 2세라 생각하는 이미림 씨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모 역할을 10년째 계속 하고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는 한국을 미워하고 자신을 버린 친부모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어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하나만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모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지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덴마크 문화의 날'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천태종 덴마크 신도회 고태정 회장(56 · 덴마크 입양인 한글학교 교장)과 이미림씨(47) 부부는 14년간 덴마크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입양아들의 대부 역할을 해왔다. 23년전 덴마크 태권도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으면서 수도 코펜하겐에 정착한 고씨 부부가 입양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는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었다.

흐리고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많은 북유럽 특유의 기후와 날씨에 잘 적응하지 못한 부인 이미림씨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자식을 하나 더 갖고 싶어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병을

1만여 입양아 위해 한글학교 설립
거쳐간 인원 수백… 사연 구구 절절

앓아 대수술을 받게돼 입양 허락이 떨어지질 않았다.

"입양 문화가 보편화 돼 있는 덴마크지만 의외로 입양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부모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 결혼한 지 5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입양아와 양부모의 나이차가 40년 이상은 나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할 수 없게 된 이씨가 결심하게 된 게 바로 1만여 입양아들을 위한 한글학교의 설립이었다. 작은 규모지만 1990년 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코펜하겐 로젠버그 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고 학생들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남편 고태정 회장, 아들 고우진(22)군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다. 한글학교는 단지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들만이 안고 있는 아픔을 나누는 장소였다. 때론 선생님으로, 때론 부모처럼 이들을 맞았다. 학교를 거쳐간 인원이 수백명에 달하다보니 사연또한 구구절절하다.

코펜하겐 대학 심리학과에 다니는 이덕림(35)씨는 13세때 양부모들이 이혼해 두 번씩이나 버림받은 경우다. 그 충격을 안고 살아가다가 18세때 디스코텍에서 만난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 한 후 미혼모가 돼 방황하다 한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입양아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모나 킴 라우(34)는 태권도를 잘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슬픈 나날을 보내다 이미림씨를 만났다. 이 학교에는 이처럼 입양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 모니카 에어스타(37)와 같이 양부모들도 와서 한글을 배운다. 얼마전 입양한 '미라'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남편 고태정(오른쪽)씨는 이미림 씨의 든든한 후원자다.



◇입양아들과 함께 단양 구인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는 이미림 씨.

이씨는 한글학교외에도 4년전에는 이곳에 '한국의 집'이란 한국음식점도 냈다. 인테리어도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 인사동에서 구입한 한국 냄새 물씬 나는 소품을 사용했다. 이곳에서 입양아들에게 만큼은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음식을 준다. 종업원들도 입양아들만 고용한다. 코펜하겐대를 졸업한 종업원 메대 킹 닐슨(28)은 초봉이 4백만원을 넘는 좋은 직장도 거절하며 단지 이곳이 좋아서 입양아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념일이나 생일파티를 이곳에서 하는 입양아들이 많다. 단순한 식당을 넘어 어느새 한국 입양아들의 본부가 됐다. 이씨는 엄마처럼 퍼주고 나눠주며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입양아들이 혼자 식사할 때면 엄마같이 밥동무(?)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환하게 웃는다. 그녀가 이렇듯 엄마 역할을 주저하지 않는데에는 입양아들이 막상 부모를 찾아도 문화적인 차이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던 세월의 무게 때문에 애틋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해 늘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회장 부부는 또 덴마크의 유일한 한국 사찰인 천태종 포교당도 운영한다. 지난해 4월부터 5월초까지 2002 한일월드컵을 홍보하는 바라춤 공연을 위해 덴마크를 방문한 월장 스님(금강불교대 총무처장)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의 인연으로 올해 초 문을 열었다. 고회장의 태권도장 한쪽 공간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평일은 입양아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참선교육과 교리지도를 하고 있다. 30여명의 신도가 매월 1회 법회를 봉행하고 있기도 하다.

4년전 시작한 음식점, 아이들 본부
포교당 운영, 현지인 참선 교육지도

이씨는 이곳에서 매일 입양아들이 정신적 공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기도한다. 양부모들의 보호, 풍족한 경제사정 등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입양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아픔을 한웅큼씩 간직하고 산다. 그래서 이씨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씨는 이들을 또다른 한인 2세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한인 2세들과 동고동락하며 한가족처럼 부모형제가 돼 함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씨가 살아가는 현재요, 앞으로의 희망이다. 올해 처음 개최한 '덴마크인의 날'을 계기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입양아와 양부모들을 데리고 방한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생각이다.

"내년 8월에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입양인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고회장 부부는 함께 고국을 찾았던 30여명의 입양아들과 12일 단양 구인사 참배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19일 덴마크로 돌아갔다.

글=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제 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구산선문중 하나인 사자산문의 종찰인 사자산 법흥사와 천혜의 원시림속에 자리잡은 백덕산 관음사 수련원에서 제 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참배, 마음공부, 참선, 부처님이야기 등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관음사 계곡에서는 신나는 물놀이와 화려하고 멋있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합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면서 백덕산 광산을 보고, 다양한 식물채취, 다람쥐, 새, 사슴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불교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정 : 2003년 7월 29일(화) ~ 7월 31일(목)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적멸보궁), 백덕산 관음사 일대
◎ 대 상 : 초등학교 1 ~ 6학년(선착순 150명)
◎ 참 가 비 : 6만원(교통비 및 여행자보험료 포함)
◎ 준 비 물 : 점심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 02)722 – 4162~3
◎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출 발 : 7월 29일 오전 9시 조계사앞 ※ 도 착 : 7월 31일 오후 6시 조계사앞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 협 찬 : (재)보덕학회, 신수회 ■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 제 6회 부다피아 일정표 ♠

7월 29일 화요일		7월 30일 수요일		7월 31일 목요일	
시 간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05:30-06:00	조계사 9시 집합	05:30-06:00	기상, 세면	05:30-06:00	기상, 세면
06:00-07:00		06:00-07:00	예불 및 체조	06:00-07:00	예불 및 체조
07:00-08:00		07:00-08:00	아침공양	07:00-08:00	아침공양
08:00-09:00		08:00-09:30	참 선	08:00-09:00	부처님 이야기, 참선
09:00-10:00		09:30-10:00	사자선 법흥사. 적멸보궁 참배	09:00-10:00	신나는 미니올림픽
10:00-11:00	출발~도착	10:00-11:00		10:00-11:00	
11:00-12:00		11:00-12:00		11:00-12:00	
12:00-13:00		12:00-13:00		12:00-13:00	점심 공양
13:00-14:30		13:00-14:00	점심 공양	13:00-14:00	회향식 및 시상식
14:30-15:30	입 재 식	14:00-14:30	휴 식	14:00-15:00	집으로…
15:30-16:00	오리엔테이션	14:30-16:00	얼음계곡에서 물놀이를…	15:00-16:00	
16:00-16:40	다함께 노래를…	16:00-16:30		16:00-17:00	
16:40-17:30	조별시간	16:30-17:30	조별시간	16:40-18:00	
17:30-18:30	저녁공양	17:30-18:30	저녁공양		
18:30-19:00	저녁예불	18:30-19:00	저녁예불		
19:00-20:00	부처님 마음이야기	19:00-20:00	캠프화이어		
20:00-21:30	환영의 밤	20:00-21:00			
21:30-22:30	극기훈련	21:00-22:00			
22:30-23:00	취 침	22:00-23:00	취 침		
23:00-24:00	교사회의	23:00-24:00	교사회의		

릴레이 수행일기 〈上〉



한복룡

충남대 법대교수

禪, 법과 인간에 대한 숙제로 다가와

세무대 재직시 지도법사 맡아 인연 키워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바를 가지고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나 스스로도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편견없이 공정하게 사물을 볼 때에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조인은 법조문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실제 헌법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무지와 편견으로 인하여 사물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함으로서, 우리 인류 사회는 항상 진리와 정의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진정한 자유의 향유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에는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다. 종교적 편견, 성적(性的) 편견, 인종적 편견, 이념적 편견 등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으로 얼룩져 온 것이 사실이다.

2001년 11월 계룡산 학림사 오등시민선원의 개원과 동시에 선원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선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정의의 여신의 눈가림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소득이자 법과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선(禪)은 사물의 진실에 접근하는 이러한 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류의 정신유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정(禪定)을 통해 탐진치 삼독(三毒)의 번뇌로 오염된 마음을 호수와 같이 정화시키고 편견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나아가 자신이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존재임을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진정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참선 수행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

오등시민선원을 시민의 선원으로 제공하신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의 큰뜻은 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통해 가정과 인류의 평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지만, 법학도인 나에게 참선은 법과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더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비롯한 오감에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모든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습(習)이며 업(業)이 되고 편견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깨우쳐주고 있듯이 그것은 전도몽상이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세계는 육도 윤회계의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진실과 거리가 있는 삶 속에서는 결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평화, 자유자재, 진정한 정의와는 거리를 두고 맴돌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말마다 하는 참선은 진실을 깨닫기 위해 오감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하나의 연습이 되었다.

물론 일상화된 참선 수행이 하루아침에 습이 된 것은 아니었다. 25세 때 삼사관학교 교관을 맡으며 시작된 불교 인연은 세무대학 재직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으며 본격화 되었다. (계속)

긴급점검

수행법 난립시대 조사선의 나아갈 길

글 싣는 순서

1. 수행법 백가쟁명 시대
2. 간화선 Vs. 위빠사나
3. 되살아나는 조사선

간화선 넘어 조사선 중흥 '주목'



◇스님이나 속인, 빈부, 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고승의 법문을 듣고 문답을 나눌 수 있는 무차대회(無遮大會)는 조사선 중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진은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제2차 무차선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한 수좌가 법거량하는 장면.

해마다 조계종 90여 선방의 2천여 수좌를 비롯 천태종, 태고종 소속 스님 등 3천여 스님들이 '화두(話頭)'를 들고 안거(安居) 수행에 들어간다. 이에 뒤질세라 3천여 재가자들도 전국 30여 시민선원에서 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 평상시 전국 50여 시민선방에서는 직장인, 주부 등 재가 선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는 미얀마 등 수행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남방 불교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행 열기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조사인 경허 선사 이후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한국 선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 간화선 일변도 벗어나 조사선으로

조계종은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재가 수행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방에서 조차 제3수행법을 공공연히 묵인하는가하면, 간화선을 버리고 남방수행법을 찾는 스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선의 한 방편으로 확립된 간화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가능하게 하는 선문답과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勘辨)'과 '인가(印可)' 등 전통 수행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복원되는 '문답-점검' 시스템

조사선의 전통에 따라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화계사 선우회, 전등사, 극락정사, 선도회가 대표적. 이들 단체들은 사제간의 일대일 '공안 인터뷰'(화계사)나 독대 점검(전등사), '입실(入室) 지도'(선도회), 법거량(극락정사)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다수의 제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수시로 수행을 점검하는 단체들도 늘고 있다. 안국선원, 원명선원, 현정선원, 무심선원, 명상아카데미 등은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선사들의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을 공부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현재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등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 수행체계 확립, 대중화 절실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제반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조사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등을 바르게 파악,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수행자들이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실천 수행 방법의 문제, 불법 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수행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선원장회의 회장 혜국스님(남국선원장)은 "간화선을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발심과 정진을 통해 스스로 증득해가는 수행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탁월한 생활 수행법인 조사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최상승 수행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시대에 맞는, 오늘의 언어로 체계화시킨 '수행체계'를 만들기만 한다면, 위빠사나와 이른바 '제3 수행법'에 몰리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정통 조사선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선 이끄는 2세대 선지식들


◇고우스님


◇적명스님


◇고불스님


◇정광스님


◇대원스님


◇혜국스님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불교는 선방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수좌들로 그 선맥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광복 이후 조계종의 선풍을 드높인 것은 성철, 청담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 세대였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살아 있는 마지막 세대다. 동시대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월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황대선원 조실 성수, 화계사 조실 숭산, 용화사 법보선원장 송담, 선학원 이사장 정일,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禪師)로 꼽힌다.

'봉암사 결사' 1세대 선풍 진작

고우·적명·정광스님등 수좌계 사표

그 뒤를 이어 각화사 선원장 고우, 은해사 기기암의 적명, 용화사 선원장 성우,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부석사 선원장 근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제주도 남국선원장 혜국,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원명선원 회주 대효, 극락암 선원장 명정, 송광사의 현묵스님 등이 수좌계의 사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상원사 선원장 의정, 범어사 선원장 인각, 동화사 선원장 지환, 해인사 유나 원융, 통도사 선원장 천진, 월명암 선원장 일오,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도 많은 수좌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진 스님들이다. '선지식 부재'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무색하게 하는 차세대 선지식들은 화두 일념으로 확철대오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한편 말없이 후학들의 수행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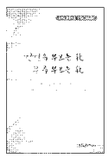
후세의 시간

-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는!
-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버리는 행운 만세력!
-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월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현곡 정수홍 지음
4×6배판 / 1162쪽
정가 35,000원

부록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아키 감수, 미야나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유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써, 아유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십세기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산트 레드 지음 · 신국판 · 206쪽 · 값 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柱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바라밀현장

보리방송모니터회의 모니터 봉사자들

설립 13년째,
'주일 쉽니다' 등
문제방송 중단 받아내기도
타종교 비해 '걸음마' 수준
인재양성 위해 교육실시



◇16일 서울 가회동 보리방송모니터회 사무실에서 열린 모니터링 회의에서 김재일 회장(앞줄 왼쪽)과 김기량 부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모니터 봉사자들이 TV 프로그램을 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바른 방송 선도하는 '미디어 사천왕'

라디오, 공중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현대인에게 있어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루 종일 뉴스와 볼거리, 들을거리를 쏟아내는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만, 이들 방송이 전하는 정보가 항상 '진실'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설립된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불교계의 유일한 모니터링 단체로,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방송의 불교 왜곡을 감시하고 시청자교육을 통해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16일 서울 가회동 사무실에서 열린 모니터링 회의 현장을 찾았다.

"지난 주 방송된 드라마 '보디가드'는 요즘 드라마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폭력'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억지웃음을 조장하거나 욕설이 등장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모니터링 회의는 한 주간 방영된 TV프로그램 중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봄 실시한 모니터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6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방선희씨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교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폄하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출연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신경 써서 듣는다"고 말한다.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는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지난 1993년 MBC-TV '행복에로의 초대'라는 선교방송을 중단시켰고, 95년에는 '주일은 쉽니다'라는 종교 용어가 등장하는 신원 에벤에셀 의류광고의 광고 중단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모니터요원을 육성해 내고 있는 타종교와 비교하면 불교계 모니터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때문에 보리방송모니터회는 현재 봉사자들의 회의 결과를 모은 방송모니터 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니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불교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리방송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재일 회장은 "교계 단체나 종립학교 등에서 모니터 교육을 요청하면 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며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인터넷 사이트(http://bori.bulgukto.or.kr)와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전화로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다. (02)712-581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탁마없으면 죽은 공부'

'영원한 대자유인' 저자와 공개 법거량 제안한 청봉스님

"틀린 수행법에 오도될까 우려"
선객 지도, 비판서 발간계획

"사라져 가는 선지식의 점검과 법거량 문화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기회 지도법사인 강정진 거사의 <영원한 대자유인>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다음카페(http://cafe.daum.net/buddhajukbi)에 '장군죽비'란 별칭으로 올린 청봉스님(63, 극락정사 주석)은 강정진 거사와의 공개 법거량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봉스님은 "법(法)은 이론이나 말에 있지 않으나 '영원한 대자유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강 거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수행자들이 오도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청봉 스님은 "현재 우리 승가에서 '법을 거량한다, 탁마를 한다'는 풍토가 거의 살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실상의 진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즉시 어긋난다'는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 법거량조차 하면 안되는 것으로 치부해서 입들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탁마없는 공부는 죽은 공부'임을 강조하는 청봉스님은 이번 <영원한 대자유인> 비판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 달라고 주문했다. "탁마가 얼마나 공부인들에게 요긴한 것인가는 조사들의 어록을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록들이 이 법거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문답 가운데 공부가 익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것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이번 <영원한 대자유인> 논쟁을 계기로 법거량 문화가 살아나길 바란다는 청봉스님은 다음카페와 극락정사를 찾아오는 선객들을 지도하는 한편 조만간 <영원한 대자유인> 비판서를 모 출판사에서 발간할 계획이다. 청봉스님은 동아병원 원장, 동아의료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덕사 조실 혜암 스님의 유발상좌로 공부하다가 뒤늦게 출가(85년), 경허-만공-혜암스님으로 이어져 오는 법을 이었다고 한다. 김재경 기자



◇'법거량 문화' 복원이 절실하다는 청봉스님.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토니 팩커 (下)

매순간 열린마음, 정진 강조

<현존의 경이로움(The Wonder of Presence)>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토니 팩커는 영적인 성장에 관한 의문들에 대한 깊은 관점을 제시한다. 팩커의 무종파주의적인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팩커는 "우리 각자에 대한 거대한 도전은 현존의 경이로움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창조적인 원동력입니다."고 말한다. 팩커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깨어있음을 통해 공포, 성냄,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에 따르면 이해와 사랑, 지혜의 출현과 만발은 어떠한 전통이나 그 역사, 또는 영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혜의 획득은 사람들이 스스로 공포와 쾌락,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경이로움 속에서 듣고 볼 때에만 가능하다. 동시에 '나라는 생각'에 대한 관심이 고요히 정지되었을 때, 비로소 천지(天地)가 개벽하듯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인생의 신비와 정수는 열린 마음과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미국 샘물센터(The Springwater Center)의 창시자인 토니 팩커는 원래 선종의 의식과 공안(公案)에 능통한 선(zen) 수행자였다. 그러나 '현대의 붓다'로 불리우는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접한 뒤에는 깨달음에는 어떤 수행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팩커는 지금 매순간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즉각적인 알아차림과 정진을 강조한다. 그녀의 '진리는 어떠한 수행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가르침은 '붓다달마(Buddhadharma)'와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질문: "불교의 많은 수행법 가운데, 당신은 정말 아무런 방법도 주장하지 않는가?"

팩커: "아니요.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순간 무슨 일을 하는 동시에 마음을 챙기며 보고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말한다면 괘의치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름붙이길 좋아하죠? 사람들은 내게 '방법 아닌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하건 그들과 논쟁하긴 싫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은 일어날 것입니다."

선 수행자였던 팩커의 수행관은 숭산스님이 이끄는 관음선원 수행자들과의 대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질문: "공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요함과 공(空)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팩커: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은 각자의 에고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空)과 적정(寂靜)은 어떤 방법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그곳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공과 적정의 마음 상태는 다양한 수행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인위적으로 얻어진 공과 적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토니 팩커와 샘물센터.

진리에 대해 의문 품고 듣고, 볼때 지혜 획득 일상 생활속 자유는 알아차림 통해 가능

이처럼 토니 팩커는 고정된 수행법이나 테크닉,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단순한 깨어있음(awareness)'을 강조한다. 선 수행자로서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접맥한 그의 가르침은 "불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임제선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재경 기자



탄허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呑虛門徒會에서는 금년 9월 30일을 기하여 呑虛大禪師 法語集을 간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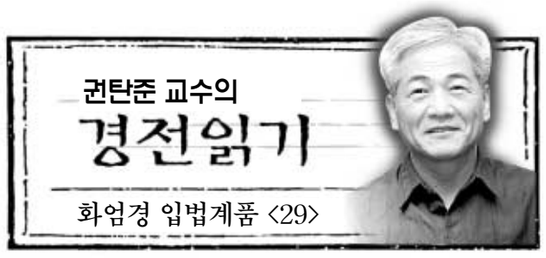
법어 · 詩 · 게송 · 계첩 · 서간문(편지글) · 기념사진 등 탄허스님과 관계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 정 사**

주지 **김 현 해** 합장 **(033-332-6664~5)**

자료연락처 :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전화 : **(02)732-2403~4** 팩스 : **(02)739-7565**



자행동녀의 법문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경계 장엄
조용히 사색하며 깨달음 바로 이해

선재동자는 승열바라문으로부터 남쪽 사자분신성(獅子奮迅城)에 있는 자행동녀(慈行童女)를 찾아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사자분신성에 이르러 그녀를 찾아보니, 그녀는 사자당왕(獅子幢王)의 딸로서 비로자나장 궁전에 머물면서 묘법을 연설한다는 말이 들리었다. 무량한 대중들이 자행동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선재동자도 왕궁에 들어가보니 과연 자행동녀가 비로자나 궁전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묻자, 자행동녀는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궁전의 장엄을 보라"고 말하였다. 선재가 무수한 장엄을 두루 구경하니, 낱낱의 장엄 가운데에 온 법계의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발심하고, 보살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공덕을 갖추어 정등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다가 열반에 들어가시는 일이 영상(影像)처럼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물 속에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모습이 비치는 듯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자행동녀가 지난 세상에 심은 선근(善根)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선재동자가 궁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행동녀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인데, 내가 삼십육 항하사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법을 얻었는데, 저 모든 부처님들은 각각 다른 법으로써 나를 이 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는 자행동녀에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자행동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선남자여,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수순(隨順)하여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적에 보문(普門)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니문이 앞에 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자행동녀는 부처님·법·중생·공덕·지혜·행(行)·마음 다스림 등에 관한 다라니를 모두 일백일곱 가지나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선남자여, 나는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門)만을 안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두루 갖추는 법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행동녀가 이러한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동녀(童女)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국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행동녀는 이것은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증(身證)해서 나타내 보이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행동녀가 평소에 생활하는 주변환경과 온갖 기물(器物)속에서 온 법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거룩한 행적을 영상(影像)처럼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행동녀의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숙세에 수행해서 심은 선근의 힘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행동녀는 과거 무량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을 얻었으며, 그 부처님들이 각기 다른 문으로써 여기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행동녀는 이 반야바라밀다로 부처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혜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량한 다라니를 얻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다라니로써 표현하고 있다.

다라니는 모든 가르침을 이해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또는 여러가지 의미를 간단한 언어로 요약한 것을 말한다. 자행동녀의 법문에서 반야바라밀로 부처님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는 것을 무량한 다라니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진실로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부처님 경계를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어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념(正念)으로 사유(思惟)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히 사색하여 가는 가운데에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르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기억되어 진실한 세계가 열리어 오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량한 다라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무진(無盡)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결국 지혜에 근거를 두고 지혜의 작용을 일으켜서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②

직지인심(直指人心)-1

지난번 연재에서 독자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종의 종지에 대해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시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연히 그 숙제를 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해본 내용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맞대놓고 가늠해보시기 바란다.

'직지'란 곧바로, 직선으로 가리킨다는 말이겠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이른바 <직지심경(直指心經)> 또는 더 줄여서 <직지>라고 일컫는 문서 제목의 바로 그 '직지'이다.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면, 직지심경이라는 약칭은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니 약칭을 한다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목판본과 필사본은 국내에 보존되었는데, 금속활자본은 상·하권 가운데 하권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분들이 혹시 국내에도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하여 직지 찾기 운동을 벌여왔는데 아직 시원한 소식이 없다.

아무튼, 무엇인가를 곧바로 가리킨다는 말이 '직지'인데,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라 하면 이것저것 다른 것을 집적거릴 필요가 없이 곧장 사람의 마음을 문제삼는다는 뜻이겠다. 여기에서 우선 왜 '직지'할 것을 강조했는지 새겨봐야 하겠다. 도기의 정체성을 내세울 때 가장 흔히 강조한 특징이 '우리는 교종(敎宗)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다음에 살펴볼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구호와도 관계가 있으니 앞으로 차차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경전에만 목메는 행태 비판

대체 무엇을 문제로 보았기에 선종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곧바로 질러 들어가라'고 역설했을까? 이것저것 다른 데 한눈 파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기에 담겨있다 하겠는데, 과연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경전 공부에만 목을 매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선종이 기존의 여느 종파와 구별되는 자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종'이라고 자처하는 특정 종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선종 측에서 기존의 종파들을 싸잡아서 일컫기를 교종이라 하였고, 그것은 경전에만 매달리는 무리라는 뜻이었다.

불교의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한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늘 가까이 모시며 가르침을 다 외워둔 아난(阿難)이라는 스님이 있었다는데, 교단의 최고 실력자 500명이 모인 가운데 외운 것을 구술(口述)하여 받아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은 처음에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니, 여기에서 '저'란 곧 아난이다.

그게 사실일까? 정말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일일까? 의심이 드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이 있더라도 필자에게 진위를 묻는 질문을 던지지는 말기 바란다. 답을 모르니까. 불경이나 기독교의 성경 같은 종교 문헌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나중에 또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아무튼, 경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이니, 불자의 신행으로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어찌하여 비판받을 일이라는 말인가? 선승들도 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그토록 힘주어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보기로 하자.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



무명과 길들여짐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세상에 나타나게 된 생명체는 스스로를 홀로 알 수 없다. 비교행동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를 어미라고 착각하여 따르던 오리들에서 보듯이 태어난 생물체는 오직 타자(대상)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알아가게 되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착할수록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상에도 집착하게 된다.

결국 몸이라는 육근에 속아 길들여진다는 것이 이 우주 법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이다. 이렇듯 무명의 참 모습은 본디 그러한 연기(緣起)에 있다.

생명체는 대상통해 자기존재 확인
"길들여 지지 않으면 그대로가 부처"

생명체가 길들여질 때에 그 대상이 나쁜 것도 아니요, 그 마음을 내는 너와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무엇에 길들여진다 함은 그 대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낳게 되고, 그렇게 머무르게 된 마음은 그것을 못 구해서 괴로워하고 또 그것이 충족되면 새로운 대상을 구하게 되는 끝없는 갈망(渴望)의 연속일 뿐이다.

돈이나 사랑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이러한 길들여진 일상생활로부터 뛰어나와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찾아 끝도 없이 찾아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하여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과 새로움을 잊고는 단조롭다고 느껴서 막연히 무엇이 부족한 것인 양 돈, 명예, 권력, 진리, 법(法), 해탈 등등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자 방황을 하며 심지어는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마저 길들여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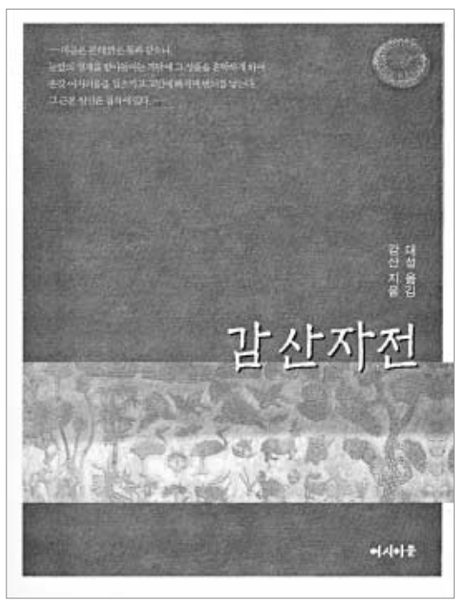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가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은 더 나아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생(生)에 길들여지지만 않는다면 생이 있되 생이 없고, 또 사(死)가 있되 사에 길들여지지 않아 사가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생사를 떠날 수 있으니 생노병사, 윤회를 거듭하는 무명심의 근본은 이렇듯 본디 실체도 없는 마음의 길들여짐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길들여진 모습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 한다. 출가를 하여도 승상을 벗어야 하고, 공부를 하여도 법을 여의며,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바가 없고 보살행을 행한다하여도 그 행하는 바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중생의 모습 그대로 부처가 되는 도리이기에 단지 길들여지지만 않는다면 그대가 곧 부처가 된다. 이를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했고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했던가.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 그저 따지지 않고 오거나 가거나 마음은 장썩듯이 푹 쉬고 쉬어 오직 깨어있으니, 그저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예쁜 미녀보면 마음이 동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9화)

"항상 노력하라"

〈출전 : 불반니항경 권상: 1-162 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구호'에 묻힌 '고통' 잊지 말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이름을 통해 밝힌다. 예전에 많이 쓰던 공화국이라는 호칭이 정부의 아무런 이념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무슨무슨 정부'라는 이름은 제법 그 정부가 나아갈 바를 제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공화국 시절에도 나름의 이념을 담은 것이 있었다. 바로 구호였다. 주로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을 통해 선언처럼 던져지는 이 구호는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하는 지표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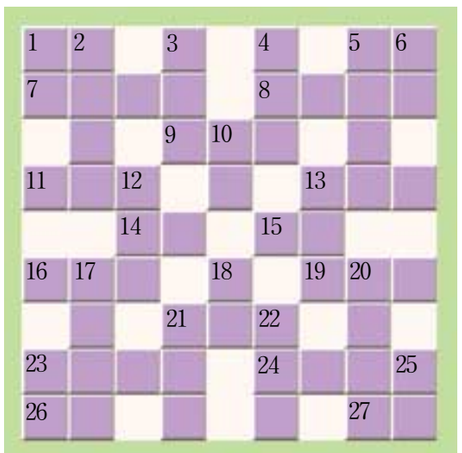
'새마을 운동'과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있었고,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구호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통치자의 찜찜한 구석을 숨기고 국민들의 정신을 빼놓으려 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 21세기 '참여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이런, 어쩌면 그리도 '수출 100억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와 똑같은지!

〈법화경〉 비유품에서 아이들에게 양과 사슴과 소가 끄는 수레가 바깥에 있다며 유인하는 아버지에게는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 위험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흰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모두 싣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었다.

2만달러라는 구호가 우리를 어딘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수레인 것은 분명한데, 정작 그 수레를 얻었을 때 갈아타야 할 수레가 흰 소가 끄는 더 큰 수레가 아니라 썩은 수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 정작 불난 집을 벗어난 아이들은 불이 난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 구호만 쳐다보다가는 고통스러운 주변을 모두 잊게 될 것도 걱정이다. 그 불난 집 속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있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선재 혼자 타고 갈 수레라면 썩은 수레만도 못한 게 아닌가!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원고를 보냄 5.작은 형제의 물건 7.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 8.조선시대의 스님으로(1376-1433) <원각소>등의 저서가 있다. 호는 득통. 강화도에 수행처로 알려진 함허동천이 있다. 9.<경덕전등록>의 준말. 부처님 이래 조사들의 법맥과 법어를 기록한 문집 11.대형의 벽신문이나 벽보 13.소대를 이끄는 지휘관 14.개인의 시문을 한데 모아 엮은 책 15.서로 의논함 16.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 19.처마의 맨 끝 21.화두를 근거로 공부하는 선풍 23.겹겹이 포개어진 모양 24.고려 선종 때 대각국사의 요청으로 흥왕사에 설치한 기관으로 국내외 불경의 주석서를 간행했던 곳 26.죄를 고함 27.한 때, 같은 때

세로

1.추석 무렵 솔밭에서 나는 버섯으로 향기 좋고 맛이 있어 식용버섯의 대표로 꼽힌다 2.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 3.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의 이름 4.방명록 5.소득을 늘려나감 6.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10.산을 오름 12.법화경의 제25품으로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모습이 여러 가지로 설해졌다. '관세음보살 ㅇㅇㅇ' 13.의지할 바가 되는 곳 17.두 가지 말 즉, 이간질을 해서 지은 큰 죄 18.깨끗하게 함 20.중국 선승으로 활발한 선풍이 돋보였으며 백장 남전 등의 제자를 두었다. 속성이 마(馬)씨. 21.간첩들이 타고 침입하는 선박 22.경전을 쉽게 풀어 설교하는 사람 23.참기 힘든 고통 25.경계하며 지켜 봄

〈430호「교리퍼즐」정답〉

영	백		용		비		참	관
상	의	하	달		구	산	선	문
	관		차	별	계		문	
불	음	주		미		불	법	승
		장	엄		화	두		
무	일	자		매		화	엄	경
	거		천	진	불		처	
무	양	수	불		공	소	시	효
상	득		전		평		하	수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새로나온 책

산사서 느끼는 부처님 가르침



'옛절을 거닐며'

이희재 지음

불교서원 / 8천6백원

이희재 교수(광주대 외국어학부)의 명상기행집 <옛절을 거닐며>는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사뭇 다르다. 기행문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경로와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산과 숲, 봄바람과 새소리, 하물며 돌담 옆에 피어오른 민들레까지 전하는 무언의 진리 앞에 언제 어떻게 왔느냐는 여정은 단지 세속적인 계량기일 뿐이다. 책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특정한 소제목이 붙지 않았다. 무심코 찾은 산사에서 느끼는 가르침 즉, 부처님의 마음을 형식 없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불교 관한 내용 사전식 해설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영관 스님 엮음

삼양 / 9천원

불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앎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나 사상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불자들이 방대한 불교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영관 스님(삼론종 총무원장)이 쓴 <불법승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이야기>는 부처님의 생애, 경전, 교리, 사찰, 스님, 일반신도 등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식으로 묶어 놓았다. 책 말미에는 '방편', '이판사판', '연비', '불교의 4대명절' 등 용어를 자세히 해설해 놓아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나 찾기' 옛이야기식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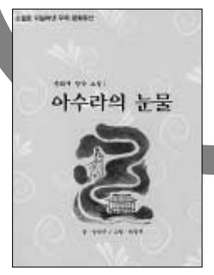
'도술이야기'

보진 지음

일월사 / 1만5천원

<도덕경>을 옛날이야기 식으로 풀어 쓴 책이다. 호랑이 담배피던 얘기라든가 옥황상제, 선녀 등 한번쯤 할머니 무릎을 베개삼고 누워 들어봤음직한 구수한 옛 이야기의 소재가 등장하지만 이 책이 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인간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만이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나 인간에게는 또다른 참나가 있다. 그 참나를 찾기 위해서는 '도(道)'를 닦듯이 심신을 매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문화재 창작 소설? 처음 들어보는 장르다. 문화재와 소설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식견이 넓어야 가능한 것인 만큼 웬만한 글장이의 배짱은 아닐 듯 싶었다. 하지만 책을 받자마자 저자의 이름부터 확인해보면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 질 것 같다. 소설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저자의 문화재적 식견과 촌철살인과도 같은 필력만큼은 익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동국대 국문과 출신으로 장편소설 <차크라 바르틴>, 평론 <석굴암을 위한 변명> 등을 내놓기도 한 바 있는 성낙주 교사(50 · 노원중학교 · 사진)다.

'아수라의 눈물'과 '시간위에 지은 집' 등 두 권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 한 권씩에는 저자의 두 가지 욕망이 모두 담겨져 있다. 하나는 창작소설, 다른 하나는 평론 즉 문화재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각권의 전반부는 창작소설이며, 후반부는 평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적고 있는 소설속 문화유산에 대한 진지하고 무게있는 해석(저자는 낯설게 보기, 꿈꾸기로 표현)은 그 자체로 훌륭한 미술 평론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오랜 연구와 모색위에 축조된 튼실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저자는 글 곳곳에서 확인시켜 준다. 또한 기존학계의 통념과 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문화유산 하나하나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은 원시적 어둠의 오랜 누습(陋習)과 전란으로 말미암은 인간 질곡의 부정을 떨쳐버리고 밝고 화사한 인간의 세계를 표현한 영겁의 바위가 부르는 '생명찬가'로 형상화시켰다. 첨성대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을 완전히 깬다. 첨성대에 관한 평론 '우주의 우물-선덕여왕의 성체(聖體)를 읽어보면 첨성대 내부로 통하는 층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 역할쪽에 무게중심을 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덕대왕 신종 흔히 말하는 에밀레종 전설도 기존 것과 완전히 다르다. 보시할 것이 없자 어린아이를 내주었다는 것에 과감한 비판의 칼을 들이대며 그 설화는 당시 혜공왕과 모후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경주 분황사도 향기로운 황제의 절에서 원효대사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한도는 완당 김정희의 삶을 추상화 한 것으로, 영주 부석사는 고대 동양 삼국을 뒤흔든 러브로망의 터전으로 해석하는 등 일찍이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해석을 펼치고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외에도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꽃송이 둘'이라고 표현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고대 목조건축기술의 절정인 '황룡사 9층탑', 학을 자식으로 기르던 선녀(仙女)의 환생으로 본 '고려상감청자운학문매병' 등의 표현은 저자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대목들이다.

저자는 "그동안 이 땅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 듯이 보이지만 대부분 고정관념과 부정확한 인식에 매몰된 채 그것들의 의미를 재창조하거나 현재화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빚을 문화유산들에 지고 있는 셈이며 그것들을 자유롭게 변주해 낼 수 있는 소설이란 유용한 장르를 통해 많은 유산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용해시키고 싶었다"고 출판 의도를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석가·다보탑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두 꽃송이"

백제의 미소 "영겁의 바위가 부르는 생명찬가"

불교 핵심이론 철학적 요약

'불교철학의 전개(인도에서 한국까지)'

한자경 지음

예문서원 / 9천원



불교철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적 교리나 불교사의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상적 깊이와 심오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연구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단 한권의 책으로 묶어 낸다는 것 자체가 극히 요약적이고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점에서 <불교철학의…>는 자칫 뜬구름 잡는 듯한 설명으로 비칠 수 있는 불교의 핵심이론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철학적으로 재정립했다. 이 책은 크게 '석가의 생애', '불교의 근본 교리', '인도의 이상주의', '중국의 현실주의', '한국의 주체주의' 등 다섯 장으로 나누고 있다. 근본불교에서부터 무아(無我)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불교를 자아와 무아, 그리고 마음과 일심의 문제로 일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 개체의 존재와 우주 세간까지를 설명하려 했다.

'아수라의 눈물, Ⅱ시간위에 지은 집'

성낙주 글 / 하경옥 그림

창조문화 / 각 7천5백원

불교유산 색다른 방법으로 해석

문화재 창작소설

'해우소' '휴급소'란 말은 누가?

'해우소에서 만난 큰스님'

박기영 엮음

고요아침 / 9천5백원



이 책은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경봉, 만공, 만허, 성철, 전강, 청담, 효봉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숨겨진 재미있는 일화를 묶었다. 책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사찰이나 전통찻집에 가면 화장실 대신 붙여있는 '해우소'를 누가 지은 것일까 한번쯤 의문을 품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온몸에 있는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란 의미를 알면 작명한 이의 재치와 기발함에 혀를 내두른다. 바로 경봉 스님이다. 스님은 시자에게 나무토막에 붓글씨로 '휴급소(休急所)'와 '해우소(解憂所)' 두개를 써서 내밀었다. 소변보는 곳엔 '휴급소', 큰일 보는 곳엔 '해우소'를 내걸라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었이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일이야. 그런데도 중생들은 화급한 일은 잊어버리고 바쁘지 않은 것은 바쁘다고 그래…, 뱃 속에 쓸데 없는 것이 들어 있으면 속이 답답해. 근심 걱정이 생겨. 그것을 그 곳에다 다 버리는 거야. 휴급소와 해우소에서 근심걱정 버리고 가면 그것이 바로 도 닦는 거야." 일반 대중들에게 재치있고 쉬운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준 경봉 스님의 기지가 돋보이는 일화다. 이와같이 이 책은 일상에서 일어났던 큰 스님들의 일화를 통해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큰스님들의 일화 속 깨달음의 메시지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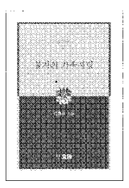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3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벤슨 외 3인	여시아문
4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메킨지	김영사
5	금강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6	꿈	단정쟈춰	호미
7	영가천도	우룡스님	효림
8	유식 30송	서광 스님	불광
9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10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지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에 기초하여
· 가족이 되어 만나는 인연,
· 가족을 위한 세가지 기도법과 참회법,
· 걱정 대신 축원을 하는 생활,
· 구체적인 향상의 자녀교육법,
· 부부사랑을 키우는 비결,
· 불교 특유의 효 사상과 효도방법
등을 감동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4×6판 / 176쪽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쪽 / 값 6,000원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 경전!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1 금강경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2 부모은중경
독송의 방법과 축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권 100쪽 / 국반판 /값1,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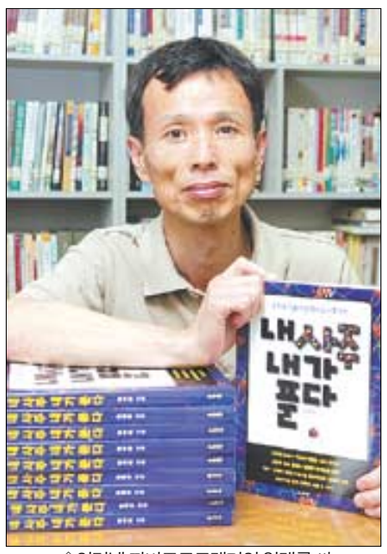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공학도 임태근 씨 원자핵 공학 전공 살려 저술

“음양오행 이론은 응용과학 기초학문”

블랙홀은 음양 운동에너지 원천
빅뱅이론 – 洛書원리는 일맥상통

‘내 사주 내가 푼다’
임태근 지음
여시아문 / 1만2천원


◇인터넷 자바프로그래머인 임태근 씨.

“과학자들이 음양오행을 각 분야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업적을 쌓아간다면 우주의 통일장 이론이 완성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음양오행이론과 과학은 과연 연관이 있을까? ‘공학도가 풀어낸 최초의 사주과학’이란 부제를 단 <내 사주 내가 푼다>(여시아문)의 저자 임태근(47)씨는 “음양오행이론은 천문학,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심리학, 건축학 등 모든 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학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음양오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과학실험을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저자는 이 책에서 “상대성이론은 음양이론에, 양자역학은 천지인(天地人) 삼원(三元)에 기초한 황극(皇極)이론에 각각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임씨는 이러한 전제아래 오행의 기본 원리도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우주의 흐름도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오행의 상생도(相生圖)인 ‘하도’는 수축하는 우주운동의 원리를 제공한다. 하도에 나타난 상생의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한꺼번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우주의 특이점(singularity point)인 ‘블랙 홀’(black hole)은 음양운동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이란 것.

오행의 상극도(相剋圖)인 ‘낙서’는 팽창하는 우주의 설계도로 표현된다. 태초에 물질은 시공간도 없던 상태(空)에서 큰 폭발과 뒤이은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빅뱅(big bang)이론’과 낙서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다.

임씨는 또한 하도-낙서에서 남쪽과 서쪽에 있는 금(金)과 화(火)가 서로 자리바꿈하는 금화교역(金火交易) 원리를 통해 우주는 4차원의 DNA 유기체 구조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다. 수축하는 힘이 작용하는 하도의 우주에서 블랙 홀로 빨려들어간 우주는 웜 홀(worm hole: 블랙 홀과 화이트 홀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금화교역이 일어나 낙서의 배열로 수정된다. 화이트 홀(white hole: 블랙 홀과 대칭되는 우주의 물질을 내뿜는 세계)에서 분출될 때에는 낙서의 원리가 적용되고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이런 블랙 홀과 화이트 홀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우주공간은 하도-낙서의 원리에 따라 인체의 DNA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씨는 결국 “우주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가장 조화로운 생명체”라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이밖에도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의 원리와 음양에서 오행이 발생하고 다시 10간(시간) 12지(공간)로 발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사주(四柱)의 구조가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로 연대책임을 지고 순환하는 것임을 밝히고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20여년간 음양오행이론을 공부하며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자바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구치소에서 쓴 ‘사랑의 정치’ 구상

신문명 경제신론·국가비전도 펴내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
장기표 지음
형성사 / 7천원



“사랑은 위대하여라/ 완전한 자유의 획득을 위한 석가의 설법도/ 영원한 생명의 확보를 위한 예수의 말씀도/ 현세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공자의 가르침도/ 그 모두 사랑이어라.(장기표의 ‘사랑의 원리’)

‘사랑과 정치’라는 말들이 과연 어울릴 수 있는 말일까? 30여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 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놀랍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형성사)라는 책에서 장 원장은 “나의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은 내 나름대로 정립한 ‘사랑의 철학’을 실천해 온 과정이었다”고 술회한다.

젊은 시절 부산 태종사 도성스님 문하로 출가하기도 한 장 원장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정치를 해왔다”며 “정치는 사랑이다”고 정의한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는 1986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80년 5.17 계엄하에서 수배중인 그를 오랫동안 보호해 준 댁의 따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쓴 글모임이지만, ‘사랑의 정치’를 위한 그의 오랜 구상이 담겨있다.

장원장은 이 책과 함께 <신문명 경제신론><신문명 국가비전>(신문명)도 펴냈다.

<신문명 경제시론>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잘못 대응하면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복지 우선의 경제정책을 펴야 함을 강조한 책이다. <신문명 국가비전>은 정보화와 세계화란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민족도약과 국민복지와 사회평화를 이룰 이념과 기본정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저서다.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백가지 친구이야기’
글·그림 이와타 겐자브로 / 이언숙 옮김
호미 / 8천원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뭉클’

벌레·꽃·새·물고기들과 친구된다면 …

몇 년전 일이었습니다. 시 쓰는 후배와 함께 경주 남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움직였으니 후배가 실수를 하고 선배인 제가 뒷수습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상식과 달리, 제가 죄부지 같은 짓을 워낙 잘 저지릅니다. 경주 남산에 가서도 일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지도를 잘못 읽어 그만, 길을 잘못들고 말았던 겁니다. 길을 잃었으니, 헤맬 수밖에요.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안내판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길을 찾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리라 생각했는데, 어라, 그게 아니더군요. 너무 헤맸던 터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 높지 않고, 산에서 쉽게 구하리라 여겨 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날이 무더워 자꾸 목이 마르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와 저는 너무 지치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걷기가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던지 솔직히,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남산에 올라오셨더랬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물을 부탁했더니, 어린 딸이 가지고 있던 물을 선선히 건네주었습니다. 아, 그때의 물맛이라니! 가물 끝에 내린 소나기 덕에 시들어가던 풀들이 소생하는 듯한 기운이 몸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바가지 물의 위력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타 켄자부로가 쓰고 그린 <백가지 친구 이야기>가 제게는 꼭 경주 남산에서 마셨던 한 바가지의 물 같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서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정신이 쏙, 빠져 있다가 이 책을 읽고,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뭉클해졌던 경험이 있었지요. 무슨 책이길래 그러냐고요. 제목대로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 참. 영화 친구를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조폭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기실 우리들의 ‘선배님’들입니다. 지구라는 별에 인간들보다 먼저 살아왔던 그 모든 생명들을 가리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 책의 내용을 벌써 짐작하셨겠군요.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선배님’들하고 친구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지은이의 말대로 그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경이로운 일입니다. 역시 지은이의 말대로 “그들, 그녀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먼저 속세로 열린 창을 닫고 당신의 영혼으로 가는 덧문을 열어놓으십시오. 비로소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가용을 몰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걸어야 하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때 맨처음 만나는 친구는 괜스레 발로 톡, 차고 싶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의 친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너석의 친구는 작은 시냇물이고, 시냇물의 친구로는 개구리가 나오죠. 이 책은 우리가 어렸을 적 즐겨했던 놀이인 끝말잇기처럼 누구의 친구는 누구고, 그 누구의 친구는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게 제격인 책입니다. 이런,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지은이가 그린 어여쁜 그림들이 들어 있어 소리내어 읽되, 그림 보는 재미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생명있는 것들이 친구되는 세상은 참으로 흥겹습니다. 좀 조용하게 있고 싶어도 그냥 놔두질 않지요. 잠자리의 친구는 연못이고, 연못의 친구는 뜸부기이고, 뜸부기의 친구는 갈대 수풀인데, 이 수풀 속에서는 새끼들의 낭랑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갈대의 친구는 메뚜기인데, 어라 이 너석 하는 짓 보십시오. 후드득 날갯짓하며 높이 날아오릅니다. 눈 어지럽히는 너석이 잠들 무렵에는 친구인 귀뚜라미가 교대를 하지요. 어떠십니까. 조용할 리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일러 소란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친구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교향곡이 우리의 영혼을 맑디맑게 만들어주니까요.

지은이는 책의 말미에서 “난 혼자로구나”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지요.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둘이도 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생명있는 모든 것들을 친구 삼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일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노나니,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권우 / 도서평론가

<백가지 친구 이야기>는 자연의 친구들에 대한 백개의 짧은 글과 그림을 묶은 책이다. 목가적이며 우화적인 판화작가이자 방송사회자인 이와타 켄자부로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법보시나 불사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寫經
金剛般若波羅蜜經
妙法蓮華經
地藏經

기도와 성취의 길 금강경 사경 불사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경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사경은 기도이며 수행이고 참회이며 복을 짓는 일이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서사(書寫)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예로부터 사경경전의 제일로 꼽아왔습니다.

절첩식 10×25cm
표지 : 고급 T/C 하드카바 금박
내지 : 매직칼라 연미색 120g

표지에 사찰 이름을 금박으로 넣어 드립니다.
주문후 7~10일 정도 걸리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 : 국민/ 665901-01-252268
우리/ 116-07-085001
우체국/ 104216-02-138824 예금주 조재호

문의전화 : (080)662-8522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께 권합니다.
사십 구재를 모시면서 사경을 하면 왕생의 요결이 됩니다. 사경한 것은 사십 구재날 고인을 위해 불살라 줍니다.
조상님이나 임신중절한 태아의 천도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천도시식하는 날 함께 불살라 영가에게 공양합니다.
자식의 입시나 남편의 승진을 위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감사공양을 올립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도 사경기도를 하거나 병고퇴치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한 것은 불전에 올립니다.
탑이나 법당을 세우거나 새롭게 부처님을 모실 때 사경불사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사경불사를 올려야 합니다.

TEL/(032)662-8522 FAX/(032)662-8524 양지바른곳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도



불교의 노동관

최근 한국사회는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노조의 활동이 왕성하다. 그러나 잦은 파업으로 인해 노조 때문에 국가가 퇴행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다. 노조가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막강한 사회적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회사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이란 생각을 했으면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나의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운동가들은 필자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 지금 수많은 기업체나 공공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요즘 노동 귀족이란 용어를 들은 적이 있다. 노동자의 연봉이 억 단위에 가깝거나 억 단위를 넘어간다면 필자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국민을 볼모로,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해 투쟁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중소수공업이 발전해 있었다. 따라서 고용주와 사용인은 도제의 형식으로 동거하며 일을 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윤리를 '싱가라에 대한 가르침'이란 경전에 남기고 있다. 물론 3천여년 이전의 가르침이라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없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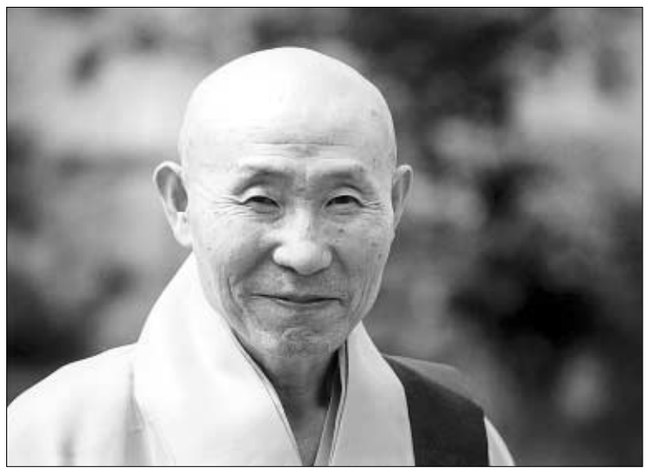
부처님은 여기서 고용주와 사용인 각각에게 다섯 가지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인은 첫째 능력에 따라 일을 할당할 것, 둘째 먹을 것과 급료를 줄 것, 셋째 병들었을 때 간호할 것, 넷째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줄 것, 다섯째 적당한 때 휴식을 줄 것 등이다. 이 가르침에 대해 후대에 붓다고사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첫째 항목은 남녀노소에 따라 일을 할당하는 것이 달라야 하며, 각자의 역량을 초과하는 과중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가족수당이나 사회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항목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넷째 항목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풀이한다. 다섯째 항목은 적당한 휴식제도를 말하며, 관혼상제나 특별한 경우 임시휴가를 주고 필요한 경비나 재물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해설한다.

반면에 사용인 역시 다섯 가지 사항을 지켜 고용주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주인 보다 아침에 일직 일어난다. 둘째 주인 보다 나중에 잠자리에 든다. 셋째 주는 것만 받는다. 넷째 최선을 다해 일한다. 다섯째 고용인의 명예를 지켜준다 등이다. 이상에서 첫째와 두 번째 항목은 요즘의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되리라 본다. 당시는 한 집에 동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직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며 성실할 것을 말한다. 또한 불교의 다섯 가지 계율 중에서 훔치지 않는 것, 거짓 말 하지 않는 것 등의 규범과 직결되어 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고, 칭찬함으로서 대립하기 보다는 화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상의 가르침에는 상생의 정신이 전제되어 있다. 상생의 정신은 공유와 분배의 정신을 토대로 공동의 안녕과 평화를 지향한다. 상생에는 우선 몸과 입과 마음의 화합이 있다. 불교윤리의 기본은 몸과 마음과 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입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몸과 입,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분란과 평화가 엇갈리기에 세 가지의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율과 견해와 이익의 화합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몸, 입, 마음의 화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맑고 청정한 정신의 공유, 남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한 견해에 대한 경계, 작은 이익이라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 등이 여기에 있다.

이상의 가르침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이 아니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 세상에서 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 환경은 다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호소력을 지니는 것은 상생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노사문화의 건설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인 견해지만 몸, 입, 마음을 화합하고, 뒤이어 계율(청정한 절제의 정신), 견해, 이익을 화합할 수 있다면 노동쟁의가 필요한 까닭이 없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禪으로 마음닦지 않으면 깊은 진리 알 수 없어요

지상 백고좌

무여스님

(봉화 축서사 주지)

불교는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길이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빛나고 영광된 길일 수도 있고, 아주 부끄러운 오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경전이나 어록을 놓지 말고 읽고 또 읽으세요. 어디 다닐 때도 읽으면서 또는 외우면서 다니십시오. 볼 일이 있어 외출할 때는 꼭 경전을 가지고 가십시오. 읽고 읽어서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은 웬만한 구절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전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한문에 눈이 열리고, 한문 읽는 소리에 귀가 열려서 문리를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학문하는 진정한 재미가 나고 경전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말할 때도 부처님을 닮고, 행동할 때도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가급적이면 불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입에 담지도 마세요.

출가 수행자들은 그렇게 경전에 빠지고 늘 머리 속에는 부처님이 떠나지 않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중님물'이 물씬하게 배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진정한 스님, 똑 떨어진



◇7월11일 전국승가학인연합 주최로 열린 불교학술대회에서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 왼쪽) · 정련(내원정사 회주 · 오른쪽) 스님과 자리를 함께한 무여스님(가운데).

기자가 본 무여 스님

"참선과 염불 등 불교수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여(無如)스님은 어느 법석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꼭 이 말씀을 하신다. 왜 해야 되는가. "자기를 계발하고 인간성을 완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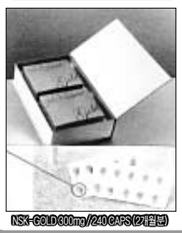
스님은 가능한 바깥 출입을 삼가신다. 부득이 볼 일이 있을 때라도 한꺼번에 해결하고 곧바로 절에 오신다. 가능하면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친견하기 까다로운 큰스님들이 꽤 많은데 비해 무여스님은 만나고자 원하는 누구에게나 방문을 열어 놓고 법문을 해 주신다.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과 나직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자체만으로도 불자들의 찡그린 얼굴은 어느덧 주름이 펴지곤 한다.

스님이 주석하는 문수산 축서사는 '선열당' 불사를 마무리중이다. 이곳은 불자들의 참선정진을 위한 선방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선수행이 가장 수승함을 강조하시는 스님의 가르침 따라 한달에 한번 축서사의 철야 참선정진 열기는 그 어느 곳보다도 뜨겁다.

"참선 · 염불, 자기계발 가장 좋은 방법" 강조

축서사 교무 계법스님은 "모든 일을 원리원칙에 맞게 하시고자 하는 점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경전을 보면 '아,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처님 정신대로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상좌들에게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무여스님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6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 해인사 등 제방 선방에서 20여년 동안 수선안거하고 87년 이후 축서사에 주석하고 계시다. 쥠불사와 망월사 선원의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다.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SD LD 600mg/240 CAP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조끼 · 몸뻬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라복 적삼 · 조끼 · 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청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효이 검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5대시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혈질 와장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알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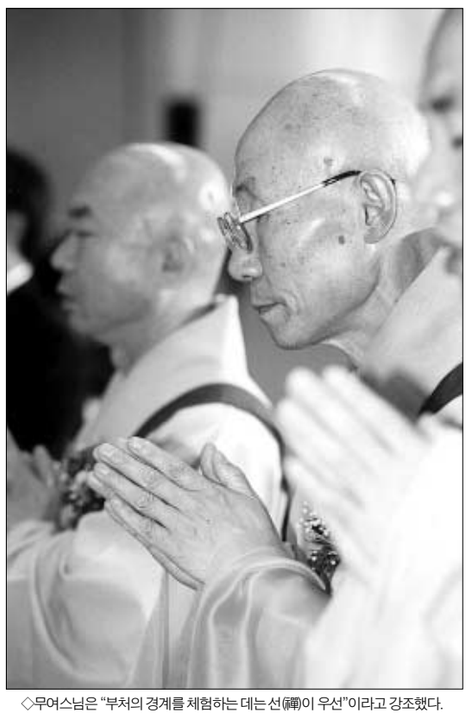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50,000원

평강해 자신합니다. 자연식 불무원 원장 재활학사(한학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제약골라이프 Co.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원성취 본제품은 질병을 방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
www.bu juk shop.com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부산 · 경남총판 051)441-1670

스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계행을 청정히 하십시오. 자비하고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그간 계를 좀 가볍게 다루었고, 또 여겨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는 위없는 깨달음의 관문이 됩니다. 천상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된다 했어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뗏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계로 인해서 정(定)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 혜(慧)가 나타납니다. 계행이 없이는, 삼매를 닦는다 해도 번뇌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새 남방불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계행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여스님은 "부처의 경계를 체험하는 데는 선(禪)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간화선 현대인에 알맞는 수행법

마음공부엔 큰 발심·신심 필수

약 30여 년 전 해인사에 돌아가신 지월(指月) 스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도 조용조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이 느리게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고 언제 보아도 하심하고 겸손한 자세였으며, 당신 상좌들에게도 누구 보살님, 아무개 스님 하고 불러서 제자들이 부끄러워 했지요. 인욕이 대단해 화내는 것을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까지 '중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 거룩하고 모범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포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스님이라면 지월 스님처럼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공경심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스님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되고 주변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게 되지요. 더 대단한 스님은 짐승에게도 느끼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수행은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실참실구(實參實究)해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불교의 깊은 진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고 중생들에게 노파심절한 말씀이지만, 조사 스님의 말씀처럼 답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교 밖에 별도로 전한 문자를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의 경지 그 경계를 불교의 근본진리라 하는데, 그 자리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작용이 멸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입니다. 그 경지는 부처님도 말할 수 없고, 어떤 문장가도 표현할 수 없고, 명 웅변가도 입을 열 수 없어요. 그 경계는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 보아야 갈증이 해소가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고픔을 면하듯이 그 경계는 오직 스스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체험하는 데는 선(禪)이 우선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맑게, 밝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데는 화두참선법이 최상승법입니다. 화두참선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상승법이니, 최고의 법이니 하는 것은 확철대오하여 견성성불하는 데는 화두참선을 능가할 수행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화선(看話禪)은 현대인에게 알맞은 수행법입니다. 현대인은 근기도 하열하고, 신심도 약하고, 발심도 못한 데다, 간절하고 성실한 마음도 없으니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휠체어가 필요하듯이,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트가 필요하듯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수단이 화두입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마음공부는 큰 발심(發心)과 큰 신심(信心)이 필수적입니다.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말이 발심입니다. 흔히 발심하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화두 안 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 하였지요. 발심이란 발보리심(發菩提心)을 말합니다. 보리란 견성(見性)하여 성불(成佛)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기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마음공부는 얼마나 발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행은 참으로 발심한 사람에게는 의외로 쉽게, 바로 되지만, 발심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깨쳐 20대에 선지식이 되어 도인행세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평생 고생하였으나 별 이익이 없는 수행자도 있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수행을 하면 깨칠 수 있다,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다, 선 중에서도 화두참선이 최상승 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끝이 나고 진정한 믿음으로써만 불법의 대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움직임이 없이 높고 크게 자랄 수 있듯이 믿음의 힘이 크고 깊을수록 그 열매가 큽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병통인데, 믿지 못하면 천불(千佛)이 출현해도 어려워요. 종교는 믿는 것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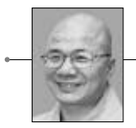
불교가 인류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선(禪)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면 사람들은 서서히 종교를 멀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장수에는 더 집착을 할 것이며,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행복해질 수 있는 수행 쪽으로는 관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 학자나 선지자들이 불교의 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선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화두가 안 되면 밥값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화두가 된다는 것은 화두에 진의가 나서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지, 즉 마음이 그 정도로 닦여지지 않으면 밥값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맑고 또렷또렷한 상태가 되어야 깨어있는 삶이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납자가 탁마하러 가면 대뜸 "너 화두가 몽중일여(夢中一如) 되나?"고 물었어요. '몽중일여'란 화두가 꿈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들리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 경계가 되면 상대를 하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상대도 안 했다고 합니다. 몽중일여는 되어야 겨우 화두를 이야기할 수 있고, 불법을 입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더 나아가 선삼매(禪三昧)는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 불교의 진수가 뭐다, 불교의 근본진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옛 어른들은 이 법을 위하여 몸뚱이를 잊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상)

시골 사진관에 법정 스님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아마 볼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사진관에 들러 필요한 사진을 찍으신 모양이다. 시골은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난다. 법정 스님 사진이 시골 사진관에 걸려 서울에까지 알려졌다.

"하하, 사진이 그런데 실물 현품이면 어떻겠어요?"

"유명세도 대단할 거예요."

사실 불일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책을 보고 찾아온 한 사람이 법정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법정 스님을 뵈러 왔는데요. 스님이 꼭 법정 스님 같습니다."

법정 스님이 대답하였다.

"아, 그래요? 더러 법정 스님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법정 스님을 뵈러 왔는데.... 어디 계실까?"

그러다가 불일암을 내려가는 편백나무 숲길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그림 · 문병성

"스님, 불일암에 법정 스님 안 계셔요?"

볼 일 보려고 산에 오르는 송광사 스님이 대답하였다. "아니, 계실텐데요."

그 사람은 갸우뚱하고 말하였다.

"키가 큰 스님 한 분만 계시구 아무도 없어요."

"하하, 그 분이 법정스님이세요"

"네? 그 분이?.... 하하하."

강원도 평창 생활에서는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미끄러져서 뒤로 벌떡 넘어져 뒷골을 다쳤다. 법정 스님이 냇가의 미끄러운 돌 위를 잘못 딛어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구나!"

스님은 쓰러져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마을에 약을 사러 가려다가 그만 두었어. 웬 중이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할 것 같아서…"

'국민 스님'은 약 하나 사기도 힘들다.

유명하다는 점은 어쩌면 수행자에게 크게 짐이 되는 일일 것이다. 바람처럼, 물처럼, 흐르는 구름처럼 지내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발이 닿는 데까지 찾아온다.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을 위해 약을 가져왔다. 귀한 웅담이란다. 그는 큰스님네 문턱을 드나들면서 가짜 웅담을 드리고 용돈이며, 글씨 등을 받아 챙기곤 하는 '전문 꾼'이었다. 간이 나쁜 사람에게 특효약이라니 더욱 고마울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스님은 그것이 가짜 웅담인 것을 알았다.

스님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도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법정스님께 늘 이런 생각이 든다.

송광사 원주로 여름 안거 용상방에 올랐을 때였다. 그때가 불일암 공양주를 마친 뒤였던가. 스님이 대중 공양비로 내게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다. 찰밥 등 맛있는 공양을 송광사 대중 스님들에게 지어드리고, 절 살림에도 보태 쓰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다.

스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 전생 빚 잘 갚고 대중 공양도 잘 했어."

대쪽같은 성품…번다한 일 싫어해

'유명세' 피해 산속토굴서 홀로 수행

돈에 관련된 일화가 또 있다.

광주에 나가 연장을 사 가지고 돌아왔을 때였다. 석공의 돌일에 필요한 연장들이다. 잔돈을 그냥 만원짜리에서 끊고 드렸다. 만원 아래 천 단위의 숫자는 반올림하듯 한 셈이다.

"뭘 샀어?" 저녁에 물으신다.

"네, 오함마, 대끗, 호미를 하나씩 샀지요. 나머지는 여비와 밥값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다. 스님이 또 물으신다.

"뭘 샀어?"

저녁에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한다.

"네, 오함마, 대끗, 호미를 하나씩 샀지요. 나머지는 여비와 밥값이었어요."

그 뒤 점심때 세번째로 물으셨다. 노트에 잘 적어서 올리자 더 말이 없으셨다. 계산을 우물쭉 넘기면 용서치 않는 성품이신줄 뒷날 알았다.

물은 건너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속을 안다고 한다.

조개면 짝 소리를 내고 갈라지는 대쪽의 성품, 이것이 법정스님의 성품이다. 번다한 일에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신다. 그래서 혼자 산속 토굴 아란야에서 평생을 지내시는 것 같다.

■ 송광사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유창 !
날벌레, 모기, 나방 등 각종 해충퇴치!
해충잡는 박멸기
날벌레, 모기, 하루살이 등 각종 날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자외선 3파장 전광램프를 이용하여 벌레를 유인, 팬의 흡입력으로 팬아래 위치한 채집망으로 벌레를 빨아들여 냄새나 향, 소리없이 해충을 박멸시키는 장치이다.


해충포집 상태

정지상태

작동상태
● 제품의 특 · 장점
1. 실내에 하나만 걸어 놓으면 모기와 날벌레를 싹 잡아 버립니다.
2. 조명겸용으로 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흡입식으로 냄새와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3.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산시켜 팬으로 빨아들여 모기, 날벌레, 나방, 해충을 박멸시키므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식 절전형으로 제작되어 전기료가 경제적입니다.
5. 전원을 끄면 셔터팬이 작동되어 닫히게 되므로 포집된 해충들이 제품 외부로 나오기 못하게 된다.
6. 모타의 용량이 크며 팬의 직경이 커서 흡입력이 뛰어나며 넓은 반경의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한다.
실용 신안등록 출원 제0291020호
주식회사 유창
www.ryuchang.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572-9
TEL : 031)358-5011~6 FAX : 031)358-5017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7월 26일 토요일
조계사앞(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중점하차 전화 요망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썰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

우리문화 홍보에 '차'가 나섰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엑스포는 짧은 시간에 그 나라의 경제 · 문화 분야의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올 여름 경기도와 경주에서 각각 열리는 두 종류의 엑스포에서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대표선수'로 차문화가 앞장선다. 방학과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차문화가 깃든 엑스포로 떠나보자.

■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다기 특별전 등 볼거리 제공

■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도자기의 미와 흐름 한눈에

천년 고도 경주에서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2003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는 우리 차문화를 선보일 '차문화 특별전'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차인연합회 소속 대구 명정차회(회장 배명자)가 준비하는 이 행사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엑스포공원 내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명정차회는 행사 시간동안 신라차, 고려차, 생활차의 행다 시연을 각 시대의 전통의상을 입고 펼쳐 보일 예정이다. 세계의 차와 다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영국 등에서 수입한 차 200여 종과 우리의 전통다기 100여 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배명자 회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다도 시연과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차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31일까지 입장권을 예매하면 할인혜택이 있으며,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ultureexpo.or.kr)나 전화로 가능하다.(054)748-3011

9월 1일 막을 여는 '2003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는 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기(茶器)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도자기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경기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군의 상설전시관에서는 전통 조선백자에서부터 현대 조형도자와 생활도자에 이르는 한국 도자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도자기엑스포 상설전시관 기획전'이 열린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는 한국 전통 도자의 미와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조선도자 500년'전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인의 미학이 담긴 그릇과 다기를 비롯해 조선 도공의 혼이 살아있는 백자와 달항아리 등을 비롯한 유물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천세계도자센터의 기획전 '세계 현대 도자전'과 중국 광동성 지역의 독특한 전통도자인형을 선보일 '중국 광동성 불산 도자인형전' 등도 주목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내 도예공방에서는 도자체험교실이 1일 3회(10시, 13시, 15시) 열린다. 전시관 안내와 무료 셔틀버스 시간표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www.worldceramic.or.kr)에서 볼 수 있다.(031)631-650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도 마시고 다기도 만들어보고." 세계인들이 모이는 엑스포에서 우리 차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된다. 사진은 관람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들차회(맨위)와 도자체험교실(가운데), 도자전시회장 내부 모습. 사진제공=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우리차

산골녹차



산골제다(sangoljeda.co.kr)가 선보이는 '산골녹차'는 손으로 비빈 뒤 열은 불로 덖는 전통방법을 고수해 수제차 특유의 향과 깊은 맛을 낸다. 쌍계사 앞 산골에서 3대째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산골제다는 국내 최초로 녹차가공식품 특허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50g 12만원. 080-278-2377

최치원선생 추념헌공다례제

'제8회 최치원선생 추념헌공다례제'가 8월 1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린다. 한국차인연합회 해운대 문화예술원(원장 차영랑)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1일 오전 11시 해운대 동백섬 정상에서 열리는 헌다의식을 비롯해 전국 단위차회의 두리차회, 국악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 다문화연구지> 12권 발간

한국 다문화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다문화연구지> 12권이 나왔다. 이번 호에는 '보이차 이야기'와 '금랑 행다례도', '1930년대의 차나무 재배', '한국 음다공간의 역사적 고찰', '유아의 다례교육에 관한 연구'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책 구입은 한국 다문화연구소(www.teaculture.co.kr)로 문의하면 된다. (02)563-4538

다도지도자 하계연수회

한국다도총연합회와 명원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03 다도지도자 하계연수회'가 8월 8~9일 1박2일 동안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의 '불교와 다도' 강의와 조선 도기장을 위한 천도재, 명차 품차회, 두리차회 등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부한다. 선착순 150명 모집. 회비 8만원. (02)730-7191

차맥 지킴이



정상구

(한국다도협회 회장)

부산여자대학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차 박물관'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차문화복지과'를 개설하기도 한 이 대학 교정에는 한국다도관, 다촌문화관, 다시비 등의 건물들도 들어서 있다. 이처럼 대학 곳곳에 서린 '차의 향기'는 이 학교의 이사장인 한국다도협회 정상구 회장의 차생활 보급과 다도 발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7일, 올해 7회를 맞은 다촌 차문화상 시상식과 한국다도협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다촌문화관에서 다촌(茶村) 정상구 회장을 만났다.

▲현대인들에게 '차'와 '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차는 기호음료인 동시에 각종 효능을 가진 보건약용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가 가진 효능만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면에서 사심 없이 맑고 깨끗하며 화애로운 마음씨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다도입니다. 다도를 통해 길러진 마음씨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며 기쁨 속에 깨달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다도협회의 그 동안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981년 창립한 한국다도협회는 현재 국내 20개, 미국 6개, 일본 4개, 호주 1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한국다도회관 하나뿐이던 것이 다촌관, 다도박물관 등이 갖

교정 곳곳 차 향기, 보급 노력 각별
상업성과 정신문화성 조화 이뤄야
한국차 우수입증 등 진흥정책 필요

추어졌고 2 · 3급 다도수료자를 3만 여명 배출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촌 다문화상을 제정, 다도관련 학술, 교육 분야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차문화가 상업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차문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면과 정신문화적인 면입니다. 현재 우리 차문화는 실리를 추구하는 상업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문화의 올바른 보급은 차의 정신문화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차문화의 상업적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차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차문화 진흥책입니다. 특히 한국차가 중국차나 일본차보다 토질면이나 종자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문화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에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서화예술인협회장도 역임하고 계신데, 서도(書道)와 다도(茶道)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도와 다도의 공통점은 선비정신과 사무사(思無邪, 생각에 삿됨이 없음)를 추구한다는 것과 동양의 전통문화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도의 뿌리가 유교임에 반하여 다도의 뿌리는 불교입니다. 물론 다도정신에는 유 · 불 · 선의 현묘한 조화가 있겠으나 다도발전의 근원적 뿌리는 역시 선불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동국대 국악과 교수 법현 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멕시코, 일본, 미국 등 세계 순회공연에 나선다.

동국예술단 '킴스 댄싱 컴퍼니' 단장 이기도 한 법현 스님은 단원들과 함께 23일까지 멕시코 중부 도시 사카테카스에서 열리는 '제 8회 멕시코 자카테카스 플로레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법현스님, 해외무용포교 나서

멕시코-범패·법고춤 등 10여종 선뵈
일본-관동 대참사 영산재 공연
LA-나비·바라·타주춤 등 선사



◇법현스님이 7월~9월 해외불교무용 포교에 나선다. 무대에서 법현스님(오른쪽)이 나비춤에 맞춰 범패음악 '짓소리' 장단을 하고있다.

킴스 댄싱 컴퍼니 멕시코·일·미 순회공연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스님은 범패 '가지게', '짓소리-거령산'을 비롯해 '가야'를 주제로 한 불교무용, 법고춤, 나비춤, 향발춤 등 10여종의 불교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4일에는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효성(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월타(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성법(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생), 은진(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생), 심진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생) 등 태고종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관동대지진참사 영산재 공연을 펼친다.

이날 행사는 '신중작법', '상단권공',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춤', '회심곡', '공덕게' 순으로 진행된다.

또 8월 31일에도 일본 동경에서 영산재 공연을 마련한다.

9월 25일에는 미국공연도 계획돼 있다. LA 라크마 극장에서 '한국의 불교무용과 음악'을 주제로 공연한다.

'짓소리'와 '나무영산회상 불보살'을 비롯해 '반짓소리' 장단에 맞춰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 바라춤도 함께 선사한다.

이같은 해외 공연에 앞서 법현 스님은 지난 5일 양재동 한전아트홀센터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무용, 음악페스티벌' 에서 향, 꽃, 차 공양에 대한 찬탄 무용, 북소리를 통한 일체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법고춤, 신묘장구대다라니계송과 천수바라춤 등을 공연했다.

법현 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恨)과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 등 전통적 정서가 스며 있는 한국불교 무용이야말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포교방편"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초청공연과 국제 무용제 등 해외 순회공연의 기회가 있을때마다 빠짐없이 참가해 불교문화 포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너와 나, 인연의 수레바퀴서 공생"

설치작가 서도호씨 첫 개인전시회 열어



◇서도호씨의 '낙하산병'.

9월 7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설치작가 서도호씨의 첫 개인전시회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6개의 작품들로 풀고 있다. 주목할 작품은 'Karma(업)'와 'Paratrooper(낙하산병)'. 불교에서 '업(業)'을 의미하는 'Karma'는 거대한 구둣발 밑에 수많은 인물들이 뛰어가는 형상을 표현했다. 밑에 깔린 사람들이 뛰어봤자 거대한 발의 한 걸음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조명한 것이다. 즉 계층이나 모습은 달라도 인과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Paratrooper'는 작가가 알고 있는 3천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사인(sign)들을 형광 분홍색 실로 수놓고, 그 사인의 끝에서 풀려나온 실들을 모은 후 한 병사가 중심에 서서 그 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02)733-8945.



◇이현숙作, '동승'

닥종이 소재 '동승 인형전' 23일까지 통인화랑서

10여년동안 닥종이를 소재로 인형을 만들어 온 이현숙 작가가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여는 '동승 인형전'에 가면 닥종이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 다시 태어난 천진불심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밝고 맑은 모습의 동자승들이 방에서 걸레를 닦는 모습, 입속에 두 손가락을 넣고 벌리는 시늉을 하는 모습, 귀를 만지는 모습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30여 작품을 선보인다.(02)733-4867.

닥종이는 닥나무껍질을 주재료로 우리 전통제지기술로 만든 종이다. 만져지는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질이 있다.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6:30 아침저널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2:00 정오종합뉴스
16:45 룸비니동산
21:30 BBS 초대석
23:05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3일 12:20 충성! 성불하십시오
24일 09:05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25일 21:00 천상천하 가요독존
26일 13:20 원각경 강의
27일 23:00 혜봉스님의 차와선 이야기
28일 19:35 팡팡 룸비니동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BBS 초대석(28일 21:30)- 전문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불자들의 인생 이야기와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를 들어보는 BBS 초대석 월요일 시간에는 이화여대병원 신경정신과 이근후 박사를 초청, '불교와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불교텔레비전

▷충성! 성불하십시오(23일 12:20)- 군 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충성! 성불하십시오' 특전교육단 편. 특전교육단 법당 호국사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예비 특전용사들의 열정과 투혼을 만나본다.



전통문양 1천여종 CD한장에

디자이너들 작업현장서 활용가능

우리 선조들은 건축구성물 뿐만 아니라 그림 한 점, 장신구 하나에 이르기까지 상징과 바람을 담아왔다. 그리고 상징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다.

최근 이러한 전통문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전통문양과 상징물'을 CD 한 장에 담아 내놓았다. 이번 CD롬에는 불교문양과 생활문양 등 전통문양 1천여종이 수록돼 있다. 불교문양중에는 단청, 용, 만(卍)자, 연꽃, 귀면, 문살 등이 다양하게 상징화 돼 있다. 이중 단청 문양은 54종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문양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과 사군자, 코끼리 소나무, 박쥐, 학, 닭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이번 '전통문양과 상징' CD롬은 각 문양별로 EPS 파일을 제공, 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해 실무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기자



◇연꽃축제가 열리는 사찰에 가면 곱게 핀 수련을 만날 수 있다.

사찰서 연꽃구경하세요

봉원사, 분양·연잎차 다도시연도

연꽃이 만발한 계절을 맞아 사찰에서 풍성한 연꽃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신촌 봉원사는 8월 12일까지 '제1회 서울연꽃축제' 를 연다. 경내에 설치된 수조와 수반에 갖가지 수련과 연꽃이 전시되며 연꽃 산책로를 조성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연꽃 분양도 한다. 연꽃전문 사진작가 선암스님의 연꽃사진전과 연잎차 다도시연회도 열린다. (02)392-3007.

전남 보성 대원사는 세계각국에서 수집한 30종의 연꽃과 108종의 수련 등을 전시하는 '제1회 대원사 연꽃축제'를 다음달 12일까지 개최중이다. (061)852-1755.



동요·찬불가등 60여곡 수록 좋은벗 풍경소리, 악보집2

좋은벗 풍경소리가 그동안 발매한 CD 11집에서 16집까지의 작품들을 한데 묶은 '악보모음집 2'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악보집에는 동요와 찬불가 등 60여곡이 실려 있다.

또 책말미에는 불교음악가 반영규씨가 '불교음악의 어제와 오늘'를 주제로 찬불가의 역사와 찬불가의 종류, 2000년대 찬불가의 모습에 대해 소개해 놓았다.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덕신 스님은 "이번 책불사는 부처님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면서 법당과 온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법음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靈,體) 영,체 이탈법 스님이직접특별지도



영, 체이탈이란?

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자극하여 발달된 능력으로 **영과체**를 분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적인 것**을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나, **영, 과체**가 분리되면 **유체**든 **무체**든 볼 수 도 있고 들을 수 도 있다.
(**전생, 현생, 미래**도 볼 수 가있다.)

다, 전혀 무관한,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나, 또다른 타인의 빙 몸에 빙의된 영가와 선망조상영가를 볼 수도 있으며 영가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가를 다스릴 수 있다.

라, 스님들께서는 영가천도 및 구병시식 등 산소, 집터 및 기타 운명에 관한 어떤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 참가조건 : **출가스님만 가능함.(최고의 포교법)**

바, 수업기간 : 단기간 집중반 복식교육으로 단기일내 신령한 **영체이탈법 전문가**로 변신 가능함.

- 일반인과 환자분의 **영체운명감정**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 수고비는 **직접 면담으로 결정함.**
- **스님직통 016-806-6378 / 연 락 처 02-2637-6636**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1동 597-77(지방분도가능함)

觀 法 寺
韓國靈, 體移脫佛敎儀式硏究院
住持, 院長 道 先 合掌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0화 마왕의 유혹을 넘어서다

이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싯다르타를 향하여 쏘아댄 그 많은 불화살이 싯다르타의 몸을 피하여 주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나무에 박히기도 했다. 싸움은 끝났다. 마왕 파피야스는 더 이상 싯다르타를 이길 수가 없었다. 싯다르타에게는 마왕이 지배할 수 있는 여덟가지의 함정이 없었다. 욕망도 미워하는 혐오감도. 따라서 마왕이 싯다르타의 마음세계를 파고 들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수 많은 불화살도 공포가 없는 사람에겐 한낱 허상일 뿐이었다. 물이 없는 못에서 물고기가 놀 수 없듯이 마왕이 파고 들 수 있는 여덟가지의 함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싯다르타의 정신세계에서 그 위대한 마왕 파피야스는 물이 없는 물고기 신세였던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약점도 없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랜 세월동안 욕계의 주인으로 지배해 왔던 마라 파리야스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 할 수 있었던 인물을 실제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이 바로 샤카무니(釋迦牟尼)였다. 마왕과 그의 잡귀병사들은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제6천 마왕의 본거지로 도망쳐 갔다.

이때 마라 파피야스의 타화자재천(Paranirmitava-savarti deva)엔 메가칼리(Meghakali)라는 여인이 마왕의 궁전을 지키고 있었다. 메가칼리 마녀는 바로 마라 파피야스의 누이동생이었다. 때마침 성루에 산책하려 나왔던 메가 칼리는 오라버니 마왕이 마병들을 이끌고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허겁지겁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오라버니와 그의 세 조카딸이 모두 실패했다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나서 봐야지."

최후의 각오를 한 메가칼리는 어둠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 홀연히 싯다르타 앞에 나타났다.



"마하삼마다(Mahasudarsana)대왕의 유일한 혈족(血族)이신 샤카(Sakya)족의 큰 무니(Muni)시여, 그대가 이미 성도에 다가선 것을 축하하는 바예요. 나는 욕계(欲界)의 대왕이신 마라 파피야스(Mara Papiyas)의 누이 동생인 메가칼리(Meghakali:구름같이 어두운 여자)입니다. 그대가 이미 오라버니의 마왕대군을 물리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찾아 왔어요. 그대는 처음부터 차크라 바르틴이 되던지 붓다(Buddha)가 되어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결국은 해탈에 성공하고 붓다가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운명적으로 우리 욕계의 법과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오라버니 마왕은 붓다를 공격하는 대신 더 많은 중생들에게 욕계의 법을 강요하게 될 것이예요. 결국 샤카무니께서 몇 사람 정도는 제도하시는데 성공하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오욕의 법안에서 고통 받도록 하는 결과를 만드는 셈이지요. 왜냐하면 샤카무니는 한 사람뿐이지만 마왕은 온 욕계에 수많은 동맹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기 보다는 차라리 동맹을 맺어 이 세계를 같이 거느리면 어때요? 만약 샤카무니께서 나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샤카무니의 여생을 편하고 즐겁도록 모시겠어요.

자, 보셔요. 나는 아직도 젊고 아름다우며 몸에서는 만다라화(Mandarava)의 향기가 풍기고 있어요. 천상의 수많은 신들이 이 몸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한 몸을 샤카의 큰 무니에게 바쳐 욕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의 하시겠어요?"

" 메가칼리 마녀는 그 해괴한 몸짓을 고쳐잡고 나의 말을 똑똑히 들으라. 이 세간에는 너희들이 지배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독이 있어 그중 어느 것이라도 너희들의 법에 걸려들면 그것으로 나를 성도(成道)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인 줄 난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속임수로 나를 어리석은 인간으로 만들어 욕계의 법을 덮어 씌우고자 하였고 또 온갖 추잡한 몸짓으로 나를 능멸하여 성을 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기어코 나의 성도를 막아보려고 애쓰는 너희들이 그저 가엾고 불쌍할 뿐이다. 나는 그저 욕을 참음으로써 법(法, Dhamma)의 메아리 삼고, 뜻을 굳게하여 법의 뿌리 삼고, 계율을 지켜 법의 꽃을 삼고, 바름 깨침으로서 법의 줄기삼아 지혜의 큰 나무에는 위없는 법의 열매를 맺게하고 모든 중생을 그 그늘에 모아 보호하려는 것이다."





샤카무니 싯다르타는 이미 메가칼리의 흉계를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미 자신의 마음속을 낱낱이 들어 내 보인 메가칼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어둠속을 헤엄쳐 마라 파피야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도 영특한 메가칼리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기다리던 파피야스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통곡한다. 성도를 눈앞에 두고 제 6천의 마왕 마라 파피야스와 처절했던 싸움이 끝내 샤카무니 싯다르타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집요하게 덤벼들던 마왕도 메가칼리도 모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싯다르타의 성도를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라(摩羅)의 존재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부처님의 성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불전에서 전하는 그 유명한 파마전설(坡摩傳說)은 여기에서 막을 내린다.

샤카무니(釋迦牟尼) 싯다르타가 마라 파피야스를 이겨내니 모진 어둠과 비바람과 안개가 깨끗이 걷히고 다시 평온한 날씨가 되었다. 때는 바이샤카(Vaisakha, 인도력 2월) 보름날 저녁이었다.

이제 비로소 욕계(欲界)의 모든 유혹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난 싯다르타는 성도(成道)를 위한 깊은 선정(禪定)에 잠기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선정에서 욕망(Kama)과 악(惡)을 버렸다. 그리고 제 2선(禪)에서 삼매(Samadhi)를 맛보았고, 제 3선에서는 바르게 생각하는 지혜가 열리었으며, 제 4선에서는 안팎의 모든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초저녁이 되었다. 돌연 지난 세상의 업보(業報)에 따라 천상(天上)과 지옥(地獄)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롭고 올바르게 관찰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를 천안통(天眼通)이라고 한다.

한밤중이 되었다. 정신이 더욱 맑아져 갔다. 그리고 숙명통(宿命通)을 얻게 되었다. 싯다르타는 이제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생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 갔다.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늙음(老)과 죽음(死)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가? 그것은 태어남(生)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늙음도 죽음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태어 나는가? 그것은 세 가지의 존재양태(三有)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존재양태(三有)는 다시 네 가지의 집착(四取) 때문이니 그것은 갈망, 애욕(愛慾)이 있기 때문이며 갈망과 애욕은 느낌이 있기에 있는 것이다. 느낌은 여섯가지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즉 정신적, 육체적 현상(名色) 때문이며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의식작용 때문이며 의식작용은 행(行)이 있으므로 해서, 그리고 행은 자아(自我)에 대한 무명(無明, 잘알지 못함)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무명(無明)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열두가지 인연(十二因緣)을 거쳐 고통이 생겨남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 무명(無明, Avidya)이 없어져 모든 인간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겠는가. 만약 어둠이 없어지면 무명 때문에 생긴 지음(業)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의식 작용(識)이 없어지고, 의식이 없어지면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名色)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감각 작용(六入)이 없어지며, 촉(觸)이 없으면 감수작용(受)이, 감수작용이 없어지면 갈애(渴愛)가, 갈애가 없어지면 집착(取)이, 집착이 없어지면 존재(有)가, 존재가 없어지면 남(生)이, 남(生)이 없어지면 결국 늙음과 근심과 죽음의 고통도 함께 없어질 것이다.

결국 무명(無明)이 인간에게 실존하는 모든 비극의 뿌리이며 어두움을 없애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임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주인공에 돌려 놓으세요

벌써 날씨는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에만 집착하여 정신계의 50%만 넣고 굴리려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물려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 하고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결국 내 몸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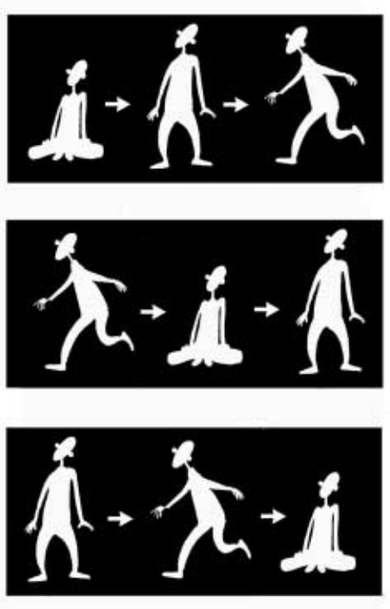
모두 회보에 나와있으니까 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살아나가다 어떠한 고난이 생길 때 여기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합시다.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양면이 없어지고 그 에너지 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 양면이 없어지고 불이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상대가 했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반면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로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가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것이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중생이 다 무심이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무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들여놓은 것이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은 많이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한가 하면 그것은 체가 없고, 만물을 다 한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인간의 마음이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이 인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들이 아닌 까닭에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의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그 물건은 치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들은 얘기 또 듣고 수만 번을 들어도 흘려버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오는 예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정신계를 발전시켜야 과거로부터 온 모든 것 막아낼 수 있어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마음에 어떠한 액난이나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과 액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악이 슬슬 풀려 나오고 액이 슬슬 풀려 나오고 병고가 슬슬 풀려 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그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에 다 되맡겨 놔야만이 다시 입력이 돼서 과거의 것이 무너지고 현실의 것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가져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공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 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면서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다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만이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맡기고 놓았을 때 식구들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애를 태우고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니 하고 모두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 아둥바둥하니까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악화되는 겁니다.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구요. 그럼 이 몸이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고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과거의 것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좋게 맡기는 것만이 좋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을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그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눕거나 깨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것이 없어요.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있을 때는 앉아서 생각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을 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다시 맡겨놔야만이 입력되었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커버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별의별 우환이 찾아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똑바로 믿고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디 있습니까? 들이 아닌데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이겁니다.

이심전심으로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상대 마음으로 가서 바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 수 없으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의 중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해 두고 여러분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제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일체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 거기에다 모든 것 맡겨 놓고
> 똑바로 믿고 직선으로 들어가야"

저희들은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 주고 그렇게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서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은 모양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님: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은 그대로 따라줍니다.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것을 못 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별성도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옷만 벗지 그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과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없이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몸을 받아서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고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에 한데 합쳐 삼합이 돼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불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려서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살아나가는 데도 이것을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죽고, 물도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럴진대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지 모두가 일체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죽어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끊간 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질문자1: 스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 그럼 말입니다. 댁은 이름을 몇 개 가졌습니까?

▲질문자1: 그냥 저죠.

▲스님: 형님이라는 이름도 가졌지요? 동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질문자1: 예, 물론입니다.

▲스님: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자식이 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는 부모가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로서 말을 하고 아들로서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질문자1: 제가 지금 살아있고 행동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고 또 본래 주인공 마음에서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없고 현재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자체가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이고 알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그게 뭐가 그렇게 의증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를 이렇게 생활로서 엮어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정신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의 법이 그대로 부처님법이예요. 윤회라고 말할 건덕지가 뭐 있나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니까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고 세상과 가설이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질문자2: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하니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락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예전부터 믿어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느낄 수는 없지만 주인공을 찾는데 스님께서는 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여태 얘기했는데도,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 보겠다 하고 앉아서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30면으로 계속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건 다 부처님의 뜻 아님이 없어

☞29면에서 계속

은 그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가 뭐 하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낭이라는 종이 사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자2: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관할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스님: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도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에요. 한다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어라 이 소리죠. 하루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을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집니까? 시공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질문자2: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아,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일 뿐입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생각을 문득 해도, 이런 게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그냥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묘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루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질문자3: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다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개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개미야! 제발 부디 살 데서 살아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 줘.' 하는 마음이 무심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 싱크대 위에 개미가 참 많았었는데 개미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아까 이상하게 그랬었는데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어 이상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나 빵부스러기를 일부러 놓아 보았지만 개미가 없는 거예요. 부엌과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에는 개미가 있는데 부엌에는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그 곳도 개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걸 느끼면서 '아! 이 마음과 풀 한 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보구나.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가슴이 아팠었던 것이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그래 저는 그것을 느꼈는데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미가 거기가 살기 싫어서 갔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좀 믿어봐요. 이 우주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체험해서, 체험할 때는 그 줄을 잡고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풀 한 포기, 지렁이 한 마리, 진드기 하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건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세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중단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부처님 한 분만 모시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이 자기를 마구 때려서 그냥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나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은 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치우니까 그 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 곳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도리에서 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움죽거려 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3: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될 수가 있구나 하니,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꺾지를 못하겠구요, 벌레고 사람이고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스님: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 짚신을 신고 주장자에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 딛고 다니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미리 달아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에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낫게 되는 동기가 모든 것을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이 있을 때 이것을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 저 뭡니까? 의식이,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죽으니까 여기서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그냥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는 거죠. 또 강을 건너가려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배어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질 못하고 말입니다.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것이 타 죽는 게 어디 있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그 개미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 제가 금방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을 때에는 아무 생각없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심장이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뭣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 다 놓는 작업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이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보고 이 뭣고 하고 있는 것하고, 그냥 칼로 딱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왕지사 배낭 지고 한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모든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 가지고, 세상이 돌아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놓고 뭉쳐놓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쓰우고 그렇게 보림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없습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이사를 가는데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못사는 사람이 차에다 이삿짐을 싣고 그 위에 사람도 타고 가야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날더러 해 주세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TV에서 일기예보를 했다는데 이삿짐을 잘 갖다놓고 그날 저녁에야 비가 오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주는 겁니다. 들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으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자5: 이사 말씀이 나와서 저 공부 경계와 상관 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이사인데 그 이사가는 것을 지금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모두 맡겨 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고 하는지 자꾸 물어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말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주 난감해서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것이 잘못 맡겨졌는지,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스님: 맡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말기기만 해서도 이게 좀 딱! 침을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됩니다. 정히 급하면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고,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기세요. 그렇게 해 놓고 생각해 보면 여기 그대로 눌러 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할 땐 눌러 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 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것보다도 댁에서는 눌러 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더러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 주니까 말입니다.

▲질문자6: 전번에 스님께서 KBS에 오셨을 때 먼 발치로 뵈었고 오늘 가깝게 뵈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10개월 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제가 금방 여기에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에,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그것을 불에 태운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스쳐가면서 가슴이 막 떨려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죠. 인간의 양심인데 그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타던 쓰라림,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질문자7: 저는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제껏 그런 직업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제가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돼지 새끼도 모습을 돼지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 오히려 잡은 것이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생각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도 영향이 가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육식이나 계란 닭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감자즙을 내서 미싯가루에 타서 죽하고 끼니로 잡수십시오. 해물은 괜찮습니다. 절대로 산 것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산 것을 토막칠 때에 토막쳤던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것은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산 것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산 짐승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자손들을 갖다가 둘씩 셋씩 이렇게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서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게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7: 그러니까 직업이 앞으로도 그런….

▲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 마리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죠.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100, 200, 1000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것은 무심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죽일 때마다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기시고 당신만이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천도를 시켜달라는 둥 환생을 시켜달라는 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먹고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이 처리를 해주실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내가 애들 보고는 그럽니다. '주인공, 네 친구만이 이것을 해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것을 해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것을 해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종합비타민 두 알과 간장약 두 알씩 잡수세요.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느냐면 그 감자즙이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큰스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앉아있는 데서 물으셨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씨 눈을 왜 틔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털을 더하고 덜함도 없이 먹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가? 셋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자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른데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한손 들어 하늘을 꿰어들고
한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뛰어 놓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셨더랍니다. 만약 그 당시에 여러분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정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까 도인들만 계신 모양입니다. 하하하.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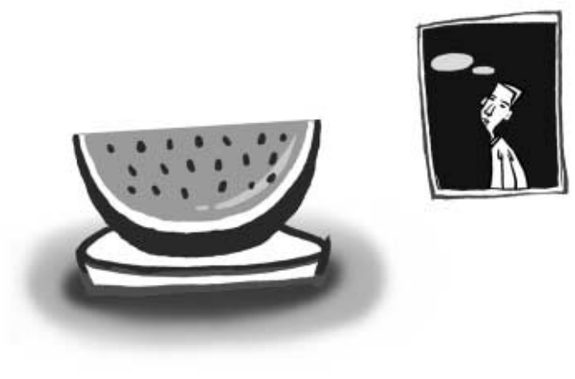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어

기쁘른 언덕을 넘듯, 그닐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Good Morning"

화계사 어린이 영어교실 '원더풀'
참여 많아 법회 활성화에도 기여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화계사 어린이 법당에서는 Lesley Eisele 선생님과 어린이 영어교실에 참석한 어린이들 사이에 다정한 영어인사가 오간다. 화계사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실이 매주 열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 영어교실이 가장 인기다. 참가자만도 40~50여명에 이르고 부모님이나 친구와 함께 영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영어교실에 동참한 아이들이 10시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어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어린이 영어교실 수업 장면.

우의초등학교 5학년인 박지성(12)군은 동생 수지(10)와 함께 4년째 영어교실과 어린이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일요일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아침시간에 방송하는 만화영화도 보고 싶지만 지성이 남매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영어교실에 참석하는 이유는 친구들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너무 즐겁기 때문이다. 우현초등학교 2학년인 김정환(9)군도 만화보다 영어수업이 재미있다며 몇년째 빠지지 않고 있다.

특별한 수업 교재는 없지만 Lesley Eisele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독특하다. 매주 프린트물을 준비해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려가며 영어를 가르친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거나 누워서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학교와 너무 다르고 사설 학원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흥미도 비교적 많이 느끼는 편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선을 공부하고 있는 Lesley Eisele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을 안듣고 어리광을 부리면 짜증도 나지만 매주 빠짐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부처님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천진불을 보는 듯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탐방 : 부경대 불교동문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부경대학교 불교동문회는 11일 부산 소림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세월가도 불심과 우정은 여전

경전공부·정기법회 '뜨거운 구도심'
성지순례 후원 통해 후배들과 교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동문회 활동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11일 부산 소림사에서 열린 부경대학교 불교동문회 정기법회에서 '초발심자경문' 공부를 끝낸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불련 침체라는 위기상황에 책임을 통감한 까닭이다. 특히 소림사는 대불련 부산지부 창립 당시, 10여 군데의 사찰을 돌며 법회 장소를 구하다 모두 거절당했던 위기의 순간에 법당을 선뜻 내 준 정일스님과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회원들의 마음은 남달랐다. 3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다시 한국 불교와 부산불교의 현재를 걱정하는 부경대 불교동문회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부산공전과 수산대학교가 부경대로 통합되면서 60년대 말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오던 홍법회와 수불회가 2000년 4월 부경대 불교동문회로 거듭난 부경대 불교동문회는 학생 때의 열정을 잃지 않은 동문회로 꼽힌다. 후배 학생회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불교동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 없는 통합을 이룬 이후 통합 회장단을 선출하고 소림사 정기법회 개최, 후배들과의 가족 체육대회, 초파일 불교사상대강연회 등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며 타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초발심자경문, 금강경, 육조단경 등의 공부를 통해 동문들의 구도심을 담아내고 있는 정기법회를 비롯, 온라인(http://pku.buddhism.org)상의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한 사찰순례 및 문화유적 고적답사는 부경대 불교동문회의 역할이 돋보이는 행사다. 매년 한차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성지순례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를 계기로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대학생 포교 및 불교학생회 활성화에 동문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림사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경대학교 불교동문 장학회 발족까지 추진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부경대 불교동문회는 부산·경남 불교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군(68학번) 현 부경대 불교동문회장은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의 교법사이자 범어사 상임법사로 활동하며 '나옹화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경대 통합 2대 회장을 지낸 이성균(75학번·사진 왼쪽) 동문은 작업복 한 벌의 단벌신사로 지내며 모은 돈을 어려운 곳에 쾌척하는 무주상보시로 동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울산, 거제, 제주지역의 불교 활동을 이끄는 주역들도 동문들이다. 강래철(74학번) 동문은 제주대학 재직당시, 제주 대학 교직원 불자회를 창립하고 제주 불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강원도 춘천대학 교직원 불자회 창립도 주도했다. 하요종(75학번·오른쪽) 동문은 거제 불교거사림회를 만들어 거제 지역 불교의 터전을 다졌다. 이 밖에도 최병문(71학번) 동문은 불교신문 지사장으로 29년 동안 재직하며 불교언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각지역 불자회 창립 등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조병영 10구좌 ▲강태진 5구좌 ▲김영국 5구좌 ▲정용학 5구좌 ▲김유신 5구좌 ▲이지범 5구좌 ▲조영숙 1구좌

7월 16일 현재 198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기사넘쳐 '2003 물의 해 캠페인'과 '명작비디오 파일' 쉽니다

'자연속에서 부처님을'

■ 부다피아 여름 캠프로

적멸보궁 참배 등 프로그램 다양

현대불교신문사는 7월 29일~31일까지 2박 3일간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덕산 관음사 일대에서 제 6회 부다피아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기 위해 적멸보궁 참배, 담임샘과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극기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 초등학생 선착순 200명
참가비: 6만원
문의전화 : 02)722-4162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예금주 김원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귀신은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
신도님들의 사주상담시에 <용신 잡는법>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느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뺄셈,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가 될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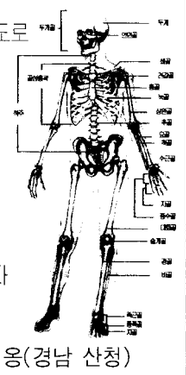


♠ 서적명 :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 규 격 : A-4 용지, 620 페이지
♠ 저 자 : 오산 정대균
♠ 가 격 : 220,000원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 기타사항 : 본서내에는 <용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분석 비결들이 담겨저있음.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저자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한글인터넷 주소 : "사주 팔자닷컴"
전화 : 02-831-0055(대표)
H · P 011-208-0051 FAX 02-831-0058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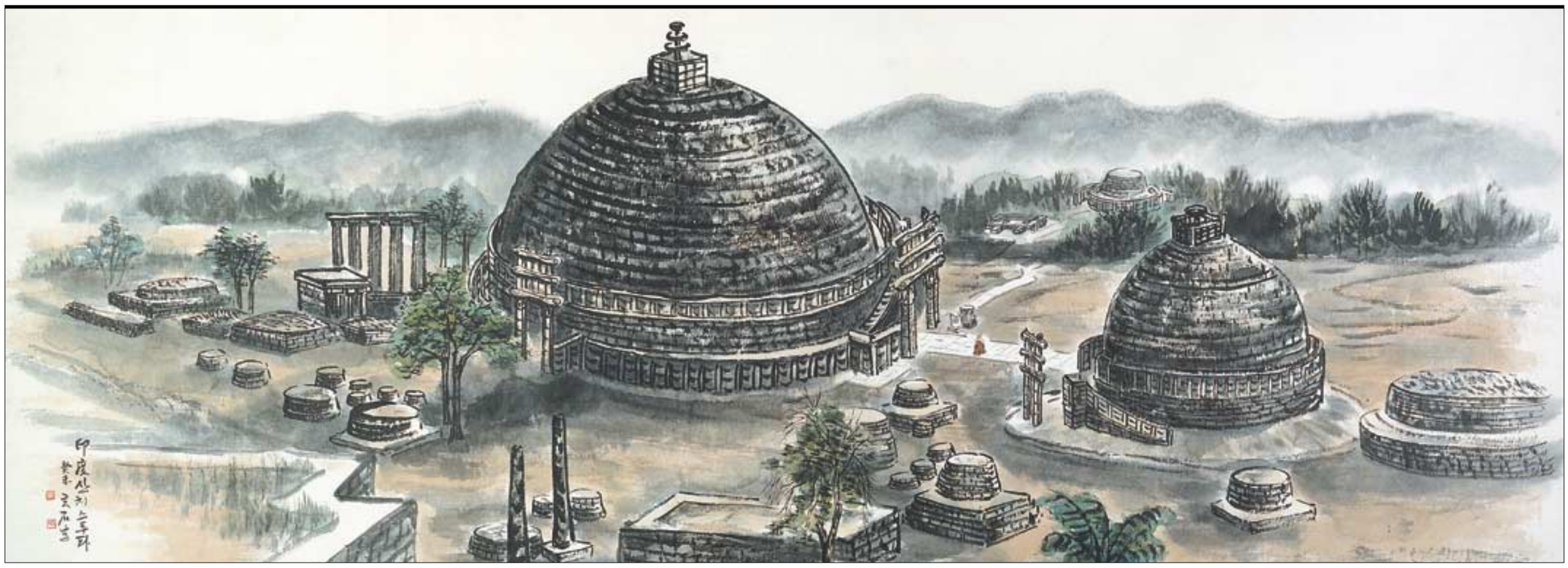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 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 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



◇산치 스투파 전경 (340×130cm).

인도그림기행 10

부조로 장엄한 공생의 가르침

그림·글 이호신

탑의 시원과 조각의 아름다움

(산치탑 전경을 담으며)

탑 형상은 초기 불교사원 가람배치의 전범

제2스투파 문양 조형미에 전율마저 느껴져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갈래로 들리지 않고 통합의 개념으로, 하나로 꿰뚫리는 실감을 산치탑에서 맛본다.

실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종교의 만남이 인류의 빛이 되고 미래로 이어질 유산의 가치로서 탑의 시원이 된 산치스투파를 바라보며 바람소리에 귀를 씻는다.

'탑(塔)'은 인도어 '투파(thupa)'를 음으로 옮긴 '탑파(塔婆)'에서 유래한 것으로 애초 붓다의 열반 후 화장한 유골을 모신 곳이다.

붓다가 열반에 들자 여러 종족이 유골을 팔등분하여 나눠 가졌으므로 인도 땅엔 여덟 곳에 스투파가 세워졌다. 그 후 200년 뒤 아쇼카대왕은 그 중 일곱개의 스투파를 열고 다시 유골을 팔만사천개로 나누어 스투파를 인도 각지에 세웠다고 한다. 이 상징적인 팔만사천의 숫자는 후일 대장경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아쇼카대왕의 홍법(弘法)에 중심이 되는 산치탑의 형상은 불교미술에 있어 회화, 조각, 건축의 시원이 되고 초기 불교 사원 가람배치의 전범으로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남한의 사찰을 찾아 가람의 진경을 화폭에 담으려 노력해왔던 나그네에게 세월을 거슬러 그 가람의 원형을 찾아 온 길은 실로 감격으로 북받친다.

아, 저 대탑문이 일주문의 원형이고 복발형태의 반구 위 상륜부가 오늘날 탑의 시원이 되고 있음에랴. 즉 반구형의 탑신부 위에 평두(平頭)의 4면체 울타리가 있고 그 위로 솟은 옥개(屋蓋)인 버섯모양의 다층형식에서 탑의 시원양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인도식 기본형이 되어 간다라(후기 인도식)와 중국의 석조 다층식(파고다), 목조다층식(운강석굴) 등으로 변천되었고, 마침내 한국에 전래되어 새로운 석탑양식을 창출하게 한 것이다.

일주문의 원형은 후일 조선시대의 홍살문으로, 일본신사(日本神社)의 문에서도 응용되는 양식 변용을 간파할 수 있으니 산치탑의 역사를 어찌 기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한편 붓다 생애를 조각한 수많은 이야기를 살펴보며 대탑을 돌아보자, 쌓아올린 돌마다 당시 발원자들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 또한 오늘날 기와불사의 전범을 보는듯하다.

이 산치언덕의 불교유적에는 원래 8개의 스투파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제1, 제2, 제3 스투파와 부러진 당시의 석주, 승방의 흔적 등이 역사의 유물로 남았다. 그 중 제1 스투파 남문 옆에 세워진 아쇼카 석주가 온전했다면 현재의 인도 국장(사자상)이 연상되는 뛰어난 조각이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다

불교초기 가람의 효시가 되는 산치의 유적을 화폭에 담기위해 뛰어다니자 한 박물관 직원이 고맙게도 유적 위치와 도표를 그려준다. 이를 참조로 한국의 가람을 그리듯 산치유적을 화첩에 담는 시간은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내 일찍이 가람의 인연이 이로써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고, 마치 업(業)의 바늘에 꿴 실이 되어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했었나 보다.

이제 산치 언덕에서 조금 내려가는 제2 스투파는 제1 스투파(대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발길이 닫는 돌은 B.C 1세기 경에 다듬어 놓은 구들장 같은 세월의 길이다. 연못을 지나 마주한 스투파에서는 발굴시 10명의 스님 사리가 출토되었다 한다.

얼핏 대탑에 비해 매우 단조로워 보이고 장중미도 부족한듯하나 다가서서 탑을 둘러싼 울타리의 릴리프(부조)를 보는 순간, 최고, 최상의 찬사를 아끼지 않아야할 부조(浮彫)의 조형미 앞에서는 기쁨과 함께 전율마저 느껴진다. 지금까지 보아온 부조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이처럼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한 작품이 있었던가. 예전의 감상이 이 다양한 부조앞에 다 밀려나고 망각되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대탑문의 서사적인 고부조에 비해, 반부조, 저부조가 전반을 이루는 다양한 내용은 마치 고대벽화에서 만난 상징과 도형, 그리고 이미지의 합성을 보여준다.

물고기와 연꽃, 코끼리와 새, 악어와 말, 그리고 불교 도상의 법륜과 사자상의 석주 등. 형상을 문양으로 데포름(변형)한 구성력과 자연스런 발상은 실로 만물의 근원과 공생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동물의 성행위와 합성된 도상, 신화적 이미지의 차용, 그리고 재구성이 빚어낸 이 부조 작품들만 찍어서 책을 내어도 세상에서 어떤 불교미술책보다 훌륭한 그림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이 같은 부조의 전통은 동양에 있어 한대(漢代)의 화상석(畵像石)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인도 부조의 영향으로 육조(六朝)와 당대(唐代)에 걸쳐 와전(瓦塼)이나 거울 등에 많이 새겨지게 된다.

그런데 제2 스투파에 새겨진 부조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면서 우리 백제(6세기)의 산수문전(山水文塼)과 통일신라(771년)때의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비천상, 그리고 수많은 와당에 빚어진 연꽃 부조의 아름다움이 떠올려졌다. 그 부조미의 정수를 찾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한국인이 인도 땅에서 마주하는 감회라니.

나는 비로소 순례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산치언덕에 가면 대탑(제1 스투파)의 장엄과 함께 언덕 아래로 가서 제2 스투파의 부조미를 놓치지 마시라. 당신의 인연이 우리 석탑의 시원을 눈뜨게 하고 부조미술의 극치를 만끽하게 해 주리라. 그리하여 과학과 예술과 종교가 행복하게 만나고 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리라.



◇제2스투파 릴리프(부조)(79×109cm).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화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사 문의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국어디나본인이직접받으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58,000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독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8ea set
가격: 20,000원



CD: 2ea set
가격: 10,000원

1주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하만 TSI에서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로
• 팩키지 I 디지털불경 룸비니 + 테이프 8개 + CD2개 특별가 58.000원
• 팩키지 II 디지털불경 룸비니 + CD 1개를 특별가 39.000원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2-0880

입금구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